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 기념자료집

어설픈,  
글,

하지만 망하지 않은



# 목 차

· 여는 글	4p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탄생 과정	6p
· 10년 활동의 역사	9p
· 두발자유부터 학생인권조례까지 그리고 그 이후	10p
· 꼭 바꿔야 하지만 참 어려운 그 문제, 교육	20p
·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정치를	28p
·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38p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사	45p
· 10년의 역사, 10명의 회원들	80p
· 시대의 요구를 받아 안기 위해 탄생한 아수나로 - 무직인꿈틀이 인터뷰	81p
·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김동욱(피엠피) 인터뷰	88p
· 아수나로가 고향 같은 사람 - 세안세다 인터뷰	93p
· 구경하러 갔다가 7년을 활동한 - 포알 인터뷰	98p
· 아수나로의 청소년 활동가들 - 밀루, 찡찡 인터뷰	103p
· 아수나로와 함께 늙어간 사람들 - 난다, 따이루, 윤쓰리 인터뷰	107p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백과사전	113p

---

## 여는 글

이 자료집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2016년, 1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하고 제작한 것이다. 이 자료집의 발간 목적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역사와 운동을 기록하여 남기고, 아수나로의 회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설픈, 하지만 망하지 않은》이라는 제목은 10년의 세월 동안 계속 활동해온 아수나로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담았으면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미흡했던 점들을 인정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온 역사를 표현한 것이다.

자료집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사(前史)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04년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가 만들어지고 2006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전환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했다.

이후의 아수나로의 활동의 역사는 대주제별로 나누어서 서술했다. 학생인권, 교육, 정치적 권리, 청소년 보호주의 반대, 이렇게 네 가지 주제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반대나 청소년노동인권,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등, 활동을 하긴 했으되 꾸준히 하지 못했거나 분류하기 어려웠던 활동들을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활동의 역사 다음에는 운영을 살피기 위해서 총회사를 배치했다. 이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1년에 2회 또는 1회씩 열었던 총회에서 주로 토론하고 결정했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아수나로의 내부 사정이나 운영의 역사를 개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2015년 1월에 열렸던 제16회 총회까지를 서술했다.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후 ‘10주년 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여 회원 제도를 바꾸고 상근활동가를 두는 등의 개혁을 했음을 말해둔다.

다음으로는 아수나로 활동의 경험과 역사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10명의 아수나로 회원들을 인터뷰한 것을 실었다. 아수나로의 초창기 멤버부터 시작해서 현재 활동 중인 사람들까지, 활동 시기와 지역 등을 적절히 분배했다. 아수나로 활동이 각자에게 어떤 경험인지, 그들이 활동했던 지부나 이슈 등은 어땠는지, 어떤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백과사전을 통해, 아수나로와 청소년운동이 사용하는 개념과 문화 등을 소개했다. 운동의 개별 이슈들까지 포함시키면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그 자체가 일종의 백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 다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수나로 안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나 운영상의 고민, 청소년운동의 성과나 관련 제도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집의 제작에는 '10주년팀'의 공현, 난다, 영서, 타시야가 참여했고 그 밖의 전·현 아수나로 회원들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거나 다양한 수정·보완 의견을 주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탄생 과정

1990년대에 싹을 틔웠던 청소년운동(또는 청소년인권운동)은, 2000년대 중반까지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보충자율학습과 0교시 폐지, 학교 종교자유,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선거권 제한 연령 인하, 정보인권 등 많은 이슈들을 공론화시켰다. 그러나 수없이 대두되는 이슈들에 비해서 청소년운동의 세력과 기반은 불안정했다. 전국 조직을 지향했던 단체들도 대개 만들어진 지 3~4년 만에 사라졌고, 다른 청소년운동 조직들 역시 2~3년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오랜 역사와 뿌리를 가진 청소년운동 단체들 중 일부는 계속 남아 있었지만, 2000년대에 청소년인권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성격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청소년운동 조직들은 다들 생존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운동의 주체들은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시도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를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진보정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미 활동하던 청소년활동가들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려 했던 <청소년의 힘으로>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운동의 주체를 만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의 결성과 활동

아수나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청소년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남 진주의 <행동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의 힘으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등이,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계승하면서 더 발전한 청소년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2004년 하반기에 모여서 결성했던 것이 바로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였던 것이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이전의 청소년운동이 제대로 청소년인권이나 청소년운동에 대해 연구하지 못했고 자료를 축적시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더 나은 청소년운동을 위해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고 청소년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의 주된 활동은 청소년운동에 대한 연구와 자료 찾기 등이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학생인권에 대한 논문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고, 청소년노동에 관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 정리하거나, 오랜 역사를 가진 인권단체를 인터뷰하여 운동방법론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의 활동을 했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또한, <청소년의 눈으로>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간하는 활동도 했다. 이

는 원래 <행동하는 청소년>이 발간하던 이메일 웹진을 계승하여, 종이 신문으로 낸 것이었다. 《청소년의 눈으로》에서는 당시 청소년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전달하는 동시에 아수나로에서 연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가공하여 전달하는 기사를 실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발간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아수나로의 관점과 주장을 청소년활동가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기능도 했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단지 연구를 목적으로 한 모임은 아니었다. 청소년운동이 마주한 현안에 직접 대응하고 개입하기도 했고, 청소년 당사자들이 만든 청소년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하기도 했다. 두발자유 운동이 2005년에 대중적으로 전개되자 집회를 준비하는 연대체에 참여했고 ‘두발자유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또한 다음 카페에서 만들어져서 학생인권과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반대 운동 등을 한 <한국청소년모임>이나, 전주에서 만들어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등의 조직들을 지원하고 ‘드라인’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또한 다음 카페에서 만들어져서 학생인권과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반대 운동 등을 한 <한국청소년모임>이나, 전주에서 만들어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등의 조직들을 지원하고 함께했다.

2005년 하반기,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청소년운동의 주체들을 만들고자 하는 기획의 일환으로 <학생인권공동행동>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리집회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역량의 부족, 비청소년 활동가와 청소년 활동가를 분리해서 일어나는 어려움 등,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2005년 내신 등급제 반대 촛불집회와 두발자유 운동 등의 사건과 <학생인권공동행동>의 실패 등을 경험한 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의 멤버들은 아수나로를 직접 청소년운동 조직으로 전환하고 비청소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단체로 만드는 구상을 하게 되었다.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20살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청소년운동에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고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훼손할까봐 꺼리는 문화가 가진 곳들도 있는 형편이었다. 아수나로가 명시적으로 비청소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청소년운동 조직을 표방한 것은 운동 내적으로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의 전환

이에 따라 2006년 2월,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의 멤버 중 4명이 서울에 모여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활동하는 운동 조직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이름을 바꾼다. 아수나로에는 경남 진주의 <행동하는 청소년>이 진주지부로 병합하기로 했으며, 서울에서는 그동안 활동했던 멤버들이 서울지부를 만들기로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초기에는 연대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슈를 만들고 활동을 해나갔으며, 지부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운동을 만들어나갔다. 2006년에 만들어지고 얼마 안되어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이 참여하여 광주지부를 만들었고, 울산지부나 대전지부 등도 만들어졌다. 아수나로는 반년에서 1년 여의 활동 후에 기본원칙과 회칙 등을 결정하고 더 체계적인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거치며 축적되어 온 것들의 결실이다. 어느 단계이건 역사의 산물이 아니겠느냐마는, 아수나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 이후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실패했던 경험들, 성공했던 경험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 형성된 아수나로의 특징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지향, 전국적인 청소년운동 조직 지향, 청소년의 직접 행동에 대한 강조, 비청소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참여와 활동, 진보적인 성격을 견지하며 연대하지만 청소년운동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경계심, 청소년 역압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 기념자료집

어서요,  
르니,

하지만 망하지 않은  
너들

## 10년 활동의 역사

## 두발자유부터 학생인권조례까지 그리고 그 이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의 출발점을 잡으라고 한다면 학생인권 운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나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주력해온 활동을 고르라고 해도 역시 학생인권 운동일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들 90% 이상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6~12시간 이상 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으며, 학교에서 두발복장규제 등 직접적인 억압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대중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이 막 시작하던 시기에 가장 호응을 많이 얻었던 이슈도 두발자유, 강제보충자율학습 중단 등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주력해온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청소년인권 문제 중에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도 학생인권이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얻어낸 것도 학생인권이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학생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지역에서 제정되면서, 외부에서는 마치 학생인권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 듯 보거나 그것이 소위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인 듯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의 현실과 지금까지의 운동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라면 아직도 지난한 학생인권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여기까지 진전해오기까지 아수나로를 비롯한 많은 주체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것이다. 아수나로는 두발자유 운동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학생인권 운동의 이후 활동에까지, 여전히 운동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첫 걸음 : 두발자유 운동

아수나로가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시절에 만든 첫 번째 종이 유인물이 ‘두발자유화 가이드라인’이었고, 아수나로가 초기에 온라인에서 배포한 청소년인권 주장 글이 ‘두발자유 해야 하는 99가지 이유’ 등인 것을 보더라도 아수나로의 첫 걸음에 두발자유 운동의 흔적은 뚜렷하다. 이는 두발자유가 학생들이 가장 공감하기 쉬운 이슈였기 때문이며 아수나로가 처음 만들어진 2005년 무렵에 두발자유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서명운동, 학내 행동 등이 벌어지면서 가장 잘 알려진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청소년운동 단체들의 공동 관심사였다. 아수나로도 청소년인권연구포럼 때부터 2005년 두발자유 운동을 준비하는 연대체에 참여했던 바 있다.

2006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출범하고 나서도 주된 활동 이슈는 두발자유였다. 전국 공통의 활동 의제로 두발자유 운동을 이어가기로 공식 결정을 했고, 2006년 결성된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연대체

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도 2005년의 분위기를 이어가서 두발자유 운동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2006년 5월 14일에 ‘두발자유, 바로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거리 집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열었다. 그리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두발자전거 행진’ 등의 활동을 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도 거리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서명을 모으는 활동을 했다.

두발자유 운동은 2005년부터 여러 가지 학교 내 운동으로도 표출되었다. 2005년에 서울 송파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성남 풍생고등학교 등에서 종이비행기 시위, 운동장 시위 등이 열렸고 학생들이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락카시위를 몰래 하는 일도 여러 학교에서 일어났다. 아수나로의 활동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 양동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두발자유 학내시위를 하는 것을 지원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려는 것을 막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내 행동은 2006~2007년 동안에도 수원 청명고등학교, 서울 세민정보산업고등학교 등에서 일어났고 아수나로는 이에 대해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인천 예일고등학교, 서울 동성고등학교, 서울 중앙고등학교, 울산 옥동중학교·신정중학교 등에서는 아수나로 활동회원이 직접 두발자유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거나 학내시위를 열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울 독산고등학교에 학생들과 연계하여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자전거 항의 시위를 ‘스쿨어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운동은, 학내 시위나 직접 행동 외에도 서명운동,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은 학교 안에서 두발규정 개정에 관한 학생 설문조사를 한 후 학교 측에 이를 근거로 두발규정 개정을 요구하거나, 서명운동을 통해 두발자유화를 요구하곤 했다.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아수나로의 전단지들을 학교 안에서 몰래 배포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초기 아수나로의 두발자유 운동은, 과거의 두발자유 운동의 분위기와 명맥, 논리 등을 기반 삼아서 학교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2000년대 중반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대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관련한 자생적 활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 학생인권 주요 의제들의 확장

학생인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 두발자유이기는 했으나 두발자유 외에도 여러 가지 학생인권의 대표적 의제들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아수나로의 활동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예컨대 아수나로 울산지부는 울산 효정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동성고등학교나 옥동중학교·신정중학교의 학내 운동들도 요구사항으로 두발자유만을 내건 것은 아니었다. 학생의 사상의 자유 보장,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중단, 소지품 검사 중단, 체벌금지 등의 그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불만을 느끼고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하여 주장했다. 2008년 경남 용마고등학교에서는 아수나로의 활동회원이 동아리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학교에서 이를 제지하자 학내시위를 준비했다가 탄압으로 인해 무산된 사건이 있었다. 용마고 학생들이 요구한 것에도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등에 더해 등교시 후문 이용 허용 등 학

생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방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략적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은 다양한 학생인권의 논리를 개발하고 공론화하고 제기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연구 결과나 토론 등을 참조하여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논리를 정리했고, 소지품 검사나 휴대전화 규제 등에 대해서도 아수나로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휴대전화 규제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새롭게 나온 의제였고 아수나로는 이 문제를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만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아서 학생인권의 문제로 포함시켰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도 휴대전화 규제를 주제로 하여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리를 가다듬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도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완전히 소지를 금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런 주장들은 청소년활동가들과 학교 안에서 항의하고 활동을 만드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었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이에 관한 탄압과 인권 문제들도 불거졌다. 2007년, 경기도 안양 평촌고에서는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들을 배포한 아수나로 활동회원을 징계하기 위한 선도위원회를 열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학교에 항의하여 징계를 철회시켰다. 이처럼 학교로부터의 탄압이 끊이지 않았기에 학생들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은 수시로 일어났다. 서명운동을 하다가 용지를 압수당하는 사례, 학내시위를 하려 했다고 체벌이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맞서는 것은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한 활동’이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학생인권 주장의 확장은 거리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이 연 거리집회의 명칭은 <두발자유, 바로 지금>이었다. 2007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연 거리집회는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였고, 그 슬로건으로는 “▲ 두발용의복장 전면자유화! ▲ 휴대폰 등 소지품검사, 압수 폐지! ▲ 체벌, 욕설, 폭력, 당장 그만! ▲ 입시살인, 입시신분제 즐! ▲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5개를 표방했다. 학생인권의 주요 의제로 두발복장자유, 차별금지, 사생활의 자유, 표현·집회의 자유 및 민주적 참여권, 입시경쟁교육 반대를 제시한 셈이다. 아수나로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모으고 다듬은 학생인권 의제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 청소년운동의 역사 속에서 제기되었던 이야기들을 한데 모은 것이었다. 비록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의의는 산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를 정리하고 ‘학생인권’의 대표적 의제들로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학생인권법안 등에도 주된 내용으로 반영되었고 이후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 아수나로는 변화하는 학생인권 상황에 맞춰 입장을 내고 개악을 저지하는 등의 활동도 했다. 2008~2009년 무렵 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체벌의 대체수단으로 ‘그린마일리지’라는 이름의 상벌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었다. 2009년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최초로 전면 시행하려고 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

지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는 상벌점제를 비판하고 휴대전화금지조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9년 울산지부와 서울지부에서도 각자 지역에서 추진되는 휴대전화금지조례에 대해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반대 의견을 밝히고 플래시몹을 여는 등의 활동을 했다.

상벌점제는 체벌금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안이었으며,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수나로는 상벌점제가 전면 도입될 무렵부터 체벌금지는 환영하지만 체벌을 벌점으로 대체한다는 방식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비판했다. 억압적이고 규제 위주의 학교 문화와 규칙을 바꾸고 수업 방식 등을 바꿔야지, 체벌을 대체하는 통제 수단으로서 강력한 상벌점제를 도입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란 점과 상벌점제로 인해서 생겨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상벌점제를 비판하는 활동은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이어져서, 상벌점제 운용으로 인해 학생들 수십 명이 퇴학시킨 학교에 항의하고 과도한 징벌로 퇴학당한 학생들을 복학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학교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들을 했다.

### 제도화: 학생인권법안과 학생인권조례

2000년대에 다양한 학생인권 이슈들이 공론화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한 해결을 보지는 못한 채 5~6년이 흘렀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운동을 새롭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는 결의에 따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답보 상태는 또 다른 움직임을 낳았는데, 바로 학생인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각종 요구들은,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성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학교들의 탄압과 정부 관료들의 무시에 가로막히고 있었다. 입법적인 방식으로 법 등을 만드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러한 제도화의 움직임은 2005~2006년쯤, 광주에서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나 2006년 <민주노동당>에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가시화되었다. 그 이전에도 2004년 부산에서 있었던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한 시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인권을 개선해보자고 제안했던 기록이 있다.

최초로 거론되었던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 이후 청소년운동의 주된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학생인권법안의 내용을 간추리면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차별금지, 종교의 자유, 강제보충자율학습 금지, 학생회 자치권 및 학교운영참여 보장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안에 학생의 인권 항목으로 신설하자는 개정안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운동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법안'을 내세우게 된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학생인권의 요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법안 통과'라는 구체적 목표를 명확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아수나로를 포함하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인권법안 통과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서명을 모았고 학교 안에서도 학생인 회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서명을 모아서 우편으로 모아달라고 홍보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나 <홍사단> 등 교육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학생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집회 등을 열었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안은 2008년, 원안 통과가 좌절되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 처음에는 애매한 태도였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교총〉의 반대 의견에 따라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았다. 결국 학생인권법안은 “헌법과 국제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조문 한 줄을 초·중·등교육법에 새기는 데 그쳤다. 당시 국회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도 학생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전교조 역시 지지하는 입장이지는 했지만 통과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후 제도화 이슈는 각 지역으로, 조례 문제로 넘어갔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2008년 당선된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나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하지만 낙선했던) 주경복 후보 등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9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나섰고, 2010년 상반기에는 체계적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청소년운동이 만들어 온 많은 논리들과 학생인권의 문제들이 반영되었고 일본의 아동인권조례나 과거 논의된 광주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안 등이 주된 참고 대상이 되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09년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의 최전선에서는 다소 물러나서 페미니즘, 노동인권, 보호주의 등 청소년인권의 의제를 넓히는 데 힘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활동은 청소년운동 단체로서는 주로 아수나로가 도맡아서 진행했다. 아수나로 회원을 비롯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자문위원이나 학생참여기획단 운영 등에 참여해서 최대한 인권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아수나로 수원지부 등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도의회에 전달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이후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소위 ‘민주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6개 지역에서 당선되었고 이들은 대개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걸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2010년 10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게 된다. 또한 2010년 10월, 서울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 운동본부〉를 꾸리고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광주와 전북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교육청이 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남과 충북에서도 아수나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부터도 그랬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험난했다. 서울은 수도라는 이유로 특히 더욱 주목을 받았고 많은 쟁점들이 튀어 나왔다. 더군다나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음에도 주민발의 서명을 모으는 것은 매우 지지부진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서울시 선거권자의 1%—8만 1885명의 만 19세 이상 비청소년의 서명을 받아내야만 주민발의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주민발의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서명은 5천 명을 채 넘지 못했다. 2011년 초, 자기 조직에서 몇 명을 모아보겠다고 많은 조직 서명 약속들이 지켜지지 못했고 주민발의가 실패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아수나로 활동회원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함께 해온 활동가들은 학생인권 운동에 큰 후퇴가 될 주민발의 실패라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비청소년만 서명을 할 수 있

다는 점 때문에 주민발의 초기에는 홍보 활동 및 청소년 조직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던 아수나로 등 청소년활동가들은, 이전의 기획들을 포기하고 몸과 시간을 바쳐 거리 서명에 나섰다. 청소년활동가들은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인권단체들 등의 몇몇 활동가들이 매일 같이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자!”라고 외치며 거리 서명을 받았고 여러 단체의 각종 행사마다 쫓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다. 봄부터는 주말에 소속 단체들을 독려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거리 서명만으로 2만 명이 넘는 서명을 모아냈다. 이에 더해 각종 온라인 홍보, 주민발의 기간 중에 일어난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과 공론화, 언론의 기획 기사 보도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게 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편을 통해 서명에 참여해주면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가까스로 기준을 넘겨 성공했다. 7월에 다시 재보완 서명을 받는 일이 있기는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주민발의 요건을 성사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 조례를 발의한 게 끝이 아니었다. 여러 언론들에서 학생인권조례 속의 당연한 조항들, 집회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등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고 공격에 나섰다. 근본주의적 기독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속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및 출산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10대 출산을 조장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공격을 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서울 운동본부는 시의원들과 민주당 등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활동에 나섰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시의회를 점거하고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당시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였는데) 서울교육감 대행인 부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는 등 휘방을 놓았으나,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된 이후 2012년 1월 드디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차별금지 등의 조항은 원안이 유지되었으나 집회의 자유나 복장의 자유, 정보인권, 학교규칙개정 절차 등에 관한 부분들은 일부 훼손된 안이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무산될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기 얼마 전인 2011년 하반기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 비하면 큰 논란 없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2년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교육청이 발의한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이후 민주당 도의원은 종교의 자유, 두발복장자유, 성소수자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관한 중요한 조항들이 삭제된 수정안을 발의했고 <전교조 전북지부> 등도 후퇴한 수정안의 통과에 동조했다. 이에 아수나로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여 도의회를 점거하고 수정안 상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한 활동의 결과 전라북도에서도 2013년, 비교적 원안에 가까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학교 규칙에서 용의복장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두발자유에 대한 내용이 크게 후퇴한 결점이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반면, 경남과 충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공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며 발의를 거부하거나 도의회에서 부결시킨 탓에 제정에 실패했다. 또한 전라남도나 강원도, 인천 등에서는 교육청 혹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의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가져오되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 내용과 원칙을 후퇴시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아수나로를 비롯한 단체들의 비판, 또는 그조차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보수정당·단체 등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교육감 및 교육감 후보들도 당장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학생인권조례가 추가로 제정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효 소송을 남발했다. 비록 소송의 결과는 서울의 경우는 절차를 거쳐서 각하, 전북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하다는 판결로 기각당하는 등 교육부의 완패였지만, 시행령 개정과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정착에는 큰 악영향을 끼쳤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학생인권 운동을 둘러싼 상황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한국의 학생인권 상황은 어느 정도 진일보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두발규제가 많이 약화되거나 일부 학교들은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강제적 보충자율학습도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했는데,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두발자유·체벌금지·강제보충자율학습금지 외에도 다양한 인권 보장 조항들이 있지만 그 대다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고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광범위한 내용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지지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고 단체 구성원들이나 회원들 사이에도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서울 주민발의 과정이나 전북의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현실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조직 서명을 모은 경남과 충북의 경우에도 과연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이 시민사회 안에서 충분히 공유되었는지는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운동 사회 바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인권 보장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힘을 가지게 되자, 이에 대한 반동도 강해졌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문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었고 색깔론, 교권 붕괴, 학교폭력 등의 담론이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데 동원되었다.

아수나로 내부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는 아수나로가 많은 역량을 쏟게 만든 활동이었고 활동회원들을 피로하게 만들기도 했다. 조례 시행 이후에도 조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견제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대중적 조직이 없는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운동은 여러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교육청과 학교들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를 발로 뛰면서 알리고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아수나로의 운동 성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교육청에 신고만 하는 데서 만족하게 되었다거나 운동이 조례를 지키라는 주장에 갇히게 되었다는 내부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아수나로에게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운동 방식을 모색하고 학생인권 문제를 새롭게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현실을 알고 알리는 실태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시작될 무렵, 아수나로에서는 학생인권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알리기 위한 운동 방식의 하나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과거에도 특정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례 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설문조사의 형태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2009년이 최초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실을 조사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따라 온라인과 인쇄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교사단체나 학부모단체들, 다른 시민단체 등이 협력했다. 조사 내용은 그동안 학생인권의 주된 문제로 제기된 것들을 담았고 학생인권조례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조사도 포함되었다. 많은 시행착오와 밤을 새는 노력 끝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듬해인 2010년, 아수나로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연애 탄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몇몇 지역의 몇 개 학교들의 공개된 학칙들을 조사하고 학생들로부터 사례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과반의 학교들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나 '풍기문란' 행위를 처벌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몇몇 학교들에서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면 벌점을 주거나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연애 탄압 실태조사는 사생활의 자유 문제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한 것이면서, 학생인권조례 이후로 쟁점이 되기 시작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이슈와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었다.

아수나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아수나로가 참여한 연대체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진행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 운동본부>에서도 주민발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인권 관련 서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주민발의 운동 진행 도중에도 학교 안의 '차별과 언어폭력'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일상 속의 학생인권 침해를 이슈화시켰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던 2012년 결성된 연대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도 2013년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들이 몇몇 지역에서 시행된 이후로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깨고, 여전히 학생인권 현실이 열악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학생인권이 나아졌는지, 이후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알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의가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자원을 확보한 아수나로가 학생인권 문제를 현실의 수치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기 위해 선택한 운동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학생들이 심각하게 경험하는 학생인권 사안을 알고 이를 운동 기획에 참고할 수도 있다. 다만 실태조사 방식은 아수나로보다도 전문성과 예산을 갖춘 곳에서 하는 것에 적절하며, 실태조사가 학생들을 조직화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운동의 역량을 소모하고 재충전하지는 못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이었다는 내부적 비판도 있다.

## 오래된 과제, 새로운 과제

2013년 겨울, 서울 은평구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서 아수나로 활동회원인 고3 학생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교사들은 그 학생에 대해 모함하는 발언들을 했다. 다른 일부 학생들도 이에 동조하여 그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나, 그 학생 때문에 수능시험 이후에도 정상 수업을 해야 한다는 등의 오해로 언어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학교는 일단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수업을 할 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2015년, 대전의 충남중학교에서는 아수나로 활동회원인 중3 학생이 학교의 두발규제와 체벌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학교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았다. 무단결석과 교사지시불이행, 그리고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이유로 그 학생에게는 교내봉사 징계가 결정되었다. 아수나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학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며 항의했고, 징계는 공식 철회되지는 않았으나 집행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2004년 강의석이 서울 대광고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단식을 한 모습, 그리고 2007년 경기도 평촌고에서 아수나로 회원이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징계를 받을 뻔했던 모습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학생인권 상황이 분명히 개선되고 진전된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오래된 과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은 탄압과 대응이 반복되고, 어떤 때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민주적인 자치와 참여와 같은 문제들도 답보 상태에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민주주의나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의 권한과 권력 분배, 학생들의 정치 역량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듯싶다. 이런 오래된 과제들은 두발규제 문제와 같이 눈에 띄는 지역별 편차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조차도 체벌과 두발규제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완전히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래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 관련 새로운 과제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불가능' 상황,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학교 교육 자체, 사회적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주는 절망감 등도 커지고 있고,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배제하고 탈락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벌금지나 두발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어느 정도 현실화된 학생인권 보장의 사안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과서나 철도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정부와 보수언론들, 극우단체들 등은 이를 기존의 정치 구도 속에서 해석하며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체벌금지나 두발자유가 북한의 지시에 의해 학교를 봉괴시키려는 '내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도 <교총>의 공식 입장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학생 인권이 정치적 쟁점으로 다루어지면서 학생들의 지지나 참여 역시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할 조직화와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1990년대부터 반복되어온 공식이지만, '학교폭력'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간 괴롭힘·폭력·차별(학생간 괴롭힘)에 대한 논의 역시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며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학생

간 괴롭힘의 문제는 중대한 학생인권 문제의 일부임은 분명하며 이를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 등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인 듯 묘사하고 마치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인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식의 잘못된 해석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려고 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생 간 괴롭힘 문제를 일부 문제적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배제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서적 반응이 존재하고 있다.

아수나로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학교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하거나, 학생 간 괴롭힘 사안에 관해 개별 사건에 대해 대처하거나, 폭력과 차별 없는 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자는 목소리를 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역부족이며 아수나로 등 청소년인권운동이 학교폭력을 옹호하거나 방지한다는 식의 악선전마저 나오고 있다. 이를 일종의 청소년혐오 현상의 일부로 보고 ‘학교폭력’ 담론으로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데 대한 꾸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인해서 교실이 ‘붕괴’한다거나 교사들의 노동이 힘들어진다는 등, 학교의 노동·교육 환경 및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문제들을 학생인권의 탓으로 떠넘기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응이 필요하다.

학생들 중 소수자와 차별에 관한 이슈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빈곤이나 성적이 하위인 것, 성별 등의 차별 사안들이 있고, 또 이주민과 성소수자, 장애인 학생 등의 차별 사안들도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차별 문제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에는 더욱 눈에 띄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쟁점이 된 이후로는 청소년 성소수자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관해서는 아직은 근본적인 도전보다는 차별금지과 과도한 처벌 및 혐오 등에 반대하는 기초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후에는 당사자들의 조직화 및 행동으로 견고한 정서적 혐오와 통제의 벽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아수나로 외에도 다른 청소년단체 및 성소수자단체들의 활동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 운동은 아수나로 10년의 운동 역사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중심적인 운동이면서 동시에 아수나로 활동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학생인권 운동은 아수나로가 과거로부터 바탕을 이어받아서 시작한 운동의 출발점이었으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교육운동과 학생인권 운동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학생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을 이루었을 때, 아수나로 역시 하나의 과제를 완수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 꼭 바뀌야 하지만 참 어려운 그 문제, 교육

청소년운동 자체에 교육운동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1980년대 고등학생운동 이래로 언제나 공공연히 운동 내외에서 인정되었던 점이다. 아수나로와 인적 연관이 있는 조직인 <전국중고등학생연합>(2000)의 풀네임 역시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으로 '교육개혁'을 단체의 목적으로 내걸었다. 아수나로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무렵 있었던 2005년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도 청소년들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출한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초중고등학생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학생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운동은 청소년운동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운동은 교육운동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는 일이 많다. 교육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교사운동, 혹은 학부모운동이나 교수 등이 참여하는 비청소년 NGO들의 시민운동을 떠올리고 청소년운동은 그와 다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전교조> 등의 교사단체나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교육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인식이다. 본문에서도 “교육운동 단체”라는 말을 이러한 교사·학부모·시민단체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쓸 것이다. 청소년운동의 교육운동은 이러한 다른 교육운동 주체들과의 관계 맺기의 문제이기도 했고 여러 갈등과 긴장관계가 있어왔다. 2005년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 때부터도 그런 관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긴장관계는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수나로의 첫 출발점이었던 학생인권운동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운동에 속할 것이다. 또한 교육운동은 가장 중요한 학생인권운동이기도 할 것이고 말이다. 서술의 편의상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주로 학교의 규율과 문화에 연관된 '학생인권운동'과 구분하여 '교육운동'은 거시적인 교육제도, 국가교육과정, 진학 또는 평가 제도, 학교서열화, 입시경쟁 등의 의제를 다루는 운동을 가리켜 쓰도록 하겠다. 아수나로가 해온 교육운동은 굵직한 것만 꼽아본다면 처음에는 입시경쟁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정책 현안으로서 이명박 정부 시기 도입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독자적인 실천으로서의 대학거부운동과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교육의제로서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 등으로 연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입시경쟁에 대한 문제의식

입시경쟁이 목표가 되어버린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수나로 초기부터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다. 어찌

한 교육철학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가 없더라도, 사실상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침해들이 입시를 위한 통제이자 ‘면학분위기 만들기’로서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입시경쟁이 비인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가지기 마련이었다. 입시경쟁교육은 종종 학생인권침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수나로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아수나로만의 교육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 회원교육 자료로 교육에 대한 책 읽기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06년 ‘입시KIN(즐)페스티벌’에 함께한 것이 최초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몇 년에 걸쳐 계속 해온 안티수능페스티벌로 <문화연대> 등의 단체가 제안한 활동이었다. 수능시험 당일 저녁에 대학로에서 입시경쟁교육과 수능시험 등에 반대하는 거리문화제를 연 것이다. 또한 수능시험일 오전에는 교육운동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보다 입시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살인적 입시제도를 비판하는 단두대 퍼포먼스를 했다. 당시에 많은 교육운동 의제가 있었으나, 특히 대학수능시험으로 상징되는 입시경쟁교육을 비판하는 활동은 청소년인권운동으로서 교육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또한 2007년에는 아수나로 광주지부가 주도하여 ‘특정대학교 합격 현수막 반대’ 운동을 펼쳤다. 학교들이 입시철에 자기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모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학생들을 차별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입시경쟁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모두가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열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고 대학입시로 ‘성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도 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운동 단체들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입시폐지운동본부)를 만들었다. 과거 <학벌없는사회>의 활동이나 서울대 폐지-대학평준화 주장 등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수능자격고사/절대평가화·대학평준화·학력학벌차별철폐를 핵심 주장으로 표방한 대규모 교육운동 연대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아수나로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함께 <입시폐지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홍보물을 만들거나 활동을 기획하는 등의 일을 공동으로 했다. <입시폐지운동본부>에서 전국 자전거 행진을 할 때는 아수나로의 여러 지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도 했다. <입시폐지운동본부>는 수능시험일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청소년 다함께>에서 활동하던 허그루가 수능거부선언을 했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있던 주말에 수백 명이 참가한 규모로 거리집회를 열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현안 대응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교육운동의 상황도 변해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개악, 학생인권 후퇴 정책들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운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청소년운동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촛불집회가 한창 일어날 때에는 학교의 각종 지침 등을 없애고 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율화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제고사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일제고사, 정식 명칭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학력평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날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정책이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중간기말고사 같은 게 일제고사인 셈이다. 문제는 전국 단위로 일제고사를 시행할 경우에 그것이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력 미달’ 학생들을 획일적 시험으로 가려내고 보충수업을 시키는 등 학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점이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수능시험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등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지고 있었고 사실상 수능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가 존재했다지만,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정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이를 전면 시행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운동은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아수나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 함께했다. 아수나로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등교거부/시험거부 행동을 처음에 제안했는데 다른 청소년단체와 운동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어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다른 청소년단체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를 꾸려서 공동 행동에 나섰다. 교사운동 및 학부모운동이 주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주력했다면 아수나로 등은 ‘체험학습’이 아니라 등교거부/시험거부/오답선언 등의 불복종 행동과 거리집회 및 문화제에 주력하는 편이었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 가장 큰 힘을 들인 때는 2009년에서 2010년 7월까지였다. 2009년에는 시험지에 오답을 적겠다고 선언하는 ‘오답선언’, 거리행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의 장기간 거리농성으로 일제고사 반대 운동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다가 운동의 역량과 조직력의 한계로 2010년 초에는 다소 힘이 떨어져서 교사운동 및 학부모운동의 활동에 묻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는 줄 세우기 시험이 없다면 낙오자도 없다는 의미로 시험과 평가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담은 표어인 “No Test, No Loser”를 걸고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행동을 기획했다. 2010년 7월의 행동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게 당시 당선된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들과 연계 주목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는 아수나로가 유명해지는 계기이면서 동시에 많은 공격에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때 아수나로는 교원평가가 사실상 교원 통제 정책이고 학생들에 의한 민주적 참여나 교사 견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수업이나 학교운영, 교원 인사 등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아수나로가 교원평가제나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서, 이는 <전교조>에 의해 조종당해서 정치 활동이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

2010년 이후로 대대적인 일제고사 반대 운동은 다소 사그라졌으나 여러 지부들은 교육운동 단체들과 함께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을 함께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이 2010년 이후로 다소 줄어든 것은 물론 소위 ‘민주진보교육감’들의 당선 이후 정세의 변화 탓도 있다. 그러나 아수나로의 입장에서는 만 2년 가량 집중한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서 역량을 소진하여 지쳤던 감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육운동 측과 의견이나 운동방식의 차이가 계속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던 면도 있었다. 아수나로는 일제고사에 관해서 ‘불쌍한 초등학생들까지 시험을 보게 한다’ 등의 부모 감성, 보호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에 불편해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일제고사로 인한 서열화 등의 문제

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호응이 덜했다. 중간기말고사나 수능시험 등 시험 그 자체에 대한 비판 없이 일제고사만 '나쁜 시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나 교사의 동의나 지지가 필요한 '체험학습'이라는 주된 운동방식에 관해서도 아수나로 등과 내부에서 논쟁했던 바 있다.

분류	일시	주요 사건	참고
2008년 일제고사 첫 시행 전후	3월 4일	〈청소년 다함께〉 일제고사 반대 성명 발표	
	3월 6일 / 11일	중1 / 초4~6 일제고사 시행	
	9월 5일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단체들에 일 제고사 거부/불복종 운동과 연대체 결성 제안 발송	
	9월 20일	단체들과 개인들의 모임으로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 결성	
2008년 10월 일제고사	10월 1일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10월 11일	광주, 서울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문화제	
	10월 8일/14~15일	초중고 일제고사 시행	
	10월 14일~15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등교거부 등	
-	12월 10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안내 교사 7명 에게 서울시교육청 파면·해임 징계	
2008년 12월 일제고사	12월 23일	중1, 2 일제고사 시행	
	12월 23일	시험거부행동, 청소년집회	
2009년 3월 일제고사	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교육청 앞 청소년 거리농성 시작	3월 10일까지 예정이었 지만 일제고사 연기에
	3월 4일	성적조작 파문으로 일제고사 일정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기	
	3월 14일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 명동 청소년 거 리 행진 및 퍼포먼스	

2009년 3월 일제고사	3월 31일	초중 일제고사 시행	
	3월 28일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거리집회	
	3월 31일	등교거부 행동, 청소년 오답선언 발표, 일제고사 반대 거리집회	
2009년 10월 일제고사	10월 13일/14일	초중고 일제고사 시행	
	10월 13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진중권 강연, 뮤지컬, 영화 등) 일제고사 반대 콘서트	
2009년 10월 일제고사	10월 14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뮤지컬 등	
2009년 12월 일제고사	12월 17일	일제고사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12월 23일	중1, 2 일제고사 시행	
	12월 23일	일제고사 반대 동시다발 1인시위, 스케이트 타기, 일제고사 반대 문화제	
2010년 3월 일제고사	3월 9일	초중 일제고사 시행	
	3월 9일	일제고사 반대 한해살이 준비 체험학습, 일제고사 반대 교육주체 결의대회	
2010년 7월 일제고사	7월 9일	No Test, No Loser -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 청소년 거리행동	소위 '민주진보교육감' 들 당선직후라 불참 보장 여부로 논란이 많았음.
	7월 13일/14일	초중고 일제고사 시행	
	7월 13일/14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및 공연관람, 일제고사, 교원평가 폐지 문화제	



그 이후	2011년 3월	해직교사 징계 무효 판결 축하 및 복직 촉구 기자회견	
	2011년 7월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아수나로 구미, 광주 등 지부에서 일제고사 반대 서명운동 및 활동	
	2011년	중1, 2 일제고사 폐지	
	2013년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 표1 일제고사 반대에 관한 청소년운동의 주요 활동 및 사건 정리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청소년운동은 교육 문제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교육운동 주체들과의 관계 설정과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통해서 '시험'이나 '평가', '서열화' 등에 대해서 청소년운동에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일제고사 외에도 다른 여러 시험들에 대해서 주장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와중에 교육과 학생인권을 주제로 거리 집회를 기획했다. '실종신고 - 사라진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집회에서는 "중간기말부터 수능까지 시험을 폐지하라"라는 등, 아수나로의 교육 변혁 요구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해진 것은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얻은 성과였다.

## 교육감 선거 관련 대응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다. 교육감 선거에 관련된 운동은 사실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운동 주체들과의 갈등이나 청소년운동의 교육에 관한 주장 등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난 뒤 아수나로가 가장 먼저 관련해서 한 활동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에 한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후보' 운동이었다.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퍼포먼스성 운동인 동시에, 선거 공약의 형태를 빌어 아수나로 등 청소년운동이 교육에 관해서 요구하던 주장들을 표출한 운동이기도 했다. 이 운동은 이후에 2010년 전국에서 동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전국적인 단위로 좀 더 확대해서 진행되었다.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운동의 의미는, 당시에 모든 소위 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감 선거에 결합하여 선거운동에 나설 때 아수나로는 청소년운동의 목소리를 따로 내기로 했다는 데 있다. 물론 거기에는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현행법의 탓도 있다. 그렇다 해도 청소년단체 내의 비청소년들이 선거운동에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당선에

역량을 쏟은 청소년운동 단체들도 여럿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을 기획한 것은 아수나로가 청소년운동으로서 여타의 교육운동 주체들과 선을 그은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공약을 보면, 2008년에는 학생인권 보장과 입시폐지 등 청소년운동이 그동안 해온 대표적 주장들을 나열하는 수준이지만, 2010년에는 좀 더 심화되어서 시험제도나 학교 안에서의 노동 등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담은 공약집을 냈다. 이는 청소년운동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각종 교육정책들에 대해 해석과 발언을 시도한 것이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과 함께, 2010년과 2012년과 2014년 등에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들에 참여했던 사례들이 있다. 아수나로는 참여를 통해서 교육감의 공약 사항 등에 학생인권 등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했으나 추대위 참여는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2012년, 서울지역에서는 추대위가 내부 경선 후보들 사이의 표 계산 속에 청소년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축소, 배제하기로 하는 일이 생겨서 아수나로 등의 청소년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는 교육운동 안에서 청소년운동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낸 사건이었다.

### 청소년운동의 교육운동

아수나로가 해온 교육운동의 역사 위에서, 2010년대에는 청소년운동의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등장했다. 아수나로가 기성 교육운동과 달리 독자적인 교육운동을 모색한 이유는 여럿 있을 텐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성 교육운동이 청소년들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주체적 행동을 조직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히 결점이라기보다는 기성 교육운동이 교사 등 비청소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경향이 청소년운동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부족한 점으로 대두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성 교육운동이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혹은 한 번 만든 연대체를 소속 단체들이 책임지고 꾸러나가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여러 연대체를 만들거나 정파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친 것도 있었다.

청소년운동이 새롭게 만든 운동 중 하나는 ‘대학거부’ 운동이었다. 이는 과거 <입시폐지 운동본부>의 활동을 청소년운동이 당사자로서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입시폐지 운동본부>의 활동과 결합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수능거부선언을 하는 청소년들이 김남미, 박두현 등 소수이지만 계속 등장했다. 그러나 <입시폐지 운동본부>가 2009년 이후로 침체되었고 교육운동 주체들이 운동본부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2010년에는 고려대 김예슬의 대학거부선언이 화제가 되었고, 고3 고다현도 수능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아수나로의 청소년활동가들은 <입시폐지 운동본부>와 상관없이 2011년, 독자적으로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선언과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투명가방끈’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9월 시작된 이 운동은 열아홉 살 및 고3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십수 명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이 되었다. 또한 이십대 이상의 사람들도 대학을 자퇴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는 자신의 선택을 ‘대학거부선언’으로 운동화했다. <투명가방끈>은 희망버스나 거리집회 등에서 캠페인을 하고 입시경쟁교육과 학벌주의, 학력학벌 차별 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며 존재를 알렸

다. 아수나로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시작하고 아수나로가 조직적으로 결합했던 2011년 투명가방끈 운동 이후 <투명가방끈>이라는 별도의 단체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이 동력을 잃어버린 와중에,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운동이 '대학입시거부자'로서 입시경쟁체제에 반대하는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고 실천의 방법을 찾아나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운동의 문제의식을 이른바 청년운동, 이십대나 대학생의 문제로까지 넓혔다는 의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새롭게 제기한 청소년운동으로서의 교육운동으로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이 있다. 아수나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집중할 공동의 새로운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러 논의를 거쳐, 다수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교육 문제를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운동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이다. 이는 학생들의 삶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를 볼 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너무나 긴 학습시간과 부담의 문제라고 보고 학습시간을 줄이라는 것을 교육운동의 의제로 제안한 것이다.

아수나로는 약 1년에 걸쳐서 공교육과 사교육 등을 넘나드는 학습시간 줄이기의 핵심 주장들을 다듬고, 지부별로 토론을 하고, 운동방법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내 시간을 돌려줘! -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이 첫 발을 떼었다. 이 운동은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강제학습 실태조사, 전국 학습시간 및 학습부담 실태조사, 어린이날 맞이 거리 공부 퍼포먼스, 세계교육포럼 대응 한국 교육 실태 고발, 방학이나 수업시수나 강제보충자율학습 등의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운동이 아직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으나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았고 다른 교육운동 단체들에서 하는 학원을 일요일에 쉬도록 하자라는 운동이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자라는 주장, 그리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청소년의 놀고 쉴 권리(여가권) 등과 만나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로 여러 가지 교육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들이 한층 더 악화되면서 운동의 여건은 더 어려워져지고 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교육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여러 현안들이 터지고 청소년 대중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일도 생기고 있다. 아수나로는 교육과정 문제나 역사교과서 사안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도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만 무성한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교과과정과 입시에 갇힌 교육을 벗어나 청소년이 주인인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지부에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을 만들면서 청소년운동의 입장에서 실천과 목소리를 꾸려가고 있다.

##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정치를

‘정치’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역시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치적 권리는 좁게는 청소년들이 선거나 정당, 국가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뜻하며, 넓게는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자신들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정치적 권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소년 중 다수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 반영 보장, 학생자치활동, 학교 민주주의 등의 의제들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권리 문제에 있어서는, 아수나로는 ‘학생자치’에 중점을 두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여건을 개선하려 하는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관점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현실의 학생회에는 한계가 많기에, 학생회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학생들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거나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등 기초적인 정치적 권리 문제로 운동을 전개해왔다. 민주주의나 자치활동이 제대로 가능하려면 먼저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이러한 학교민주주의 문제에 관해 아수나로가 활동했던 것들은 주로 학생 인권 운동의 역사 부분에서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이나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문제에 관해 활동해온 것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아수나로가 해온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활동은 중요한 선거나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선거 시즌이나 촛불 집회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나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고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만한 부분도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수나로가 “청소년인권행동”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2005년의 내신등급제와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학교 규칙이나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정치적 권리의 문제가 전면에 제기된 사건이기도 했다. 또한 아수나로가 만들어진 2000년대 중반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진보정당 청소년위원회나 18세 선거권 운동 등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중요한 운동 의제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등,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운동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과 정치적 권리 문제는 따로 갈 수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초기부터 아수나로가 품고 있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대중적 촛불집회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부터 시작해서, 아수나로가 중요한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했던 활동 등 두드러지는 주요 활동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 2008년 촛불집회

아수나로가 정치적 권리를 주제로 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계기는 바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였다. 이 집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소위 '광우병'(소해면상뇌증 및 변형크로이츠펠트-야곱병)의 문제 등에 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준까지 개방을 결정한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5월 2일 첫 집회는, 주최 단체들의 예상을 넘어 1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기록했으며 그 중에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는 그 전부터 계속 열리고 있었다. 아수나로도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4월에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교육청이 갖고 있던 각종 학교 운영에 관한 지침들을 축소시키는 조치. 0교시나 강제자율학습 금지 등도 이 지침들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5월 집회에 예상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광우병' 우려 소고기 수입 문제가 직접적 계기가 되었지만, 교육 정책 문제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들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촛불집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표면적인 중심 이슈였으나, 그 안에서는 검역주권, 건강권, 반미나 반일, 독도 문제나 민족주의, 민주주의,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소용돌이쳤고 교육 문제나 학생인권, 노동자들의 권리, 각종 소수자들의 권리 이야기까지 오가는 '광장'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단체로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고, 촛불집회를 계기로 인터넷 카페 등 형태로 새로운 모임과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국청소년학생연합>, <촛불소녀의 코리아>, <의식이 깨어있는 청소년 연합> 등의 단체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5월에 시작된 촛불집회는 2개월 이상 이어졌다. 촛불집회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했고 아수나로의 각 지부들도 각 지역의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의 광장 안팎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평등하게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언론들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전교조 등에 의해 선동을 당해서 저렇게 시위에 참여한다', '청소년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공부를 해야 할 때'와 같이 청소년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기사들이 마구 실렸다. 또한 집회 내부에서도 "미친 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자"와 같은, 함께하는 청소년들을 '보호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발언들,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은 귀가 조치하라거나 '부모동의서'를 갖고 집회에 참가하라는 등 주최 측의 차별적인 방침들이 나왔다. 또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집회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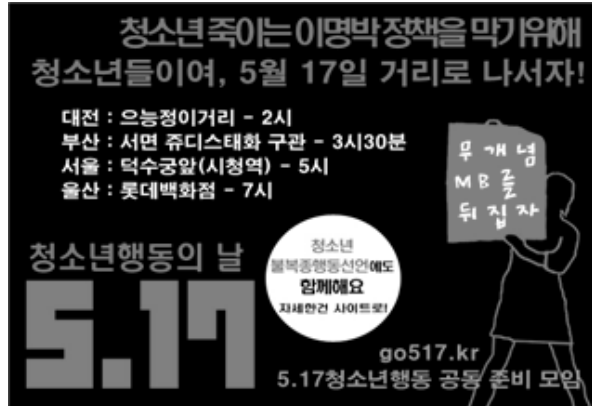
가 참석해서 감시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는 일, 집회신고를 낸 청소년을 경찰에서 학교까지 찾아가서 압박하는 일 등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일어났다.

아수나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주장했다. 2008년 5월 8일에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

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다음 날에는 청소년의 집회 및 정치적 참여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 과정에서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나눔문화에서 만든 “촛불소녀”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촛불집회 내부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들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참고.)

뒤이어 5월 17일에는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들이 대전, 부산, 서울, 울산에서 <5.17청소년행동>이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단체들이 미리 그날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포자가 누구인지 모를, ‘5월 17일에 등교거부/휴교시위를 하자’는 문자메세지가 빠르게 돌자 이에 호응하여 실제로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준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촛불집회의 열기가 매우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이 집회를 통해 아수나로 등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자 했다. 당시 대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거부 시위 제안은 철없거나 선부른 제안으로 치부되곤 했다. 청소년단체들 사이에서도 ‘휴교시위’ 등의 내용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비판하면서 아수나로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실천으로 등교거부, 자체 휴교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학교를 안 가고 행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행동을 준비했다.

5.17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막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집회 참가부터 등교거부와 불매운동 등을 전제로 한 청소년 불복종 선언을 모았다. <5.17청소년행동>의 메인 구호는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였다. 그 당시 촛불집회에서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를 빗대어 “미친소”라는 표현을 널리 쓰고 있었다. 아수나로 내부에서는 이런 표현이 공장식 축산의 희생자인 소들을 악마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잘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점 때문에 “미친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고려하여,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담기 위해서, “미친소 미친교육”을 내걸었다. 서울 대한문 앞 집회에는 약 2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참여했고 집회 이후 시청광장의 대규모 촛불집회로 합류했으며, 같은 날 <10대연합>도 명동에서 집회를 한 뒤



행진을 하여 시청광장으로 합류했다. 대전, 부산, 울산에서도 수십 명 규모로 청소년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겪고 대응해 나가면서 아수나로에서는 좀 더 보호주의나 정치적 권리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주장을 다듬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침해 등 개별적으로 인식하던 정치적 권리 문제를, 청소년 보호주의나 나이주의 등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더 넓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나로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는 조직화되지 않은 청소년들 다수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적 행동의 대표적 사례였으며,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나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행동 등으로 유사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수나로 역시 2008년 이래로 이러한 활동들에 어떻게 함께하고 청소년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

2008년 촛불집회의 와중에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이 기획되었다.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이때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함께 준비해서 서울지역에서 진행한 활동이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는 전국의 아수나로 지부들이 모두 같이 활동을 진행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중앙선관위의 “청소년은 인터넷에 선거 관련 UCC 제작 금지” 발표를 비판하고 인권침해로 진정을 내는 일을 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아수나로가 처음으로 기획적으로 시도했던 직접적 선거 대응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5.17청소년행동>을 공동으로 준비하던 <5.17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은 집회 이후 <청소년직접행동>이라는 이름의 연대체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교육공동체 나다>와 <아수나로>, 그리고 <문화연대>의 활동가나 다른 여러 개인 청소년활동가들이 참여했다. 2008년의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이 <청소년직접행동> 차원에서 제안되고 진행되었던 활동으로, 촛불집회 때 만들어진 <전국청소년학생연합>도 함께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라서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재보궐로 지역별로 돌아가며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다. 그런데 청소년 중 다수는 학생이고, 현실적으로 교육감 선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사람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이다. 그럼에도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조차 없는 현실, 그 결과 선거운동 와중에도 청소년들은 ‘유령’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다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응을 해보자는 논의가 싹텄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7월 17일 출마선언부터 7월 30일 선거 당일까지 청소년의 관점에서 공약을 내세우고 포스터 등을 만들어 붙이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유세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주로 했고 변화가에서도 진행했다. 주요 구호로는 “이만 교육 받으면 한 달 만에 2MB 된다.” “못 뽑으니까 나와봤다.”,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골백번!” 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반영되었고 청소년들의 교육주체로서의 당사자성을 강조했다. 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집



단적 명칭을 후보로 내세운 것은, 특정 개인을 후보로 만들게 되면 운동의 성과가 특정 개인에게로 모이게 되고 그것이 운동적으로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 청소년의 참정권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운동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포스터에 넣기에는 탄압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당시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는 주경복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운동은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택을 하지 않고,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를 내세우고 ‘후보단일화도 거부’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교육정책에 청소년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다. 비록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이 소규모 활동이었고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면밀한 준비

속에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청소년운동은 선거라는 이슈 속에서 이 운동을 통해 그나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2008년 촛불집회 중 성장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촛불집회의 새로운 실험에 열려 있는 분위기 위에서 탄생한 활동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선거 때면 ‘선거권 제한 연령 완화’를 요구하던 운동 방식을 넘어 ‘가상 후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운동의 주장을 다양한 층위와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 이 운동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으면 마치 이미 평등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청소년들의 존재를 2008년 선거에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말을 실천으로 옮긴 활동이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다시 2010년 2차로 전개되었다. 2010년 1월, 수원에서 열린 아수나로 제 6회 총회에서는 그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선거 운동이 금지된 청소년들이 몇몇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대놓고 하는 형태로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벌금 등의 위험성에 비해서 실제로 얻는 이득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회의적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참정권을 부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전체 활동의 기획은 2008년에 이미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을 진행해본 적이 있던 서울지부에서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에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를 출마시키는 형식이었다. 4월 말에 첫 운동본부 회의가 꾸러지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고 5월 초에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정책논의 워크숍이 열렸으며 5월 15일에 서울, 수원, 창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 앞 선전전, 벽보 붙이기는 기본이었고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여러 번 만들었고 언론에 칼럼도 기고하였다.





캐발랄에서 레알이 되었다.

2008년에 비해 2010년의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이 달라진 점은 아수나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전국적인 활동이었다는 점이다. 2008년 때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는 활동이었다 보니 서울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졌고 촛불집회에 대응한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진행했다. 반면 2010년에는 전국선거에 대응하여 아수나로가 주체가 되어 자체 기획에 따라 전국 지부들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아수나로 지부들이 없는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포스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인 참여가 가능케 하려고 했다. 이런 변화를 두고 2008년과 2010년의 활동 모두에 참여하였던 아수나로 활동회원 공현은 촛불집회라는 외부 상황도, 다른 단체와의 특별한 연대도 없이 아수나로가 자체 기획해서 전국적으로 진행해야 했다는

점에서 '아수나로가 자립 가능한지를 시험받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당시 기성 교육운동은 전국적으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추대했고, 정당 개입이 금지된 선거였기에 교육운동단체들이 정당-선거운동본부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 대응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다. 아수나로는 일부 지부들이 지역별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을 준비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실 탓이기도 했지만, 당장 선거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도 청소년들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단지 청소년의 참정권만을 부각한 것이 아니었다. 정책 자료집을 만들고 후보의 공약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아수나로가 주장하는 교육정책과 청소년인권 의제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만 퍼포먼스성이 강한 활동 방식상, 비록 2008년보다는 더 넓은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활동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2012년, 선거의 해

2012년은 4월에는 총선, 12월에는 대선이 연달아 있는 선거의 해였다. 아수나로는 이 해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슈를 부각시키기 좋은 해라고 판단하고 2012년 1월 겨울에 있었던 제10회 총회에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2012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때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을 다시 해보자, 청소년 정당 창당 퍼포먼스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지만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은 이제 식상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와 달리 200개가 넘는 총선의 지역구에서 기호 0번을 출마시키기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기각되었다. 창당 퍼포먼스는 정당 등록 요건을 다 채워서 신고를 내고 반려됨으로써 정당 활동이 제약당하는 문제를 이슈화하고자 한 창당 퍼포먼스는, 전국에서 당비를 납부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5000명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반려되었다. 그래서 결국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1인시위와 헌법소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번에도 서울지부에서 기획을 맡았는데 2012년을 2~4월(총선), 5~10월(총선과 대선 사이), 11~12월(대선)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총선 시즌의 주된 활동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정당 질의와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1인시위, 4월 11일 투표 당일에는 하는 ‘투표소 습격’ 등이었다. 이 활동들은 아수나로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앰네스티 대학생모임> 등이 함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원탁회의>(청정원)이라는 연대체를 꾸려서 준비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 주민발의와 주민투표권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각 정당들에 이 내용들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바탕으로 각 정당별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를 총선의 이슈 중 하나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1인시위는 선거일 전에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매일 홍대 근처에서 매일 작은 행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4월 11일 총선 당일의 투표소 습격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켓 디자인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기 편한 투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한 뒤 인증샷을 찍어 카페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국에서 60군데가 넘는 곳에서 1인시위가 있었고 꽤 성공적인 이슈화가 되었다. 1인시위의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나 경찰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고 이들로부터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발생하여 총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성명을 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사후대처에 나서기도 하였다.

1인시위와 헌법소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아수나로의 논리를 더 정리하고 다듬기 위한 작업도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성공적인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1인시위와 투표소 습격은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1인시위 일정들이 결정된 것이 3월 29일 연대체 회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소 습격 최종 공지가 올라간 것은 투표 하루 전이었고 디자인 등 준비가 늦어졌다. 그 결과 취재요청을 보낼 때까지 주최 단위나 1인시위 장소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혼란이 생기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총선 이후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는 지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권리에 대한 활동들을 시도했다. <청정원>의 주도로 서울에서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대구에서는 릴레이 1인시위, 창원에서는 캠페인의 방식으로 계속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활동들이 전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부에서는 ‘인천 중고등학교 정치적 권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내용의 학칙들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학교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2012년에 일어난 사건 중, <통합진보당> 청소년당원 제명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이 당내 청소년 당원들을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명해버린 사건이었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은 법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이를 딱히 제재하는 내용의 법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등의 정당들은 청소년의 가입을 보장하고 있었다. 2012년 당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 세력, <국

민참여당) 등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통합진보당>에서도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논란이 생기고 당을 혁신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로 <민주노동당> 때의 주류 세력들이 많이 가입시켰던 청소년 당원들을 법적 근거가 없고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명시킨 것이었다. 그나마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보장하고 있던 진보정당의 방침을 후퇴시키는 것이었기에 아수나로도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함께하는 등 대응을 함께하였지만 이 사건 자체가 당내 정파 문제 등 복잡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후 청소년 당원들을 제명하는 것을 추진했던 정파들이 <통합진보당>을 나가서 <정의당>을 만들었으나 <통합진보당>은 그 뒤에도 청소년 당원의 복당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에서는 2016년까지도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내나라 운동본부

9월부터 대선을 즈음해서 다시 정치적 권리에 대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아수나로는 다른 단체들에 다시 제안을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내나라 운동본부>라는 연대체를 꾸려서 대선과 그 이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활동들을 함께해나갔다. <내나라 운동본부>는 2012년 하반기에 대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반년 정도 활동을 했다.

<내나라 운동본부>는 9월 26일 아수나로의 수도권 지부들(남양주, 서울, 수원, 인천)이 모여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자리에서 만들어진 '내나라팀'이 모태였다. 내나라팀은 기획팀과 조직팀으로 나누어져서 활동의 간단한 기획과 초반 준비, 그리고 <인권교육센터 들>, <홍사단>,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희망의 우리학교>, <청년유니온>,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과 연락을 하여 연대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내나라 운동본부>는 아수나로가 만든 팀이나 연대체들 중에 드물게도 대표가 존재했는데, 바로 '거북이 인형'이었다. 이는 <내나라 운동본부>가 내건 5가지 요구를 5각형으로 만들고 이를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디자인하면서 거북이를 마스코트로 내세운 것이었다. <내나라 운동본부>는 여러 팀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시키는 구조로 운영됐다.

<내나라 운동본부>는 대선 시기에 맞춘 대응으로 서명운동, 전단지 형식의 정치신문 제작과 수다회, 투표소 앞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서명운동은 ▲ 선거권과 피선거권 ▲ 모이고 외칠 권리(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 ▲ 판단할 권리 ▲ 학교 민주주의 ▲ 우리동네 지방자치라는 5대 요구안을 내걸고 11월부터 이루어졌다. 투표소 습격은 4월 총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수도권 중심의 연대체였던 <내나라 운동본부>에 더해 아수나로의 지역모임들의 참여로 진행되었고 피켓 또한 <내나라 운동본부>와 아수나로가 공동 제작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 한동안 <내나라 운동본부>는 활동이 침체된다. 그러다 3월쯤 다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권을 실제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문제는 입법을 우선적 목표로 활동하다보니, 선거권 제한 연령에 관해 단체와 소통하던 국회의원 몇 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의원실의 담당 보좌관이 바뀌면 활동이 휘청거리게 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2013년이 국회 구성 등을 볼 때 법 개정을 목표로 운동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기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자는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선거가 몰려있는 때가 법 개정을 하기 좋을 때이고 좌절되더라도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다른 활동가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2013년 8월 말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내나라 운동본부>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서울지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2013년 9월 전체논의자랑에서 아수나로의 다른 지부들(수도권 지부들이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었음.)도 연대체에서 나오기로 하였다.

## 청소년들의 아래에서부터의 정치적 권리 운동을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이슈는 계속해서 등장해왔다. 이는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과 참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집회나, 2013년 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자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대학가를 시작으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을 달고 철도민영화 시도 등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대자보 운동은 대학가를 벗어나서 초중고등학교로도 번져나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대자보는 무단으로 훼손되거나 철거당했고, 보호자를 소환하여 위협과 압박을 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도 있었다. 학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아수나로는 긴급하게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사례들을 수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요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출했다. 더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집단적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운동은 과거 18세 선거권 운동부터 현재까지도, 다수가 함께하는 대중적 운동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는 소수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입법 요청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치적 권리 운동이 선거권 제한 연령에 대한 이야기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제대로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아수나로는 <내나라 운동본부>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14회 총회(2014년 겨울) 때, 선거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권리 활동이 필요한 일이지 하지만 청소년 주체 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위성만 가지고 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아래에서부터 조직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과 관심을 ‘정치적인 형태’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 권리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효과적인 정치적 권리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란 사회의 여러 가지 결정을 만들고 정책을 바꾸는 일이다. 정치적 권리 운동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권리 운동은 많은 시기에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열쇠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생긴다면 학생인권이나 교육정책도 많은 것이 개선될 거라고 믿는다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청소년

들이 주민발의나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부터 연자는 이야기가 나온단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노동자들이나 성소수자들, 노인들 등의 사례를 보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당사자들이 조직화되고 스스로 사회적·정치적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권 향상 역시 사람들의 힘과 행동이 뿌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제도적인 참정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 역시 그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욕구와 참여의 힘을 어떻게 조직화해내고 권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운동의 과제이다.

##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 보호주의가 청소년인권의 문제로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청소년운동이 처음부터 ‘보호주의’라는 말을 쓴 것도 아니다. 여러 사회 운동들이 그렇듯, 청소년운동도 기존의 개념과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운동을 통해 새로운 언어로 만들곤 했다. ‘청소년 보호주의’가 그런 언어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아수나로가 주력해온 학생인권운동은 말 그대로 학교 안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문제제기하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인권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었다. 청소년들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억압, 폭력을 마주하게 된다. 참정권 문제만 보아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가정 내의 폭력 문제는 또 어떠한가? 노동 현장에서는? 이렇듯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겪는 억압과 권력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만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 어디서나 보이는 강력하고도 일반적인 이유가 바로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가? 청소년들은 어떤 보호를 원하는가? 해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은 청소년운동에서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주의’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 ‘보호주의’라 이름붙이다

“.....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적 요소들이 없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교육, 성, 정치, 노동, 가정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청소년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에게는 배타의 딱지를 붙여 몇 배의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온갖 반인권적 요소들에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지향점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제도를 포함한 국가와 가정 등의 사회구조가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 .....”

아수나로 기본원칙 중 일부이다. 우리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접할 때가 많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미성숙’ 딱지를 붙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 반항으로 인해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기 쉽고, 아직 자라나고 있기에 미래를 향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른들은 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우리 사회와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들은 자주 사용되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먹혀든다.

청소년을 ‘미성숙’하게 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하는’ 제도와 문화를 낳는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가족과 부모와 학교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책임이 상당 부분 면제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으며,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좀 더 ‘교화’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의 보호 하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맡아서 지원하고 양육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의 성격이 있다. ‘청소년 보호’란, 단지 직접적 위험을 차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비청소년-국가가 원하는 바람직한 존재로 만들려는 행위이고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보호’ 속에는 심의 제도와 같은 문화적 통제나 자기결정권의 제한, 나아가서는 사생활 침해, 종교·사상 강요 등까지도 포함된다. 더군다나 ‘보호’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일어난다. 예컨대,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 속에 부모는 청소년을 통제하고 때로는 폭력을 가할 권리까지 인정받는 것이다. 학교가 청소년의 연애/섹스에 대해 가하는 처벌, 흡연을 한 청소년에게 가하는 처벌 등도 그런 예이다. 이런 논리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집회나 정당 등에 참가하지 못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요컨대, 근대 이후 체계화된 ‘청소년 보호’는 일면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청소년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요소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수나로의 운동은 ‘청소년 보호’의 모순적/이중적인 태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 문제의식의 확대 : 2008 촛불 집회에서의 경험

2008년은 사회적으로도 큰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자, 아수나로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2008년에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며 이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열렸다. 처음에는 ‘미국산 소고기’와 ‘대운하 건설’ 등 주요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위를 채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입시경쟁교육’, ‘학교자율화’ 등 청소년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움직임도 커졌다. 아수나로도 <청소년직접행동>이라는 연대체를 조직하여 청소년들이 모이는 집회를 여러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했고 이런 흐름을 타고 청소년 회원들이 급증하기도 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촛불을 든 여러 사람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다양한 아이콘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촛불소녀”였다. 촛불소녀는 ‘소녀’라는 이미지를 내세움으로써 기존의 여성/청소년들의 약자로서의 이미지 (‘촛불’이라는 상징물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된)를 재현하고 있다고 읽힐 소지가 있었다. 애초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은 촛불집회



현장 곳곳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피켓과 구호가 있었다. 이는 아이들/청소년은 ‘우리들’에 함께하지 않는 존재로, 어른들(=‘우리들’)이 지켜줘야 할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에만 가능한 구호였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청소년들을 상대로 ‘기특하고 대견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거나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어느 주최 단체는 밤 10시 이후에는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자진귀가 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징계와 불이익을 주는 일도 있었다. 대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지지’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등교거부’/‘휴교시위’에 대해서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 모든 사건들이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로 주체도 방식도 조금씩 다르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대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같은 문제였다.

〈청소년직접행동〉 등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동등하고 평등한 주체가 아닌 ‘다른 세상(또는 미래)의 존재’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피켓과 구호를 패러디하여 “어른들이 무슨 죄냐, 청소년이 지켜주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거리에서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주체”라는 문구를 락카로 새겼으며, 청소년들을 평등한 존재로 대하라는 발언을 하는 등 촛불집회 안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맘때 아수나로가 참여하고 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보호주의팀’이 꾸려졌다. 보호주의팀은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한 흩어져있던 이야기들을 엮어 담론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청소년 보호주의’가 무엇인지,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약자-소수자의 위치로 머무르게 하는지, 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은 이후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이 함께 작업하여 출판한 청소년인권 도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2009, 메이데이)에도 반영되었다. 이렇듯 2008년 촛불집회에서의 경험은 ‘청소년 보호주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단지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기분 나쁘다’라는 감정과 생각들로만 공유되어왔던 문제의식을 청소년운동의 눈과 입으로 꼼꼼히 들여다본 것이다. 이런 비판 작업을 통해 아수나로는 “다 너희를 위한 것”, “아직 어리니까” 같은 좋은 말로 포장된 ‘청소년 보호주의’의 이면을 파헤칠 수 있었다.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청소년보호법 등에 반대하다

‘청소년 보호’를 대표하는 제도로 ‘청소년보호법’을 꼽을 수 있다. 아수나로의 청소년운동과 ‘청소년보호법’의 악연은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간다. 어쩌면 이 악연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1997년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명 ‘19금’, ‘청불’ 등의 딱지를 붙이는 것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아수나로 이전부터도 청소년운동 단체나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연대>는 2000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문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을 반대하며, 청소년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되고 매체에 대한 판단도 수용 주체인 청소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화가 등 창작자들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심의와 검열 등을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의 개정 운동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를 명시했던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보호법의 내용과 방식, 기준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아수나로가 만들어졌을 무렵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었다. 이는 00:00시~06:00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22시 이후 보호자 동행 없이 청소년 째질방 이용 금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이었다. 결국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째질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2005년 11월에 통과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규제(이하 ‘온라인게임 섯다운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진주 지역 단체인 <행동하는 청소년>, 그리고 <한국청소년모임> 등의 반대 운동과 게임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주춤했다. 아수나로에서 2005년, 청소년인권연구포럼이던 시절 발표했던 최초의 성명도 온라인게임 섯다운제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과 2008년, 그리고 2010년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온라인게임 섯다운제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결국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 야간 온라인게임 접속이 금지되었다.

아수나로는 2005년 성명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게임 섯다운제가 현실화되어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문화연대> 등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2010년 이후에 주로 반대 운동을 함께했다. 온라인게임 섯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바 있다. 하지만 그 반대 의견들은 게임/문화산업계 측의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이는 정부에서 온라인게임 섯다운제를 검토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었다.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찬반 토론은 어른들끼리, 한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게임/문화산업의 이익’을 외치는 구도가 되어갔다. 정작 이 제도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제대로 의견을 피력할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수나로는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반대 운동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청소년들의 삶에서 온라인게임 섯다운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하려 했다.

온라인게임 섯다운제를 반대하는 논거 중 게임/문화산업의 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아수나로는 이에 덧붙여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아수나로의 논리와 입장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아수나로에서는 온라인게임 섯다운제를 풍자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입시/공부 섯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풍자이긴 했지만,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을 위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게임 섯다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들이 정말로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안 하고 게임하고 노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따져 묻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2011년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반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기획하며, 광주지역모임과 수원지역모임에서는 “게임이 아니라 입시교육을 섰다운하라!”, “공부할 땐 마음대로지만 게임할 땐 아니란다? 섰다운제 반대한다!” 등의 문구를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설령 게임 과몰입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청소년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만 16세 미만’이라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시간대에 게임 접속을 차단시키는 것은 결국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청소년은 ‘보호’라는 명분만 있으면, 어떠한 규제를 당해도 당연시되는 현실이었다. 온라인게임 섰다운제는 이런 청소년 보호주의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규제 정책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불합리한 규제조차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 없이 어른들의 편견에 기대어 시행되어 버리고 마는 현실을 고발하는 일이었다.

온라인게임 섰다운제 반대 운동은, ‘청소년 보호주의’가 사실 청소년의 행복과 여가, 문화를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하는 과정이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놀 거리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충분한 여가시간, 다양한 문화공간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게임은 어쨌든 문제’라는 식으로 오락거리/즐길 거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아수나로는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놀 권리’(“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조항을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인 게임에 대해 가지는 편견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1인시위, 언론 기고, 온라인게임 섰다운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고, 만16세미만의 청소년 당사자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에 온라인게임 섰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같은 날,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까지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많은 아수나로 회원들과 청소년활동가들이 분노했다. 이에 아수나로는 4월 25일 “섰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나아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를 내세워 언제든 규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편견의 결과물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편견이 일부 부처나 관료들뿐만이 아닌 사법부를 비롯하여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음을 새삼스레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4월 30일에는 청소년 참정권 제도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나이 먹음에 따라 주어지는 생일 선물도, 성숙에 따라 주어지는 자격증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반쪽짜리 그들만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보편적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당신들에게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비롯한 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가능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이러한 편견과 비청소년 중심의 각종 제도와 문화로 이루어진 이 기성 사회의 구조는 여전히 힘이 세다. 이에 맞서던 많은 청소년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회는 청소년 스마트폰 구입 시 보호자에 의한 감시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각종 문화/미디어/작품에 편협한 기준으로 19금 딱지 붙이기 등, 꾸준히 ‘청소년 보호와 선도’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에 가위질을 하고 있다.

## 뿌리 깊고 당연하지 않은 문제들

이후에도 아수나로에서는 내외부적으로 ‘보호주의’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반대 행동에 본격적으로 결합하던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11년에는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깨기’ 운동이 처음 제안되기도 했다. 나이주의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적은 사람들을 더 ‘아랫사람’ 취급하고, 여러 사회적 자원도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인식과 구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청소년 보호주의 역시 나이주의의 일부이다.(더 자세한 것은 백과사전 챕터 참조) 아수나로는 운동 사회 안에서도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어른들’의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계속 비판하곤 했다. 예컨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이 나서자!” 같은 류의 포어울 말이다.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깨기 운동 역시,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 보호주의 문화와 관행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아수나로는 제10회 총회에서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깨기 운동 제안 안건을 논의했고, 모든 지역모임이 공감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지역모임 차원에서 나이주의에 대한 공부모임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다.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했고 지부 중심으로 활동을 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슈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깨기 운동 제안이 아수나로는 물론 청소년운동 내부에서 환영받았던 것은 아수나로 및 청소년운동이 가졌던 청소년 보호주의나 나이주의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공식적인 운동의 의제이자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소년운동은 학생인권이나 교육 문제 말고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 깊어지고 넓어진 운동의 고유한 주제들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운동의 열악한 조건과 모이지 못한 자원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오롯이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청소년 보호주의 반대 운동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획과 담론을 쌓는 일이 필요하다. 아수나로 10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주의 반대 운동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겨우 첫 걸음마를 댄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청소년운동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도, 청소년보호법의 문제는 자신들의 인권 문제로 바로 떠오르거나 와 닿지 않는 주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문화적,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두었을 때 온라인게임 섯다운제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처럼 청소년들의 삶과 권리를 더욱 더 침해해 들어오게 된다. 사실 수많은 청소년인권 침해가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토록 청소년들의 삶 구석구석에 당연한 듯 스며들어 있는 뿌리 깊은 청소년 억압의 논리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허공을 맴돌기만 했던 우리의 문제의식들을 이제는 우리 운동의 현장으로, 청소년의 삶의 현장으로 보다 가깝게 데려올 필요가 있다. 전사회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보호’의 얼굴에 숨겨진 차별과 권력구조에 맞서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주의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더 많은 불만과 경험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당연하게 보

이는 '청소년 보호'의 논리와 현실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청소년 보호주의 논리를 깨는 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작업과 운동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주의 반대의 목소리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옹호하는 활동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수나로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이 운동을 기획하고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 기념자료집

어서프,  
르니,

하지만 망하지 않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사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총회는 ‘악명’이 높다. 2박 3일, 회의 시간만 따져도 약 20시간씩 진행되는 총회는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총회와는 다른 아수나로만의 특징이다. 우리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하는 특별자료집에 ‘총회의 역사’를 수록하기로 했다. 개략적인 활동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빼먹기 쉬운 아수나로 내부의 변화, 운영에 관련해서 논의해온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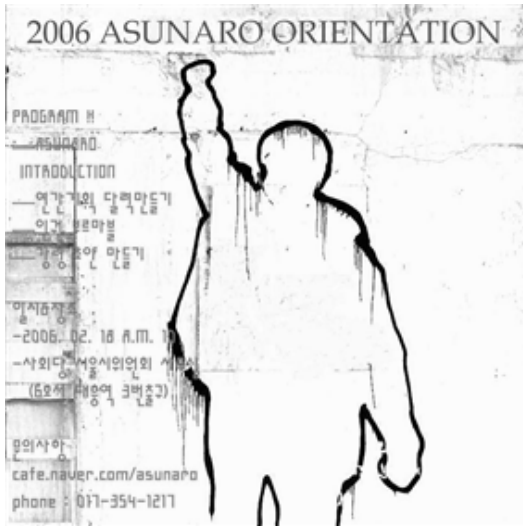
아수나로의 총회는 괜히 긴 것이 아니며, 아수나로의 활동과 운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국의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모여서 얼굴을 보고 유대감을 쌓고 활동에 대해 토론을 하고 아수나로라는 단체의 운영 방식과 활동 방향을 결정해온 것이 아수나로의 총회였다. 그렇다면 매년 총회에서 주요하게 결정된 사항이 무엇이었고, 토론된 것들은 무엇이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돌이켜 엮어보면, 아수나로의 주된 고민과 논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라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총회사는 아수나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료에 남아 있는 총회 당시 안건들, 토론거리들, 기록들, 결정 사항들 등에 더해, 무엇보다도 총회에 참가했던 활동회원들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총회사는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의 나열은 아니다. 안건들, 결정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했는지 서술자의 주관에 따라 취사선택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그 당시의 논쟁이나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수나로의 발전과 변화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관적인 해석들이 덧붙여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더 의미 있고 생동감 있는 역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총회사의 집필은 먼저 2012년에 공현이 1회부터 10회 총회까지를 서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밖에 타시아, 난다, 영서가 각각 참가했던 총회에 대해 서술하였다.

## 제1회 총회 | 2006년 2월 18일, 서울, 사회당 서울시위원회 사무실

·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같이 하는 활동 단체 &lt;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gt;의 출범



제1회 총회(O.T) 공지에 쓰인 웹자보.

현재 아수나로의 로고와도 비교해볼 만하다.

자들의 친목 도모 및 인권교육 등이 준비돼 있었다.

O.T에는 피터, 무직인꿈틀이, 코이, 공현의 4명이 참석했다. 조출한 자리였다. 특별히 격식을 차려서 회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같이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그러다가 회의를 했다. O.T에서 피터는 “아수나로를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규합 단체로 만들자”라는 짧은 문건을 준비해와서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동의를 표하면서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짧게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의 그 이전의 역사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본래 10대 때 청소년운동을 하다가 20대가 된 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였고, ‘청소년인권 연구’와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청소년인권운동 지원’을 목표로 했다. 즉 아수나로가 나서서 직접 청소년들을 조직화하고 전면에서 활동을 하는 모델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모델에 따라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던 <한국청소년모임> 등을 지원했고, 때로는 <학생인권공동행동> 같은 단체를 직접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모임>은 구심점 역할을 하던 활동가가 활동을 그만두면서 사라졌고, <학생인권공동행동>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실패했다.

제1회 총회는 본래 총회가 아니었으나, 사후에 이 모임을 제1회 총회로 하기로 정했기에 이 모임을 제1회 총회로 기록하도록 한다. 제1회 총회는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리를 가리키며,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 때에 기획, 준비된 자리를 가리킨다. 그 모임은 2006 ASUNARO O.T(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라는 명칭으로 2006년 2월 18일에 열렸다. 이날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2006년을 비롯하여 이후의 활동의 방향과 계획을 새롭게 정립할 예정이었다. 당시 O.T 프로그램으로는 연간계획 달력 만들기, 강령 초안 만들기, 참가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O.T에서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비청소년(아수나로)이 지원을 하는 형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의 당사자성과 주체성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나 운동적으로나 당시의 비청소년과 청소년을 분리시켜서 비청소년들은 별도로 지원만 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피터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굉장히 무책임한 부담 전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청소년만이 청소년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극복해야 하는 생각이라는 데 참가자들이 합의했고, 아수나로가 직접 조직하고 활동하는 단체, 비청소년과 청소년들이 같이 활동하는 단체로 성격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운동의 건설에 나서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청소년운동을 해온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의 초기 멤버들이 청소년운동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면에서 활동하겠다는 결정이기도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명칭도 청소년들의 조직화와 적극적인 직접 행동, 저항을 통해서 청소년인권을 쟁취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아 정해졌다.

전국조직의 필요성 역시 쉽게 공감에 이르렀다. 서울과 비(非) 서울 사이의 청소년인권 상황의 격차 문제가 있어서 수도권에서만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고, 소수 전문가들의 NGO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조직화되고 활동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각 지역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우선 서울지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경남 진주에 있던 <행동하는 청소년>을 아수나로 진주지부로 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타진해보기로 했다. (무직인꿈틀이가 <행동하는 청소년>을 만든 멤버 중 하나였기 때문에 나온 제안이었다.)

이후에는 강령 초안을 논의해야 했는데, 코이가 준비해온 초안은 강령이 아니고 회칙에 더 가까운 내용이었고, 정당의 당규 등을 복사한 것이 많았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정확히 어떤 조직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운영 회칙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에 따라 강령과 회칙은 1년 동안 활동을 해본 뒤에 다시 만들어서 정하기로 했다.

연간 계획 달력 만들기를 통해서 2005년에 이어서 2006년 5월에 다시 한 번 두발자유 투쟁을 만든다는 계획,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연대 활동의 전개, 학교별 ‘학생인권부’ 설치 요구 운동 계획, 여름 방학 때 한 번 더 캠프나 MT를 진행하자는 계획(이 계획은 결국 실현하진 못했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청소년인권단체로 아수나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부들을 늘리고 조직해간다는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다.

이 O.T가 끝난 후에 참가자들은 다음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청소년인권운동 워크샵에 다 같이 참여했다. 이후, 제2회 또는 제3회 총회를 거치면서 이 O.T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의 제1회 총회로 인정받게 된다. 이 총회는 어쩌면 아수나로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게 된, 0회 총회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제2회 총회 | 2007년 1월 27~28일, 서울

- 기본원칙과 회칙, 반인권적 행위 내규 등의 확정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안건 부결

제2회 총회는 다시 한 번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아수나로의 지부는 광주, 서울, 울산, 진주 등 5개 지부가 있었으나 총회는 다시 한 번 서울에서 열릴 수밖에 없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지부들이 장소를 섭외하고 총회를 준비하는 등의 역량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서울지부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교통비 부담 등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지역 선정은 서울과 광주, 2곳이 후보로 올랐으나, 안 그래도 총회 참가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서울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제2회 총회는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서울지역에서 갖 활동을 시작한 신입 회원 분들의 예상 밖의 참여로 부분 참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20명이 넘게 참여한 총회가 되었다. 때문에 총회 장소로 대여한 교육문화공간 향이 너무 좁아서 생활과 회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총회 장소 주변에 분식집도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김밥을 사러 왕복 30분 거리를 걸어서 오가던 기억이 난다. 제2회 총회는 광주, 서울, 수원,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참가하긴 했지만, 신입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논의다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친목모임으로서의 성격이 다소 강했다.

이 총회에서 가장 굵직하고 중요했던 안건은 단연 ‘기본원칙’과 ‘회칙’,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의 확정이었다. 당시 ‘기본원칙’과 ‘회칙’의 초안은 공현이,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 초안은 무직인꿈들이 작성해왔다. 기본원칙은 아수나로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고려했던 여러 청소년운동의 정신과 원칙들을 밝히는 내용이었고, 회칙은 아수나로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필요하다고 여긴 것들과 전체온라인 회의 등을 하면서 결정되었던 결정 사항들 및 원칙들을 재정리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덧붙여서 만들어졌다.

기본원칙과 회칙은 총회 현장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회칙의 경우 활동회원 제도, 지부 설립의 범위 등 나름 쟁점이 될 수도 있었을 주요한 사안들이 있었고 기본원칙의 경우는 더욱더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큰 수정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참가했던 신입회원들 다수가 아수나로 활동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당시 회칙은 활동회원의 개념, 지부 중심의 운영, 전체온라인회의와 총회의 규정들, 아수나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모임/부서들(운영모임, 홍보모임, 연구모임)의 구성과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회의선 초안에 있던 단체 해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부 등의 해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고, 기본원칙

에서는 사회구조로의 환원을 경계한다는 구절이 표현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과 문장을 다듬는 정도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는 당시 서울지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서 서울지부가 자체 처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 이루어졌다. 무직인꿈틀이는 다른 여러 단체들의 반성폭력 내규 등을 참고하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규를 작성해왔다. 그러나 개념 등에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책위 구성이나 사건 처리, 상시적인 단체 내부 교육 등에 대한 부분이 개략적이고 더 논의가 필요했다. 총회에서는 일단 필요성에 동의하고 반대할 만한 부분은 없으므로 시급히 제정하고, 이후에 다시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중요도를 떠나서 제2회 총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안건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총회 몇 개월 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게시판에서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슈였다. 국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 우편요금 할인, 청소년들에게 봉사시간 발급 가능, 정부 프로젝트 신청 가능, 공신력과 단체 인지도 상승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활동에 편리한 것이 있으니 등록하자는 쪽과, 국가에 회원들의 정보와 회계 등 단체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혜택보다 관련해서 서류 정리 등 번거로워지는 것이 더 크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논쟁을 벌여왔었다.

이 안건은 결국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13으로 부결되었는데, 총회 현장에서 반대 의견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대표” 문제였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만20세 이상의 성인이 대표로 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 회원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다. 찬성하는 측에서 서류상의 형식적 대표일 뿐이니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표를 뒤편에 한다는 것, 특히 그 대표가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간접적으로 아수나로는 대표 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다.

제2회 총회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1년 동안 활동해오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아수나로라는 단체의 틀을 명문화하고 최초의 원칙을 세운 총회였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안건은 이후 아수나로의 조직 문화의 향방을 결정짓는 안건이기도 했다. 다만 제2회 총회는 장소의 열악함에 더해 참가자들 중 신입회원이 많아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했고, 대략적인 수준에서 공감과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밤새 같이 이야기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상영하는 등, 전국 여러 지부들의 회원들이 친해지고 동질감을 형성하는 계기의 역할이 강했다.

## 제3회 총회 | 2008년 2월 16~17일, 광주

- 재정 운영의 원칙 정비
- 여성주의, 단체 내의 폭력, 차별,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토론

제3회 총회는 광주에서 열렸다. 2007년까지 2년에 걸친 아수나로 활동 끝에, 전국적으로 3~4개 정도의 지부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여러 지부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광주지부는 과거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활동했던 박고형준이 처음 결성을 시도해서 만들어진 지부였고 광주지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제3회 총회 장소는 광주로 결정되었다. 제3회 총회 이전에 2007년 여름에 광주에서 전국 회원들이 모여서 노는 친목 모임을 열기도 했었기 때문에 장소 협의 등은 충분히 가능해보였다. 하지만 제3회, 광주에서의 총회는 지리적 여건과 개인적 사정 때문에 경상남도 지역의 활동회원들이 거의 참가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

제3회 총회는 지부들의 활동 공유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결국 첫날에 새벽 1~2시까지 회의가 길어졌던 최초의 총회이기도 했다. 이때의 경험 때문에 제4회 총회부터는 총회를 1박2일이 아닌 2박3일로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때인 제3회 총회 때까지만 해도 '총회 어택'(총회에 참가한 활동회원들이 광주 지역 학교에 가서 학생인권 스티커를 붙이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일종의 합동 캠페인), '영화 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회의 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겪고서 제4회 총회 때부터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됐다.

제3회 총회에서 단연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재정 관련 안건들이었다. ▲ 용돈(아수나로에서는 단체 공금을 부른 말) 확보 방안, ▲ 재정 후원을 받는 원칙, ▲ 용돈 관련 회칙 수정(전체용돈 담당 등), ▲ 일상적 회비 걷기 금지, ▲ 아이템 생산 절차처럼 재정 운영에 대한 안건들이 중심이었다. 이는 아수나로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재정 운영의 원칙과 절차, 지부간에 협의하고 결정하는 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제3회 총회에서는 CMS 소액 정기 후원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공금을 관리하는 전체용돈담당을 명문화했다. 또한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부가 독단적으로 뺏지, 전단지 같은 아이템 생산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정을 지부들이 좀 더 고르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오갔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 총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지부들이 활동회원들에게 '회비'를 걷는 것이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고 내부에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 회비를 걷는 것을 금지했다. 이 안건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돈이 필요할 때 모금이라거나 모임 때 자기 식비를 일부 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당하다는 지적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를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긴 토론이 이루어졌다. 결국 "뚜렷한 목적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권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가장 깊은 밤까지 토론이 이어진 안건은 재정 후원 원칙에 관한 것, 즉,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문제였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이나 프로젝트 사업 등은 일체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과, 후원의 방법이나 방식에 따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제한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사실상 기업들의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되는 공익재단들의 후원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단체의 전체 재정 비율 대비 그런 후원금이 얼마나 하는 재정 의존도와 건전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날 논의는 단체가 정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했지만, 그 정도나 방식에 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어느 정도 토론이 된 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분명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재정에 관련된 안건들 다음으로는, 여성주의와 단체 내에서의 차별, 폭력,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문제가 길게 다루어졌다. 이 주제는 “수다”라는 형태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했다. 그 당시에 게시판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부 댓글과 게시물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밖에도 지부들과 활동회원들 사이에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 감수성의 차이, 성폭력, 성차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부들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세미나나 공부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무렵에 추진하고 있었던 ‘아수나로 BOOK’ 안에도 여성주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활동회원들 사이에 나이에 따른 위계, 반말, 폭력 같은 문제들도 중요한 주제였다. 이 자리에서 활동회원들 사이에 나이에 따라 반말/존댓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아수나로 전체 차원에서 원칙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언어폭력, 욕설 등에 대해서도 아수나로 안에서 제재를 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제3회 총회에서는 기본원칙에 교육정책, 가족 안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 분명하게 들어가도록 기본원칙을 개정했다. 운영모임, 홍보모임 같은 온라인부서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실태에 대한 반성도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부들과 활동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 주장이나 운동론 등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졌고, 지부 안에서 그리고 지부를 넘어서 토론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장토론’과 같이 지부-온라인을 연계해서 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맞춰가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잘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았다.

제3회 총회는 아수나로 안에서 많은 문제를 낳는, 지부와 활동회원들 사이의 동질성 확보가 처음으로 공식 문제로 대두한 총회였다. 이 문제는 대외적인 활동이나 주장은 물론, 단체 안에서의 폭력, 차별, 여성주의, 인권감수성 등 다양한 주제들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었다. 아수나로가 전국 단체로서 지부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재정 원칙과 운영에 대한 틀을 잡은 것에서 아수나로가 점점 활동이 활발해지고 안정적인 단체의 틀을 갖춰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제4회 총회 | 2009년 1월 2~4일, 울산

- 회원 체계 정비, 신입 회원 교육의 필요성
- 지부 만들기, 지부 지원 방법 등
-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정비



제4회 총회는 울산에서 열렸다. 이 총회는 최초의 2박3일 총회였는데, 20여명이 참가했고, 2박3일의 기간 동안에도 참가자 수가 계속 10명 넘게 유지되면서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늘어났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다만 사무실이 찢기가 열악했고 방풍이 안 되어서 숙박을 한 회원들이 입이 돌아갈 것 같다고 호소하거나 동상의 위협을 느꼈으며 감기에 걸

리는 등 장소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다. 1월 초에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추웠다. 그리고 지난 제3회 총회 때는 경상도 지역 활동회원들이 못 왔는데, 이번엔 울산에서 하니 광주 지역 활동 회원들이 오지를 못했다. 거리가 먼 것과 외박 가능한 활동회원이 부족한 문제 때문이었다.

제4회 총회에서는 지부라는, 아수나로 활동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단위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3년 동안 많은 지부들이 생겨났다가 1~2년 사이에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부 지원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부들이 망하지 않게 잘 할 수 있을지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총회 자리에서 지금까지 여러 지부들이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들, 없어졌던 사례들에 대해 검토하듯이 토론을 했다. 그리고 지부 설립과 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지부들이 손이 닿는 데까지 신생 지부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전체온라인회의에서 지부 설립을 승인했지만, 앞으로는 지부 승인은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총회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전체온라인회의에서는 준비모임까지만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체계 역시 좀 더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활동회원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동안은 회칙에서 일괄적으로 활동에 2번 이상 참여할 것이라는 식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모호하고 실제로 아수나로에 소속감과 멤버십을 가진 회원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활동회원 기준을 정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여러 지부들에서 각자의 경우를 밝히고 토론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아수나로의 일원이 되

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부마다 자체적으로 활동회원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누가 활동회원이고 활동회원이 아닌지 정리하여 활동회원 명단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회원과 관련해서 여러 안건들이 제4회 총회에 상정되었다. 신입회원들이 아수나로에 대해 알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안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이 처음으로 총회에서 나왔고, 이 내용은 이후 총회에서 반복적으로 좀 더 다듬어지면서 제기되었다. 돈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활동회원들에게 약간이라도 활동지원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 역시 제4회 총회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부와 활동회원과 관련된 안건 외에도 제4회 총회에서는 많은 안건들이 처리되었고, 더 진전된 활동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회 총회에서 만들어졌던 반인권적 행위 내규도 제4회 총회에서 다듬었다. 사례 제시 등이 주로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조금 더 넓히고 대책위 운영 등의 내용도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총회를 늘어나는 지부들 사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회를 1년에 2번 하기로 했으며, 대신에 전체온라인회의의 역할은 축소시켰다. 그동안 소수만이 참여한 전체온라인회의에서 활동에 대한 안건이 줄속으로 처리되고 통과되던 일이 적지 않았던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온라인회의는 활동에 관해 중요한 것은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운영에 관한 것과 공유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당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온라인부서들도 축소하기로 했다.

활동 계획을 짤 때는 ‘아수나로 BOOK’을 메이데이 출판사에서 정식 출판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한 토론이 가장 치열했다. ‘아수나로 BOOK’은 청소년인권의 여러 영역들을 주제로 다루다보니 아수나로 안에서 미처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도 담고 있었다. 때문에 이 책 저자에 아수나로의 이름을 달아 출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됐다. 논란 끝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글을 쓰는 데 참여한 회원들의 이름을 모두 써서 공저 형태로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활동계획을 짜면서 조직화를 위해서 캠프 등 아수나로 자체 사업을 지부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또 전국 동시 행동, 공동 사업을 진행 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4회 총회는 아수나로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부와 활동회원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멤버십과 지부 지원, 활성화에 대한 안건이 테이블에 올라온 총회였다. 또한 전체온라인회의와 온라인부서 등 온라인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총회를 늘리는 등 실제 활동회원들 사이의 만남과 소통, 몸을 움직이고 얼굴을 보는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였다.

## 제5회 총회 | 2009년 8월 1~3일, 서울

- 용돈, 지부 등 내실 다지기
- 좀 더 세밀한 활동계획

제5회 총회는 총회를 연 2회 열기로 해서 열린 최초의 여름 총회로, 서울에서 치러졌다. 서울은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부에서 활동회원들이 참석했고, 울산 등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했다.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의 활동회원들 중에는 이날 총회에서 서로 처음 본 경우도 있었다.

제5회 총회에서 테이블에 올라온 주제는 지부 활성화와 지원, 활동회원 교육과정, CMS와 소식지 문제, 그리고 상벌점제, 학생인권조례, 교육감 선거 등의 활동계획 등이었다. 지부 활성화와 지원 같은 경우는 제4회 총회 때 한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서 제5회 총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했다. 실제로 어느 지역까지의 지부 지원을 어느 지부가 책임질지 등 구체적인 형태로 제5회 총회에서는 이야기가 이뤄졌다.

활동회원 교육과정 역시 신입회원에 대한 교육내용, 활동회원이 되기 위해 공통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을 짜자고 하는, 제4회 총회 때 나왔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더 구체화해본 것이었다. 이 안건은 그 공통의 교육내용, 교육안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둘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결국 아수나로 신입회원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은 대체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후에 정하고, 또 아수나로 신입회원들이 읽어볼 만한 아수나로와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 등을 안내하는 글들을 써서 활용하기로 했다.

CMS와 소식지 문제는, 아수나로가 CM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월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였다. 브로셔를 만들어서 CMS를 모으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제5회 총회에서는 브로셔 제작 독촉, 지부별로 CMS를 모을 방법 등을 토론했다. 아수나로 재정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컸던 것이다. 그리고 후원회원들에게 아수나로 활동에 대한 소식을 보고하고 알리는 소식지를 2달에 1번씩 만들어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들 외에도 네이버 카페, 내부게시판, 홈페이지의 관계 정리, 전체온라인회의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이 제5회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이었다.

제5회 총회는 처음으로 8월에, 여름에 열린 총회였다. 그래서인지, 제5회 총회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 건 안건 처리가 아니라 주로 하반기의 활동계획에 관한 이야기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광주,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고,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가 교육부의 주도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이런 정세들을 파악하고 공유했고, 교육운동 등 다른 운동들의 의미 있는 동향 역시 총회 자리에서 공유가 되었다. 상벌점제나 학생인권조례 등등, 지부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을 했고, 공동의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조율한 것 역시 제법

많아졌다.

제5회 총회는 아수나로 운영에 관해서는 굵직한 안건들이 없이, 주로 용돈, 지부 등의 면에서 내실을 다지고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발전시킨 것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전국에서 변화하는 청소년인권 상황들을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계획을 세우는 데 힘을 들인 총회였다. 그리고 총회를 처음으로 6개월 만에 하면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다소 준비가 부족했던 총회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총회 이후에는 총회 날짜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기로 미리 정해두었다.



## 제6회 총회 | 2010년 1월 15~17일, 수원

- 로고 등 결정
- 상급학교 진학에 이용하는 문제 논의

서울에 이어, 수도권인 수원에서 제6회 총회가 열렸다. 숙박 장소와 회의 장소가 겹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한겨울에 눈 속을 걸어서 다니느라 참석한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다소 고생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부는 (준) 지부, 즉 준비모임이었지만 이 총회 때 정식 승인이 되면서 (준)자를 떼게 되었다.

제6회 총회는 총회 안건이 다소 이례적으로 적었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안건이 아수나로 로고의 결정과 상급학교 진학에 아수나로 활동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였을 정도니까 말이다. 그외에는 아마, 회계 서식을 통일하고 지부별로 회계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성 있는 안건이었을 것이다.



▲ 아수나로에서 처음 썼던 로고



▲ 이전에 쓰이던 여러 로고 중 하나



▲ 총회 결정에 따라 공식 채택된 로고

아수나로 로고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바꾼 직후부터 제몹이라는 회원이 디자인한, 파란색과 흰색 위주의 로고를 계속 써왔다. 그러던 중 그 로고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파이루, 피엠플 등 회원들이 각자 디자인한 몇 가지 버전의 로고가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제6회 총회에서는 공식 로고를 채택하기로 했던 것이다. 로고는 피엠플이 디자인한, Asunaro의 A자를 사람으로 형상화한 로고를, 글씨체와 선 등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서 쓰기로 결정되었다.

상급학교 진학 문제는, 아수나로 활동이 늘어나고 회원도 늘어나면서 대두된 문제들 중 하나였다. 아수나로 회원들이 아수나로 활동을 한 것을 스펙으로 이용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때 제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전형이 다양해지면서 그런 가능성

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논의이기도 했다.

청소년운동이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문제의식엔 공감하지만 진학을 위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활동을 열심히 해온 회원이 나중에 진학에 도움을 얻기 위해 쓰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결론은, 사용하는 걸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되도록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상급학교 진학에 이용하려면 지부에 사전에 공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났다.

활동계획을 논의할 때는 졸업식 시즌에 학교 앞에서 “출소”를 기념하면서 학교가 감옥과 다를 게 없다고 비꼬는 “두부퍼포먼스”를 전국에서 하기로 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 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기호0번 청소년후보 운동을 여러 지부들이 같이 전개하기로 했다.

제6회 총회는 안건도 적고 회의 시간도 짧았다. 이는 아수나로의 운영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었고, 특별히 바꾸거나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1회 총회부터 제6회 총회까지에 걸친, 회칙 제정 등 아수나로의 모양새 다듬기와 안정적인 자리 잡기가 이 무렵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7회 총회 | 2010년 7월 20~8월 1일, 부산

- 반성폭력 교육
- 회칙 전반의 재정비 제안
- 아수나로의 이후 방향 토론

제7회 총회의 장소는 이례적으로, 단체 사무실 등이 아니라 회원 개인의 집이었다. 한때 만들어졌다가 다시 침체되었던 부산지부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부산으로 총회 장소를 정했고, 부산지부에서 활동하던 활동회원 개인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안 쓰는 집에서 총회를 했다. 아수나로 회원들은 제7회 총회부터 총회의 질이 다소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때 총 참가자 수는 40여명. 상시적으로 참가한 사람만 해도 35명을 넘어섰다. 과거의 총회에 비해 참가자 수가 괄목할 만큼 늘어났다. 때문에 평소의 20명 남짓, 많아야 30명이 참가하는 총회라면 별 무리가 없었을 공간이, 너무 좁아서 총회 진행에 여러 차질이 생길 정도였다. 선풍기 2대 외에 특별히 냉방기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모두가 더위와 괴로움을 호소하며 꾸역꾸역 총회를 했다. 바닷가에 놀러 갔다 오는 시간도 반나절 있었지만, 그래도 회의 환경은 괴로웠다.

제7회 총회는 반성폭력 교육으로 시작됐다. 지부들과 활동회원들이 늘어나는데, 반성폭력 교육, 여성주의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적이었다. 외부 강사를 섭외하든가 해야 했는데, 지부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섭외하기에는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총회 자리에서 반성폭력 교육을 하기로 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실제로 아수나로 안에서 있었던 여러 성폭력 사건을 유형화해서 제시하고 단체 안에서의 성폭력의 개념, 사례, 그리고 성폭력에 대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집행을 할지 연습을 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때부터 총회 때 활동회원들과 공부 모임·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을 되도록 넣으려고 했다.

제7회 총회의 회의는, 회칙 전면 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현행 회칙의 골격이 2007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고, 이것저것 덧붙이고 고치고 하다 보니 아귀가 맞지 않게 되거나 너무 분량이 늘어나버린 문제가 있었다. 회칙이 간결하지 못하고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래서 회칙을 전면 개정해서 다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밤의마왕이 제안한 이 건에 대해 다들 동의하면서, 회칙개정팀이 꾸러졌다. 이 개정팀은 다음 총회 전까지, 반년 동안 활동하여 개정 회칙 초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총회 회의에서는 기타, 지부를 새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최근에 늘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상담, 조언, 안내를 해주고 지원하는 지부 지원 담당을 신설하는 안건, “까는 담당, 까이는 담당”이란 명칭으로 대변인과 비슷한 것을 만들자는 안건, 활동회원리스트의 위키DB화, 브로셔 제작(1년째 제작이 안 됐었다!)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지부 지원 담당은 활동회원 담당이 병행하면서 1명 더 맡아서 보조하기로 했

고, 인력이 부족하여 “까는 담당, 까이는 담당”은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외에 안건들은 모두 실무적인 차원이라 쉽게 처리가 되었다.

회의에서 가장 길고 치열하게 토론한 것은 “아수나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라는, 피엠피이 발의한 안건이었다. 이는 몇몇 사람들이 아수나로의 활동에 대해 비판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기 의견을 쓴 글들을 모아놓고서, 아수나로의 이후 활동 방향과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포괄적인 안건이었다. 어쩌면 그 성격은 안건이라기보다는 수다나 고민나누기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아수나로 총회에서 최초로 아수나로의 전반적인 운동론이나 방향에 대해서 직접 토론을 한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서 아수나로 운동의 대중성, 활동가 재생산, 회원 조직화, 중점을 뒤편하야 하는 의제, 접근하고 조직해야 하는 청소년집단, 이슈파이팅과 조직사업 같은 활동 방식들 등에 대해 주제를 넘나들며 토론이 이루어졌다. 학내조직화나 지역조직화나 하는 논쟁, 학생인권, 교육 이슈 등 중점을 뒤편하야 할 이슈는 무엇인가 하는 논쟁, 어떤 게 좋은 조직화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 토론은 뚜렷한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이후 활동에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끝냈다.

활동계획을 세울 때는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교육 관련 상황, 그밖에 차별금지법, 여성, 노동 등 아수나로 활동과 관련된 사회의 상황들을 살피고 아수나로 활동의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직화 사업을 어떤 걸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지부들마다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방침을 세우지는 않고 다양한 조직화 사업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제7회 총회는 제1회~제6회까지의 총회와는 구성이나 성격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수나로 활동이 그만큼 발전하고 운영도 정교해진 결과 가능해졌다. 당시에 여러 언론들에 아수나로가 오르내리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려던 사람들도 늘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만의 토론이었거나, 아예 토론이 이뤄지지 않던 운동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계화해서 공유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을 만드는 데 힘쓸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 아수나로도, 아수나로가 하는 청소년운동도 이제 다른 변화가, 그리고 더 발전하기 위한 재정비와 도전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 제8회 총회 | 2011년 1월 21~23일, 인천

- 기본원칙 개정 제안
- 회원 사이의 감정적 갈등, 지부 사이의 격차 등 고민나누기
- 싱크탱크-교육연구팀 / 신문 안전
- 서울지부 사무실 문제

제8회 총회는 제6회 수원에서 열린 총회 때 참가했던 회원 세안세다가 처음 만들자고 제안해서 만들어진 인천지부에서 공간을 섭외하여, 인천에서 열렸다. 아주 저렴하게 약간의 돈을 주고 장소를 빌렸고, 숙박시설과 회의 공간 등이 제대로 보장된 총회였다. 지난 제7회 총회 때, 아수나로의 규모가 커지면서 총회 참가자들이 30~50명에 이르고, 이에 맞게 공간도 더 크고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 곳을 빌려야 함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식사 준비 등에서도 이전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준비했다. 제8회 총회는 약 45명 가량이 참석했다.

모여서 짐을 풀자마자 1층 회의실에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어쓰를 초대해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동시에 2층에서 공현이 청소년운동과 아수나로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역사 교육을 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했지만, 역사 교육은 재미없다는 평이 많았다.

제8회 총회에서는 ‘고민나누기’에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주제도 다양하게 잡았다. 아수나로의 운영과 관계에 대해서, 회원들 사이에 관계나 감정적 문제들, 그리고 회원들 사이의 권력관계, 친목 문제,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에 아수나로의 운동 방향과 방법, 지부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지부들 사이의 감수성, 의견의 차이나 합의 절차, 신생지부 지원이나 지부간 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이 주제들이었다. 이 중 회원들 사이의 관계 문제나 이후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여러 시각과 의견들을 나누고, 해결을 위한 참고 지침을 마련하는 정도로 했고, 지부 관련 주제들에서는 구체적인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제8회 총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나왔다. 지난 총회에서는 회칙을 전면 개정하자는 안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본원칙을 전면 개정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기본원칙 역시 2007년에 초안이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의 아수나로와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당시의 기본원칙 안에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등만 주로 써있는데 좀 더 단체 운영의 원칙 등이 포함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안건에 동의하면서, 기본원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본원칙을 개정하는 팀을 꾸리기로 했다.

제8회 총회에서 그 외에 안건으로 ‘교육연구팀’이 신설됐다. ‘교육연구팀’은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운동에 대해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안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원래 제안이 된 싱크탱크는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구였지만, 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당장 아수나로가 필요로 하는, 활동회원들을 교육한다거나, 아수나로가 주장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논리와 컨

텐츠만을 개발하는 팀으로 '교육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육연구팀'이 신입회원들에게 아수나로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공부하게 하는 커리큘럼을 짜기로 했다. 이 커리큘럼 안에는 "아수나로 기본 원칙, 문화(반말, 반성폭력, 반차별, 대표 없음), 아수나로 역사 및 소개, 미성숙 담론 등등 청소년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청소년 인권의 정신, 원칙 등"을 담기로 했다.

활동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청소년운동 신문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청소년 대중들에게 배포되는 신문(계획을 보면 수만 부 이상의)을 창간하고 배포하여, 아수나로의 활동을 더 대중화하고 조직-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다. 그 필요성에는 다들 동의했지만 재정과 인력 등의 면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래서 일단 신문팀을 구성해서 이 팀에서 창간을 준비해보고, 준비하면서 재정과 인력, 그밖에 면들에서 신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조사하기로 정했다.

사실 제8회 총회에서 가장 무겁고 요란했던 안건은 서울지부 사무실 문제였다. 2010년 9월 무렵에 서울지부는 서울지역의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을 구했는데, 구하는 과정에서 전체온라인회의 등의 결정을 받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는 월권, 절차 무시를 저질렀다. 서울지부가 사무실 유지를 위해 월세를 전체용돈에서 매월 20만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 서울지부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에 다른 총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고, 아수나로에서 사무실 마련을 위한 적금 등을 들기도 했었기 때문에,(그 당시 60만원 정도 모였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 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용돈에서 매월 20만원의 지출이 생기는 것을, 전체온라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울지부가 먼저 계약하고 사후에 의결을 받은 것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사후 의결이 됐지만, 총회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격론 끝에 서울지부는 총회에서 공식 사과했고, 총회가 끝난 뒤 사과문도 게시했다. 서울지부에서 사무실 계약을 맡았던 타이루는 아수나로를 탈퇴했다. 탈퇴한 것은 책임을 지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치고 다른 지부와 협의해가며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나가겠다고 한 점도 있었다. 5년간 활동 해온 타이루의 돌발 탈퇴 선언의 충격으로, 서울지부 사람들, 그리고 서울지부 외에도 타이루와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회의 중에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총회 둘째 날 밤이 혼란스럽게 끝났다. 지부들의 협의체와 흡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아수나로에서 지부간의 협의와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제8회 총회는 제7회 때부터 조짐이 보이던, 아수나로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때였다. 달라진 아수나로의 상황을 진단하고 토론하며 고민나누기를 폭 넓게 진행한 것은 그 준비 작업이었고, 기본원칙을 개정하고, 싱크탱크이나 신문을 만들자는 제안은, 아수나로의 활동을 다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도약시키려는 욕심이 반영된 안건들이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 지부들 역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자 지부들의 내실을 다지고 활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래 제8회 총회 때 끝났어야 할 회칙 개정 작업이 회칙개정팀의 능력 등으로 늦어지면서, 다음 총회로 미뤄진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 제9회 총회 | 2011년 8월 5~7일, 전주

- 성폭력 사건 해결에 갈등,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
- 여러 가지가 연기, 진행 중...

제9회 총회는 전주에서 열렸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총회였다. 일단 최초로 총회준비팀을 지부별로 1명씩 정해서 그 담당자들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총회를 준비해왔는데, 그 방식의 한계로 여러 가지 준비가 늦어졌다. 그리고 총회준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시간표와 공간 관리가 많은 문제가 생겼다. 특히 잠을 자는 공간과 노는 공간의 분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많은 원성이 있었고, 지부별 활동계획 공유도 너무 시간이 짧게 배정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가출을 하고 총회에 온 회원의 친권자 가 난입을 해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대치하며 낭비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한 안건이 사전 공유 없이 총회 당일에 제출되는 등, 총회에 다양한 요소로 애로사항이 꽃피었다. 결국 활동계획 논의할 때는 시간이 밀리고 밀려서 여러 지부의 회원들이 떠난 뒤에 줄속으로 처리되었다.

제9회 총회는 반성폭력에 대한 간단한 교육과, 활동에 대해 고민되는 것들을 모둠별로 간단하게 고민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에 회의를 했는데, 회칙 개정, 기본원칙 개정, 신문팀 조사 등 굵직한 것들이 모두 제대로 준비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총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회칙은 초 초안을 들고 꾸역꾸역, 억지로 현장 논의라도 해보려 했는데 시간 때문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많은 안건들이 다음 총회로 연기되었다.

제9회 총회는 역대 총회 중에서도 최장 회의 시간을 자랑하는데, 둘째날에는 새벽 3시가 되도록 회의가 안 끝났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긴 회의를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과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 제안이었다. 이 안건들은 사전에 제출되지 못했고 총회가 시작할 때쯤에야 제출되어서 사전 검토가 없었기에 예정에 없던 긴 논의를 할 것이 예상되었지만 사건의 중대함과 더 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 본안과, 그 건과 관련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대책위가 발의를 했고,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 그리고 아수나로 안에 여러 문화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편으로는 대책위의 활동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처리가 늦었다는 점 등도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들 역시 대책위에 대한 불신을 표하기도 했다.

사건 본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을 들여 처리가 됐지만, 반인권적 행위 내규 개정 작업, 아수나로 안에서 반성폭력, 여성주의 교육을 하도록 하는 문제 등에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내규 개정에서 대책위의 성격이나 구성, 활동의 역할, 대책위 가이드라인 등이 복잡하게 논의가 됐고, 이 안건이 새벽 3시가 되어야 겨우 일단락이 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력적 문제로 뻘어 있었고 10여 명 남짓이 깨어서 몸을 혹사시켜가며 도출한 결론이었다. 제9회 총회는, 아수나로가 내부에서의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동안의 내규도 허점투성이였는지를 드러냈다.

그밖에 제9회 총회에서는 CMS 담당, 내부게시판 담당의 신설 등 담당 체계를 다소 재조정했고, 운동사회 나이주의 깨기, 수능거부·대학거부 선언 등의 활동들이 제안되었다. 제9회 총회는 아직도 아수나로가 안고 있는 부족함, 그리고 아수나로 활동과 총회의 불안정함, 한계, 단점 등을 회원들이 느끼게 만든 총회였다.



## 제10회 총회 | 2012년 1월 27~29일, 대구

## · 개정 기본원칙, 회칙의 확정

제10회 총회는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부가 학생간 폭력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12월부터 매일 진행하던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1월 27일에 마무리하면서 동성로 변화가에서 동시다발 행진·캠페인을 벌였고, 총회에 참가하러 전국에서 온 아수나로 회원들은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총회에 참석했다. 제3회 때 ‘총회 어택’의 변형판이라고 할 법했다. 제7회 총회 때부터 이어지던 총회에 30~50여명이 참가하던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제10회 총회에도 50명을 넘는 사람이 참석했다.

총회는 아수나로 안에서의 다양한 권력관계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고민나누기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적지 않은 안건들을 처리했고 긴 토론을 했지만, 제9회 총회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총회 진행이 이루어졌다.

제10회 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굵직한 건, 무엇보다 1~2년을 끌어온 기본원칙과 회칙 개정을 완료했다는 것이었다. 제10회 총회에서는 특별히 기본원칙과 회칙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넉넉히 마련해두어서, 회칙과 기본원칙의 조항 하나하나 문구나 표현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가결했다. 미리 쟁점이 될 만한 후보 조항, 내용들을 파악해서 회칙개정팀, 기본원칙개정팀이 낸 것도 논의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회칙은 총회 현장에서 가결되었고, 기본원칙은 총회에서 합의된 수정의견들을 바탕으로 재수정해서 조건부 가결, 즉 수정안을 총회 이후에 게시하고, 수정의견들이 잘 반영된 안이라고 모두가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회칙은 전보다 간결해졌고, 기본원칙 역시 좀 더 간결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과거 기본원칙에 있던, 아수나로가 주장하는 청소년인권의 예시 조항들은 뺐고, 대신에 기본원칙 해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시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사무실 관련 안건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일단 서울지부 사무실에 관련해서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원 개인에게 빌린 돈이 300만원이 있었는데, 서울지부가 저축하여 100만원은 마련했지만 나머지 200만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간,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지원의 기준과 원칙이 쟁점이 됐다. 또한 광주지부에서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을 위한 돈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사전에 공유나 의결 없이 공간을 먼저 구한 후에 요청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서울지부 사무실 때와 같은 예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컸다. 결국 서울지부 사무실은 보증금을 아수나로 전체용돈이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주고, 사무실을 빼거나 이사할 때 반납하는 식으로 결정했다. 단, 전체용돈 사정상 50만원은 서울지부가 다시 모아서 먼저 갚기로 했다. 그리고 광주지부 사무실은 광주지부에서 다시 논의한 후에 전체온라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이때 논의를 계기로, 지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는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둘 것을 결정했다.

그밖에, 반성폭력, 성차별, 여성주의 등의 문제의식에 따라 여러 지부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섹슈얼 팀'을 공식기구로 개설하기로 했다. 활동계획에서는 총선과 대선에 있는 2012년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하고, 또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 강요에 대한 활동, 운동사회 나이주의 깨기 운동 등을 공통의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신문팀은 검토 결과 신문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인터넷언론 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제10회 총회는 2006년 제1회 총회에서부터 딱 6년이 된 총회였다. 제8회, 제9회, 제10회 총회는 아수나로가 2011년부터 처해 있는 단체의 상황과 현실을 알게 해준, 그리고 그 상황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모로 이야기된 총회였다. 제10회 총회에서는 새 기본원칙과 회칙 제정을 완료함으로써 새롭게 다듬어진 아수나로 운영과 활동의 틀을 잡았다. 그렇게 총회를 거치고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지부들 사이의 여러 문제들도 조정이 되고, 재정 원칙이나 의사결정 구조, 소통 구조 등도 점차 만들어갔다.

## 제11회 총회 | 2012년 7월 27~29일, 수원

- 단체 차원에서 탈가정청소년 지원 결정
- 정식지부(구미지부)를 포함한 여러 준지부들 폐지
- 총회준비담당 및 총회날짜를 이전 총회에서 미리 정하기로 결정
- 전체용돈계좌 3개로 분리

제11회 총회는 수원에서 열렸다. 역시나 장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숙소와 회의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활동회원들이 더운 여름날 두 장소를 오가느라 고생을 했다. 제6회 총회(2010년 1월)도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역사는 반복되었다. 11회 총회는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여러모로 탈이 많았던 총회였다. 권역 별로 한 명씩 총회준비팀이 꾸려져 준비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회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다보니 총회일정 확정, 식단 짜기, 장소 섭외 등 실무가 꼼꼼히 챙겨지지 못했다.

첫째 날에는 지부 별 평가와 함께 지난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전국 일인시위(4.11. 총선),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깨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평가 시간을 통해 아수나로의 의사결정/논의구조에 대한 고민이 오갔다. 지금까지는 전체운영과 공금집행 등 운영과정에 대한 모든 논의가 대부분 총회에서 이루어지거나 전체온라인회의를 통해야 했다. 그러나 총회와 전체온라인회의의 안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고, 그에 따라 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회의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전에도 아수나로의 덩치가 커졌다, 늘어나는 회원과 지역모임에 비해 현재 아수나로가 갖추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전오프라인 총회)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이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진 것은 11회 총회 때라고 할 수 있겠다.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깨기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나이주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으나 실제 이후 활동에서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활동회원 사이에서 이러한 운동적 고민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후에 연수 중심의 총회를 가져보자는 이야기의 바탕이 되었다.

둘째 날에는 준비지역모임의 휴면과 폐지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구미지역모임의 폐지에 대해 이런저런 토론이 진행되었다. 당시 구미지부의 활동회원 간 소통 문제, 전반적 활동이 잘 공유되지 않는 문제 등 활동방식과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이 때까지만 해도 지역모임이 폐지되거나 휴면에 들어가고, 반대로 새롭게 모임을 시작할 때의 절차와 진행방식에 대해 섬세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법 긴 논의를 거쳐 원래 있다가 없어진 지역모임일 경우 이후에 다시 지역모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회원이 총회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한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부 활동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아수나로이지만 지역 별 역량과 조건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11회 총회에서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탈가정 청소년'을 지원하자는 결정이었다. 당시 탈가정을 선택한 청소년 회원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나누고 있었던 대구지부에서 안건을 발의했고, 탈가정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 또는 소책자를 만들자는 데에 찬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집행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몇 년 뒤, 2014년 겨울 총회(14회) 때 '탈가정 청소년 네트워크 팀'이 꾸려지면서 당시의 문제의식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전체용돈계좌를 활동지원비와 수입 통장 지출 통장 3개로 분리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정이 이후의 공금 관리 문제 발생에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회사를 작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공금 관리와 활동지원비 집행을 한 사람이 맡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체용돈담당과 활동지원비 담당이 구분되어 있었다. 당시 전체용돈담당이 활동지원비담당에게 공금을 이체해주어야 집행이 가능하데 모바일뱅킹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매번 ATM(은행)으로 직접 가야해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담당 평가 시간에 공유되었으며, 동시에 공금 관리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담당자 개인의 계좌로 공금을 옮겨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즉 전체용돈이 수입계좌, 지출계좌, 활동지원비계좌 총 3개로 분리된 것이다. 활동회원 개인의 계좌가 공금운영에 쓰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 총회 때마다 각 통장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활동회원들이 회람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9회 총회 때 담당자 명의의 계좌 및 통장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얻게 된 것이다.

이때의 결정이 직접적 이유는 아닐 수 있지만 이후 공금 관리 문제 발생 사건을 겪으며 공금 운영과 투명성에 대해 활동회원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공금담당과 활동지원비 담당을 하나의 역할로 합치고 계좌도 '아수나로' 모임명이 부기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좌만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체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 제12회 총회 | 2013년 2월 3~5일, 광주

- 생리 중인 여성활동가 모텔(숙박)비 지원 결정
- 활동회원 고민 나누기 : 활동의 전망, 역량 차이와 소통, 권력 문제에 대한 고민들
- '아수나로 대나무숲' 사건을 둘러싼 논쟁과 토론
- 활동지원비에 관한 규정 만들기, 회칙 개정을 위한 논의 등

제12회 총회는 광주에서 열렸다. 지난 총회 때의 거의 2개월 전에 준비팀이 꾸려진 반면에 총회준비팀도 미리 꾸려지고 안건 준비와 공지도 지난 번 총회에 비해서 비교적 꼼꼼하게 잘 된 편이었다.

첫째 날에는 아수나로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을 정리해서 모두 별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앞으로 뭐하지?(전망과 비전)”, “청소년 대중과의 거리감”, “지역 별 활동 역량 차이”, “지역 간/지부 내 소통 문제”, “활동/일의 집중과 권력 문제”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쟁점이 될 만한 토론꺼리로 삼았다. 다섯 가지 주제를 모두 다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주제를 정했고 해당 주제를 뽑은 회원들끼리 모여서 30분 동안 모두 별 토론 후, 전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고민 나누기 시간을 통해 등장한 ‘아수나로 대나무숲’ 논쟁은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트위터에서는 ‘대나무숲’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익명게시판과 같은 기능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학교, 소속기관, 어떤 사건, 때로는 개인의 감정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익명창구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공간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아수나로 대나무숲’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비밀 번호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방식이었음.) 누가 대나무숲에 그런 글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 진짜 아수나로 회원이 올린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특정 회원의 이름을 지목하여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우리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대나무숲 사건’은 한편으로는 활동회원 간의 불신과 불통을 확인하게 된 아픈 사건이었다.

이 대나무숲을 둘러싼 감정적 갈등과 쟁점들은 고민 나누기 시간을 통해 풀어보고자 했던 주제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이때의 논쟁은 아수나로의 운동방식, 회원구조, 역량과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권력/권위적 모습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지 등등 내외부적 운영과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긴급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유의미했던 결정으로는 생리 중인 여성활동가들이 보다 편하게 씻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모텔비를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2박3일 동안 회의하던 장소에서 잠을 청하고, 밥도 직접 해먹으면서 공금을 아끼던 아수나로로서는 어찌 보면 획기적인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정이 아수나로의 활동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후에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렵고 열악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무엇을 고려하고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있

어 고민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1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담당 및 팀 활동 평가는 비교적 어려움을 많이 느낀 시간이기도 했다.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거나 담당을 맡았음에도 일이 핑크가 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팀 활동에 대해서는 아수나로의 규모에 비해 팀이 많고, 팀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담당 평가에 이어서 담당의 역할에 관한 안전을 논의할 때에는 전체용돈담당과 활동지원비담당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다르므로 이 두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한동안 그렇게 업무를 진행했다. 또한 그 동안 문화적으로 전해져오는 것으로만 그쳤던 ‘활동지원비’에 관해서 지원비의 성격,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그 밖에도 11회 총회와 12회 총회 사이의 전체온라인회의 때 만들어진 익명게시판의 글을 메인에 띄울 것인지 말 것인지, 위키-활동회원리스트의 활용범위와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등 크고 작은 운영에 관한 원칙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또 지부 별로 SNS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금지하는 입장에 가까웠지만 논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카페나 내부계를 통하지 않은 사항은 공식적 입장 및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체계를 만들어나갔다.

한편 12회 총회에서는 약 1년 반 동안 유효한 확정 회칙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2010년 여름(7회) 총회에서 처음 회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제안되었고, 2012년 겨울(10회)에 당시 회칙개정팀이 만든 회칙이 통과되었다. 이 때 사소한 지적과 몇몇 수정사항이 있어서 회칙개정팀이 수정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채로 시간이 흘렀던 것이었다. 그 사이에 당시 회칙개정팀의 구성원들이 활동을 쉬거나 그만두는 등 팀이 유지되지 못하여 결국 회칙개정팀이 새롭게 꾸려졌고, 여러 번의 수정과 변화를 거쳐 14회 총회에서야 확정되었다.

## 제13회 총회 | 2013년 8월 2~4일, 수원

- 비용은 많이 들었으나 시간과 체력소모를 줄였던 총회
- 제도화 이후의 운동, 장기적인 운동에 대한 고민
- 전체논의구조 개편
- 남양주/고양/성남용인/안양/대구/순천지부 휴면 논의

수원에서 열린 13회 총회는 개최 지부에서 총회준비를 맡지 않고, 아수나로 전체차원의 총회준비팀을 꾸려 준비되었다. 그리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회의와 숙박 공간을 완전 분리시키고 식사는 요리를 최소화하고 주문한 도시락, 김밥 등으로 대체했다. 활동회원들의 피로도도 줄어들고, 요리와 설거지를 하지 않아 시간도 많이 절약된 총회였지만 130만원의 비용이 들어 아수나로 재정의 큰 부담이 되었다. 이 때부터 총회 예산 2~300만원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13회 총회는 활동회원들의 고민과 여러 활동 의제들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 지부들의 2013년도 상반기 활동평가와 하반기 계획 공유 위주로 진행되었다. 각 지부들의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이 제정되고 제도화가 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 간 학생인권 상황의 차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같은 기준에 활동해왔던 의제들에 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고민 즉 제도화 이후의 학생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이 이야기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인권운동의 1,2년의 활동계획을 넘어서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계획과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활동의 원동력과 의미를 찾기 위한 권태기 수다',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모임' 등 아수나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를 하는 다양한 모임을 준비하는 아수나로 백년대계 어찌구림이 꾸려졌다. 이후 '어떠까지팀'으로 팀명이 정해졌고, 비청소년활동가들의 권태기 토크, 활동토크, 운영토크 등이 진행되어 14회 총회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운영과 활동 계획들이 논의되었다. 제도화 이후의 학생인권운동에 관한 논의는 서울지역모임에서 장애인운동, 여성운동 등 제도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다른 운동들의 사례를 통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체공금담당평가 과정에서 공금 유용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2013년 1~2월에 전체공금담당자가 전체공금통장에서 4차례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전체공금통장으로 인출한 금액을 채워 넣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추후 공개적으로 공금유용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또한 그동안 지출과 수입통장 분리되어 관리되어왔는데 아수나로 지출만을 위한 통장을 담당자가 새로 만드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사용하고 아수나로 내역만을 공유하는 건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수나로 공금 운영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아수나로 지출만을 위한 통장을 개설해서 지출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전체온라인회의를 개편해 2달에 한번 씩, 1박2일로 각 지부의 전체논의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하는 '세미총회'안건이 발의되었다. 예산 등의 이유로 1박2일이 아닌 당일치기로 2달마다 진행하고, 각 지역모임의 전체논의 담당자들에게 차비를 지원하며 이동시간이 길 경우에는 KTX 지원을 고려하기로 결정되었다. 총회와 세미총회가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의견에 이름은 '전국논의자랑'으로 정해졌다. 기존의 전체온라인회의는 전국논의자랑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이 생길 경우에 논의를 통해 개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남양주/고양/성남용인/안양/대구/순천 지부에 대한 휴면 논의가 이루어졌고 총회 이후 지부지원팀이 활동의사를 확인한 뒤 휴면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활동의사를 밝힌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6개 지부 모두 휴면되었다.



## 제14회 총회 | 2014년 1월 24~26일, 대전

- 전체 집중사업으로 입시경쟁교육반대 학습시간쪼갠 활동 결정
-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발행 결정
- 여름 총회를 연수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 수정회칙 확정
- 구미지부 준지부 승인, 대전지부 휴면

14회 총회는 대전에서 열렸다. 13회 총회에서 꾸려진 어떠한지팀에서는 2013년 하반기동안 아수나로 활동회원간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고민, 아이디어 등을 나누는 '권태기토크', '운영토크', '활동토크'를 진행했고 활동과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방향들이 제안되었다. 총회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전국 지부들이 공통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집중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아수나로의 모든 지부가 함께 하는 공동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고, 활동 의제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의제 중 활동회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던 '입시경쟁교육반대 학습시간쪼갠'으로 정해졌다.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1명씩 모여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에 대해 주장과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는 집중활동팀이 꾸려졌다. 또한 집중활동팀에서 지역모임별의 역량차이를 줄이고, 활동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모임마다 공부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언론을 만드는 기획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행되던 소식지를 없애고 청소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팀이 신설되었다. 신문의 이름은 총회 이후 '요즘것들'로 정해졌으며 2016년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또한 아수나로 홍보 전략, 방법 등을 기획하고 지부 또는 전체활동의 홍보를 지원하는 홍보팀도 신설되었다.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탈가정 청소년들과 접촉면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노동인권, 성, 독립 등의 주제들을 가지고 탈가정 청소년들과 간담회, 모임들을 꾸려보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던질 수 있는 활동을 논의되었고, 의지를 보인 수도권 지부들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 수원, 인천지부에서 '수도권 탈가정 청소년 네트워크팀'이 꾸려졌으나 탈가정 청소년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원래 계획에 어려움을 느껴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나름 안내서'를 발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활동가들의 생계문제, 아수나로의 논의/소통방식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다. 아수나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동가들의 생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활동가들의 생계를 지

원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활동지원비는 활동할 때 드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지원의 개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상한선은 기존의 최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활동가들의 생계에 대한 논의는 이 이후로도 꾸준히 총회 등에서 논의되어왔고, 이후 17,18회 총회에서 반상근자를 두자는 논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아수나로의 논의/소통 구조의 개선도 이야기되었다. 그동안의 총회방식을 바꾸어 연초에 열리는 겨울총회에서 아수나로의 앞으로 1년간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여름총회에서는 활동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개월이었던 전체팀, 담당의 임기가 1년으로 늘어났다.

회칙개정팀이 작성해 온 개정회칙은 아수나로 이름의 영문표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영문표기를 빼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간단한 문장과 단어 수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통과되었다.

구미지역모임 승인과 대전지역모임의 휴면에 대한 안전도 논의되었다. 구미지역모임은 준비지부로 승인되었고, 대전지역모임은 휴면공고를 올렸지만 활동의사를 밝힌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휴면처리 되었다.

제15회 총회 | 2014년 8월 1~3일, 서울

- 처음으로 시도된 연수 중심의 총회
-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 집중활동에 대한 논의

시간표

제15회 총회 / 1일차			
13:30 ~ 14:00	2시	환가환수	- 환영식 인사 대기, 참가자 명부, 날짜에 확인
14:00 ~ 15:30	2시20분	예선시간	- 시정토의 발표 - 자유발표 - 선출자 및 서기 발표 - 총회프로그램 안내
15:30 ~ 18:30	2시40분	담론역량강화 연수	- 주제: '아수나로 논쟁의 역사' (유지민) - 주제: '인권의 사춘기' (김민준)
18:30 ~ 19:00	2시	차려사서	- '담론역량강화' 및 '총회'에 대한 의견
19:00 ~ 22:00	2시40분	인권감수성향상 연수	- '아수나로'의 인권
제15회 총회 / 2일차			
08:00 ~ 09:00	2시	기상 및 아침식사	- 기상: 맑음, 25~30도, 습도: 70%
09:00 ~ 12:00	2시40분	실무역량 강화 연수	- 주제: '총회'의 역할 - 주제: '총회'의 운영 - 주제: '총회'의 예산
12:00 ~ 13:00	2시	점심식사	- 점심식사
13:00 ~ 18:00	2시40분	인권·사법·인권활동	- 주제: '인권'의 역할 - 주제: '인권'의 역할 - 주제: '인권'의 역할
18:00~19:00	2시40분	점심식사	- 점심식사
19:00~20:00	2시40분	차려사서	- 회의
20:00~22:00	2시40분	이벤트 및 발표	- '아수나로'의 역할 - '아수나로'의 역할
제15회 총회 / 3일차			
08:00 ~ 09:00	2시	기상 및 아침식사	- 기상: 맑음, 25~30도, 습도: 70%
09:00 ~ 10:00	2시40분	아침·점심	- 아침·점심
10:00 ~ 11:30	2시20분	인권해설시간	- 주제: '인권'의 역할 - 주제: '인권'의 역할
11:30 ~ 12:30	2시40분	총회후기 나누기	- '아수나로'의 역할 - '아수나로'의 역할
12:30 ~ 13:30	2시40분	점심 및 휴식	- 점심식사

논의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총회가 여유로웠던 건 아니었다...

게 된 것은 14회 총회의 운영토코에서 여름총회는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하거나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주로 가지고 겨울 총회는 기존처럼 안전처리와 한 해 계획을 짜기로 한데 따른 것이었다. 물론 역량 강화와 고민을 나누는 것의 필요성이 이런 결정을 한 주된 원인이었지만 20시간 넘어가는 회의를 1년에 한 번만 하자는 활동회원들의 열망도 여름 총회는 연수중심의 총회가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준비된 연수에는 '담론 역량 강화', '인권감수성향상 연수', '실무역량 강화 연수'가 있었다. '담론 역량 강화'는 "아수나로 논쟁의 역사"와 "청소년, 사춘기?"라는 프로그램 중 참가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권감수성향상 연수' 시간에는 월드카페 형식으로 채식, 일 분배, 연애, 탈가정, 탈학교, 대학을 주제로 편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실무역량 강화' 시간에는 홍보와 글쓰기, 지부 운영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총회의 연수기획을 다 총회준비팀이 준비하였기 때문에 참가하는 활동회원들은 편한 대신 준비

팀에게는 많은 일이 쏠리게 되었다. 또 16회 총회 막바지에 17회 총회를 다시 연수중심의 총회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15회 총회 때의 연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는 실무연수의 경우 자료를 정리해서 공부모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권감수성향상 연수' 같은 건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1년에 2번밖에 없는 총회 자리에서 하기는 아깝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연수 중심의 총회를 해 본적이 한 번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연수 중심의 총회 자체를 폐기하는 건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여름 총회는 연수중심의 총회가 되는 것이 유지되었다.

제15회 총회에서 있었던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논의는 집중활동에 대한 논의였다. 14회 총회에서 학습시간을 줄이는 것을 집중활동으로 가져가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15회 총회 때 안건으로 올라왔던 건 집중활동에 대한 기획을 승인하는 것이었다. 이 집중활동 기획의 특징은 운동본부 형태의 대중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논의를 진행할수록 사전에 공부모임까지 진행하였지만 이 기획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심하고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고,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결국 운동본부를 만드는 집중활동기획안을 보류하고 이후 한번 더 지부마다 공부모임을 진행하며 운동본부 계획의 전면폐기의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여 향후 열린 전국 논의자랑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안건은 3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자칫하면 매우 혼란스럽게 논의가 전개될 수도 있는 안건들이었다. 특히 익명게시판 임시폐쇄 안건과 아수나로 회칙 1조 개정 안건에서 격론이 이어졌는데, 이 안건들은 예전부터 아수나로 내에서 있었던 많은 논쟁들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익명게시판 임시폐쇄 안건은 2014년 초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문제제기 된 후 가해자가 익명게시판의 익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대안을 찾을 때까지 익명게시판을 임시 폐쇄하자는 내용의 안이었다. 이 안건을 논의하면서 익명게시판의 필요성, 아수나로 내의 소통문제 등등의 지점들도 같이 논의되었다.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당장 익명게시판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익명게시판을 임시로라도 닫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익명게시판은 임시폐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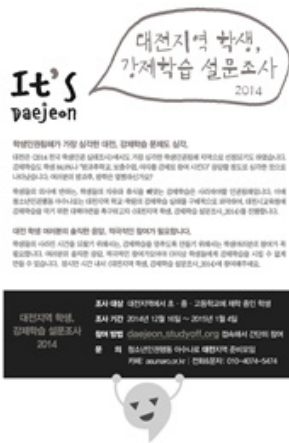
아수나로 회칙 1조 개정 안건은 당시 회칙에 있던 아수나로의 영어 표기에 대한 논란을 다시 제기하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부분을 없애거나 아예 회칙 1조를 없애자는 내용의 안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회칙이 좀 더 딱딱해져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처럼 부드러워야 한다는 입장 간의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논쟁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회칙 1조 개정 안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논의되다보니 논란이 보다 복잡해졌다. 이 안건은 결국 표결을 통해 아수나로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는 부분은 없애고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은 유지하는 정도로 정리되었다.

15회 총회는 참가자들의 소비자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표면에 떠오른 총회이기도 했다. 식사시간에도 뒷정리가 총회준비팀과 일부 활동가들만 치우는 일이 반복되자 활동가들이 총회에 참여할 때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 온 소비자 같다는 지적이 총회 평가 때 나오면서 다음 총회부터는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제16회 총회 | 2015년 1월 9~11일, 대전

- 오랜만에 부활한 총회 캠페인!
- 2014년의 반성과 2015년의 계획 - 지부활동발표회와 집중활동 논의
- 폭발력있던 안전들, 생각보다 조용했던 회의

총회준비팀은 보통 전 총회 마무리를 하며 다음 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16회 총회 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15회 총회 때 준비팀의 고됨이 유명했던 터라 아무도 총회 준비팀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10월 전논자에서 총회를 대전에서 하고 대전지부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총회준비팀을 구성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총회 캠페인이 부활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다시 부활한 대전지부의 활동가들이 매우 줄어들게 되고 그나마 대전에 살고 있는 활동가는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되자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대전지부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총회 캠페인은 사전에 실시된 ‘대전지역 학생, 강제학습 설문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그 뒤에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운동 캠페인을 몇 팀 씩 찢어져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자회견과 캠페인은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였다는 흥분감과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이때의 이름은 ‘학습시간 섷다운 프로젝트’였다)가 시작된 초기라는 점이 만나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16회 총회 때의 논의는 작년의 활동평가와 내년의 활동계획의 논의, 안전처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년의 활동평가는 보통 이루어지던 팀 평가뿐만 아니라 지부활동발표회라는 형식으로 13회 총회 때 이후 오랜만에 지부 활동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년의 활동계획 논의는 주로 2015년의 집중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지부활동 발표회는 각 지부들의 활동과 고민들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지부들의 고민들은 주로 지부 내의 일 분배 문제, 새로운 활동가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지부지원팀과 각 지부들의 힘듦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아수나로 구조상으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부지원의 방식을 그 지부의 활동회원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지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과 가이드를 만드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부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5년 활동 계획 논의는 집중활동팀이 짜온 계획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실태조사라는 방식의 활동을 너무 많이 했고 결과 분석에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슈화를 시키는데 실태조사가 유효하며 뒤에 5월에 세계교육포럼 대응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담으려면 힘들지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이 미뤄지면서 실태조사 기간은 6월, 결과 발표는 8월에 진행했다. 그 밖에도 세계교육포럼 준비, 전국 순회 간담회, 할로윈행진 등 한 해 동안의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16회 총회에서 논의한 안건 중에는 확실히 폭발력 있게, 그러니까 긴 토론과 혼란이 오갈 수 있는 안건이 많았다. 언제나 논쟁이었던 익명게시판 폐지, TF팀 논의, 부산지부의 준지부 전환 문제, 아수나로 10주년 관련 논의 등이 그러하였는데 안건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익명게시판은 익명성으로 인해서 그 내부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본래 익명게시판을 만들었던 취지인 ‘아수나로 안에서 느낀 고민과 문제점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실명을 밝히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지점이 유효한 이상 문제가 생기면 글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술적인 보완을 하자는 반론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며 기술적인 보완이 있게 되면 익명게시판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표결을 거쳐 익명을 폐쇄하게 되었다. 그 대신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고민을 마음 편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TF팀은 팀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반성폭력 분위기를 만들려는 목적에 결과물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팀을 새로 구성해서 활동기간을 최소 여름총회 때까지는 늘리도록 하였다. 아수나로 10주년 준비는 팀을 맡을 활동회원 수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구성되지 않으면 전논자 등에서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10주년을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10주년 팀이 구성되면서 팀을 통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총회에는 이례적으로 부산지부가 준지부로 전환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 안건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준지부가 지부로 전환한 사례는 있지만 지부가 준지부로 바뀐 예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준지부의 정의상 지부였던 모임을 준지부로 전환한다는 개념이 적절한지, 그 실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쟁이 생겼다. 논쟁 끝에, 실제 그 곳의 활동회원이 원하고 있고 또 기존에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남은 활동회원도 아수나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준지부로 전환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준지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폭발력 있는 안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회의가 쉽게 끝났던 이유는 총회 안건을 사전에 지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정착되면서 논쟁 지점 정도는 총회 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회의진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논의가 점점 반복되는 것 같으면 표결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이 꼽혔다.

16회 총회는 또한 뒷풀이가 논란이 되었던 총회이기도 했다. 담당을 맡은 총준팀원이 단독으로 준비한 뒷풀이는 진행방식이나 내용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레크레이션처럼 강압적으로 참여를 강제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평가 자리에서는 이 지점을 반성하며 총회 공식 뒷풀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뒷풀이 방식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 기념자료집

어서  
오세요,

하지만 망하지 않은

10년의 역사, 10명의 회원들



## 시대의 요구를 받아 안기 위해 탄생한 아수나로

- 무직인꿈틀이 인터뷰

인터뷰어 : 타시아

2015년 11월 29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정문 앞 카페

### 아수나로가 만들어지기까지

**Q. 아수나로의 창립 멤버이다. 아수나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

무직인꿈틀이 : 처음에는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였다. 나는 2004년 겨울에 수능을 치고 대학입학 관련해서 서울에 오갔다. 그때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활동을 했던 조상신을 만났다. 조상신은 그때 대학생이었다. 조상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소위 ‘피터팬주의’라는 문화가 있다. 모든 단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20대가 되면 청소년운동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그런 문화. 자신은 그 문화의 문제점, 옛날에 했던 걸 반복하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론 작업이나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 나도 동의를 했다. 나는 그때 《청소년의 눈으로》라고 소식지를 만드는 활동을 계속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걸 아수나로라는 틀 안에서 해보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 활동 자체는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두었다. 그렇게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를 만들었다. 2005년 1~2월쯤까지는, <인권운동사랑방>이나 <다산인권센터>에 방문해서 조언을 받거나 인권이론을 공부하는 모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Q. 청소년인권연구포럼이었다가 성격을 바꾸게 된 과정은?**

무직인꿈틀이 : 2005년 봄의 사건이 성격을 전환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때 두발자유화 온라인 서명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개입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다른 단체들과 집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집회를 추진하는 돈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는 성인 활동가들도 같이 이야기하지만, 집회의 내용이나 메인 슬로건 등은 10대들만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난 결정대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 그때 아수나로에는 청소년인 멤버는 없었고, 아수나로와 연대를 하던 10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

직인 <한국청소년모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도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우려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비청소년들의 의견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건 청소년인권연구포럼인 우리의 성격과는 안 맞는 면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비청소년인 활동가들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게 많았다고 나중에 평가를 했다. 합의했던 것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걸 느끼게 된 것이다.

그때 한계를 느끼고 성격을 좀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다. 원래는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그대로 두고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자고 했다. 그 단체는 아수나로의 기존 멤버들도 다 참여하고 <한국청소년모임>이나 집회에서 만났던 여러 청소년 활동가들과 같이 만들자고 해서, <학생인권공동행동>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나 활동이 많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직력이 형편없었다. 아수나로 멤버들 내부의 감정적인 갈등도 있었고, <학생인권공동행동>이 서울에서 2005년 11월에 한 번 했는데, 그 당시 청소년 중에서는 박남규가 고생을 많이 했다. 20대 활동가들도 실무적인 걸 챙겨야 했는데, 그걸 진주에 있는 내가 했다. 주관적인 평가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생각이 없거나 태만했으면 내가 맡았겠는가. 그래서 <학생인권공동행동>이라는 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나로 자체의 성격을 행동하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2006년 2월에 5명이 모였나, 4명이 모였나? 그래서 아무튼 '청소년인권행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구포럼이 아닌 행동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논의를 했다.

#### Q. 그러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만들게 된 것이 2005년의 경험 때문인가?

무직인꿈틀이 :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가 '피터팬주의'를 극복하자고 했지만, 처음에는 청소년들과 조직을 따로 만들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다가 2005년 5월의 집회나 <학생인권공동행동> 등, 2005년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수나로 자체를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다 같이 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 Q. 무직인꿈틀이는 아수나로 이전에는 어떤 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직인꿈틀이 : 2002년도부터 경남 진주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인 <행동하는 청소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원래는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진주지부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활동가들과 친분도 생기고 메신저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잘 안 맞는 것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그 당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자체가 활동력이 떨어져 있었다. 일단 따로 해보고 안 되면 지부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청소년>을 만들었다. <행동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가 될 때까지 존속을 했다.

<행동하는 청소년>의 주된 활동은 《청소년의 눈으로》라는 소식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그 당시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어서, '성교육의 날'을 제정하자고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했다. <전교조>와 연대해서 거리 청소년 성 상담, NEIS 반대 캠페인과 성교육 캠페인을 주로 했다. 2002년은 두발자유라는 이슈가 힘을 잃은 상태였고 2002~2003년 미군 장갑차 사건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집회가 참 많았다. 진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위가 있었다. 청소년단체들이나 청소년활동가들이 반전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게 활동의 메인이었다. <행동하는 청소년>은 그런 집회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요구나 캠페인을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그 정도가 기억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 Q. 《청소년의 눈으로》는 아수나로에서도 발간하지 않았나?

무직인꿈틀이 : 아수나로에서도 이어서 만들었는데 오프라인 신문, 인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여러 번 내지는 못했다.

#### Q. 아수나로에 참여한 이유가 있나? 청소년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는지?

무직인꿈틀이 : 2002~3년에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는 건 좋은 건데, 독자적인 청소년들의 요구나 조직 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집회에만 매몰되는 것이라는 우려였다. 내가 보기에는, 2000년대 초 두발자유운동 이후에, 확고한 이론과 물질 토대를 가진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서 많은 운동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그리고 강의석(※ 2004년 종교자유를 요구하면서 서울 대광고등학교에서 1인시위와 단식 투쟁 등을 한 고등학생)처럼 개인의 열정과 지사적 자세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또, 청소년인권행동으로 전환될 즈음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들이 생겨났다. 그런 곳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엄청났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우리가 봤을 땐 ‘관변’ 성격인 단체들이나 참여기구가 청소년운동을 대체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즉, 청소년활동가가 될 법한 사람들이 청소년참여기구로 흡수돼버리고 의욕을 잃고 사회운동의 의제와 아예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었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을 만들 때는 피터팬주의와 도돌이표 운동을 넘어서자, 자료의 전송이나 운동경험의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 세대가 바뀌면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자는 문제의식이 강했다. 청소년인권행동으로 갔을 때는... 2005년이 두발자유화 운동 2차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건 활동가들이 조직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겨난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궤창은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흐름을 받아 안고 이전의 지리멸렬했던 청소년운동과는 좀 다른 조직,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 Q. 아수나로의 활동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한 목표가 있다면?

무직인꿈틀이 : 기억이 잘... 아수나로에서 처음에 버튼을 만든 적이 있는데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부’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그런 제도화의 가능성을, 학생인권을 위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고 싶다는 전망을 같이 공유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당연히 운동이 잘 돼야 제도화도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붕괴하고 여러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는데, 초기 아수나로 멤버들은 그 흐름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 않나. 그 흐름들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하고, 그나마 계승되어야 했던 것

들을 계승하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운동을 만들자.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고, 그래서 단체 이름을 '청소년인권행동'이라고 했던 것이다.

## 제도화와 전국조직 만들기 과제

**Q. 아수나로가 출범하고나서 진주지부와 서울지부에서 활동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무직인꿈틀이 : 주로 했던 활동은 두발자유 운동이라는 대중적 움직임에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두발자유'와 '두발자유'를 구분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두발자유가 인권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임을 분명히 하자고. 학생이 두발자유를 요구하는데, 두발자유(두발규정을 정하는 데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로 무마하려는 게 많아서 우려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졌던 것 같다. 설령 그 당시에 '두발자유' 정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우리는 '두발자유'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건 '학생인권법'이나 '학생인권부'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내가 잠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다른 단체들과 논의도 하고 최순영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에 아수나로 사람들도 의견을 내고 간담회도 가고 했다.

또 그때는 전국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지역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에 가거나 울산에 가거나 전주에 가거나 그런 일들도 다 같이 했다. 그다지 체계적인 활동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2007년도에 1년 정도 주 거주지가 서울이었어서 서울지부에서 활동했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지부 차원의 활동을 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진 않다. 내가 주로 활동했던 것은 진주지부였다. 서울에 있었을 때와 진주에 있었을 때 사이에 의제나 활동방식의 차이는 딱히 없었던 듯하다. 2007년도에는 서울지부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두발자유 시위를 하는 '스쿨어택' 같은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의제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Q. 진주와 서울 등 여러 지부에서 활동을 해봤는데 지역 간의 차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등 느끼게 있는가?**

무직인꿈틀이 : 많은 차이를 느꼈다. 그때만 하더라도 청소년인권운동 자체가 인지도도 낮았고 교육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든, 상시적인 연대도 약했다. 아무래도 진주에서는 <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같은 단체들 이외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단체가 별로 없었다. 내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했던 것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대부분 당원이니까,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에 비해 서울에는 단체들이 많았다. 빌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재정 후원이나 실무 집행 능력까지. 대학생 운동도 달랐던 것 같다. 진주는 청소년운동에 같이 하거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대학생들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서울은 연대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 게 수도권의 장점이 아닌가 했다.

활동의제라기보다 활동력과 물적 토대가 수도권 지부와 비수도권 지부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고, 그것이 커지거나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했다. 그때 당시에는 전국조직을 만들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중앙'이라는 개념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거고, 회의도 전체온라인회의 위주로 했다. 그랬던 이유도 실제로 모이기가 힘들고 모일 때 교통이 편리하거나 사람이 많은 수도권 쪽에서 잡게 될까봐. 대표도 없고 중앙도 없고 평등한 보직만 있는 상태에서는, 회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라인 회의를 많이 했다.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과 그 방식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이버 카페 채팅방에서 놀기도 하고 새로운 신입 카페 회원을 설득도 해보고.

언론 보도의 차이도 많이 느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중앙 일간지들이나 방송과 연결하긴 힘들었다. 지역 신문들은 네이버 등 포털과 제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행동하는 청소년> 때도 지역 신문엔 여러 번 실렸고 오마이뉴스에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같은 활동을 해도 수도권이 실릴 가능성도 더 높더라. 전반적으로 수도권 활동들이 보도가 잘 되니까 장점이 있구나 했다.

**Q. 10주년을 맞이한 아수나로 활동을 지금 지켜보면서, 자신이 활동할 때에 비해 눈에 띄게 변화한 점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무직인꿈틀이 : 아무래도 언론 노출 빈도와 인지도의 상승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내 생각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하고 난 이후로는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의 교육운동 단체와의 관계가 조금은 손쉬워진 면이 있지 않을까 한다. 없다면 슬프고 우려스러운 일이겠지만. 인터넷 통해서 볼 때는 노출이나 인지도가 확실히 올랐다고 느꼈다.

진주 지역에 계신 분들만 봐도 변화가 느껴진다. 예전에는 단체들이 아수나로에 대해서 대부분 몰랐었는데 지금은 교육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수나로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대체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대충 알고 있다.

그밖에는, 예전에도 두발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의제가 다양화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학습시간 줄이기나, 휴대전화 관련 의제들 등.

### **잘 안 돼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Q. 활동을 언제 왜 그만뒀는지?**

무직인꿈틀이 : 공식적으로 활동을 그만둔 게 2008년 6월 달 정도일 거다. 그때는 진주지부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였고, 산청 간디학교에 아수나로 활동을 열심히 했던 학생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2008년 촛불 때 '미친 소 미친 교육 반대' 촛불문화제, 뭐 그런 집회를 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내가 2008년 들어 진주에 다시 왔는데, 그 당시 기존 진주지부 회원들이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가고 해서 흩어져서... 산청간디학교에 있던 회원이 진주에 와서 모임을 같이 하는 등 진주지부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는 있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이어지긴 힘들었다.

지부가 없어져서 의욕이 안 나는 측면도 있었지만, 예전부터 때가 되면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다. 사실 나는 청소년이란 집단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청소년으로서 겪은 여러 가지 것들이 부당해서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의 의미가 이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대 초반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이었다. 청소년 집단이라는 소수자 집단이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건 아니었다. 아수나로를 만들었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흔쾌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년 동안 해보고, 그 뒤로 그만둔다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다.

나는 원래도 환경운동으로 사회운동에 입문을 했고, 2007년부터 그 분야의 연구자가 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환경 관련된 세미나를 좀 열심히 했다. 특히 2008년부터 대학원 진학 등 진로에 관련돼서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Q. 그만둔 이후 아수나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나?

무직인꿈틀이 : 그만둔 이후에도 했던 게, 2009년에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ㄱㄱ》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니까 독후감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열게 됐다.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 분들이나 모임들과 아수나로가 그런 형식으로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외엔 네이버 카페에 재미있는 기사 올리는 정도? 뭐 그런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내가 정기후원 신청서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나중에 사정이 되면 다시 해야지.

초기 주축 멤버들이 나가고 나서 완전히 발을 끊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더 우호적인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특별히 더 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총회에 옵저버로 참여한 적은 있는데 그건 공현이 감옥에 갈 때쯤이라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 차원에서 간 것이다. 이후에 사람들이 진주지부를 만들려고 했을 때 두 번 정도 옵저버로 참여한 적은 있다. 협동조합형 북카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도 빌려주고 사람 수도 채워줄 겸 참여를 한 거지 활동회원으로 복귀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관련 활동이라면... 2011년에 경남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에는 잠깐 참여했었다. 아수나로 활동으로서 한 건 아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주민발의는 성공했는데, 도의회는 통과하지 못했다.

#### Q.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해달라. 아수나로 등 청소년인권운동이 자기 삶에 미친 영향은?

무직인꿈틀이 : 지금 본업은 시간강사 겸 프리랜서 통계분석가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큰 틀에서는 연구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사회운동의 활동가라기보다는 진보적인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의 삶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했던 건 긍정적인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혼련이라고 해야 되나?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협동이라는, 이념을 떠나서 현대 민주주의의 사

회에서 중요한 덕목에 대해 아수나로나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소양을 쌓았던 것 같다. 진보적인 사회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도 전반적으로 아수나로가 준 의미가 중요한 것 같다. 나이주의 비판에서부터, 인권 담론의 확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연구자가 된 것도, 원래 이론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이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별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사회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게 연구자가 되는 데도 많은 문제의식을 얻게 해준 것 같다.

#### Q. 10주년을 맞아서 해주고 싶은 말은?

무직인꿈틀이 : 크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사실. (웃음) 내가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공부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토대'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운동은 물적 토대를 청소년들로부터 직접 획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본소득이나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전업활동가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대처도 가능하지 않을까.

연구자로서 관심이 있는 게 칠레의 운동이 재밌는 게 2006년도에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 봉기했다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주력인 그룹이 대학생이 돼서 또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활동했더라. 그것과 관련해서 논문을 쓰려고 생각 중인데 언제 쓸지는 모르겠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물적 토대의 한계를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로 극복한다면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동료나 자기 조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주의 하에서 청소년 계층이 전업 활동가를 재생산할 수 없는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자본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김동욱(피엠) 인터뷰

인터뷰어: 공현, 타시아

2015년 11월 18일 부산 서면의 카페

### 의욕을 부채질해준 건 고등학교

**Q. 부산지부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부산지부가 만들어진 과정 등을 소개해달라.**

김동욱 : 오늘 만나러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부산지부가 2006년 12월 말인가 그때 처음 모임을 가졌더라. 나는 그때 있던 건 아니고 한 달쯤 지난 후에 처음 모임에 가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지부가 만들어진 과정은 잘 모르겠다. 열몇 명이 처음에 모여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데, 내가 갔을 때는 이미 한두 명밖에 안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해도 될까? 할까, 말까?'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다.

**Q. 부산지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김동욱 :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동했다. 처음에 울산지부 활동회원이었던 참살이가 부산지부에 와서 초창기에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휴가 처음부터 몇 년 동안 활동했다. 밤의마왕은 당시에 부산에서 처음 활동하다가 몇 개월 뒤에 창원지부를 만들어서 갔다. 그리고 장선경, 이 분은 다투음을 여러 번 바꿨는데, 반짝 등... 2008년 당시 고3이었는데 1년 동안 활동했고, 보랏빛도 2년 정도 같이 활동했고, 플라스틱, 마이러버, 천하, 완두, 중생대, 한글, 악령, 별빛, 봉어... 생각나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몇 개월 이상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다. 플라스틱, 참살이, 휴 말고는 모두 중고등학생이었다.

**Q. 본인이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김동욱 : 일단 내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지부에.(웃음) 아수나로 가입했던 건 서울지부에서 활동했던 '해밀'(※당시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회원) 때문이었다. 내가 중학교 때 좌파적인 사상이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 별로 특별히 활동이나 이런 걸 특별히 한 건 없었고 그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후원 좀 하고, 그냥 블로그에 글 좀 쓰고 이런 정도였는데, 해밀을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다. 해밀이 아수나로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서 가입했었는데 모임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가게 됐다.



**Q. 중학교 다니던 중에 활동을 시작한 것인가?**

김동욱 : 2006년에 중3이었고, 2007년 1월인가에 시작했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때에 시작한 것이다.

**Q. 처음 참여했을 때의 첫 인상은? 할까 말까 했는데 계속 활동하게 된 이유는?**

김동욱 :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해도 되나?’ 생각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면 하다가 흐지부지 될 테니까 일단 몇 번은 나와 보자 해서 몇 번 더 나와 보다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의욕이 나진 않았는데 진학한 고등학교가 의욕을 많이 불어넣어줬다. 이성 간에 손 잡으면 징계 먹이는 그런 학교였다. 연애편지라도 아니고 친구인 이성끼리 생일에 케이크를 줬다가 교내봉사인가 받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제일 컸던 건 소지품 검사였다. 당시에 2학년 선도부들이 와서 1학년들을 검사를 하곤 했는데 거기에 모욕감도 느꼈고. 그리고 2007년에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집회를 서울에서 한다고 해서, 집에는 도서관에 간다고 빵 치고 아침에 기차 타고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때가 살면서 첫 집회 참가였는데 인상 깊었다.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가 나를 부채질한 것과 더불어, 그게 계속 활동하게 된 이유였다.

**Q. 그러면 학교 안에서 활동도 해봤나?**

김동욱 : ‘학교 안에서 내가 뭐 한 게 없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 많더라. 학교 안에서 뭘 하긴 했다. 학교 축제에서 같이 활동하자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런데 어떻게 생부에 걸리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아수나로로 데려가 보려고도 했고, 집회 같은 거 준비할 때도 같이 했던 적은 있다.

**Q.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은 아수나로에 계속 남았나?**

김동욱 : 몇 달 안 있었다. 잘 안 되더라. (웃음)

**기억에 남는 건 추모집회와 학생인권조례****Q. 부산지부와 서울지부에서 활동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김동욱 : 2007년에 부산에서는 ‘오리걸음’ 체벌을 받다가 사망한 학생을 추모하는 집회를 했었다. 그게 인상이 많이 남았다. 사진 자체도 충격적이었고, 집회를 기획해서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서울에 간 건 2010년인데,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일까? 당시에 인천 송도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느라 좀 힘들었다. 주민발의 운동은 아무래도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들었다. 나는 서명지를 찢어버리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욕을 하거나 이런 거 왜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은 있었다. 몸도 피곤하고 또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가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받아야 하는 거니까 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남산에서 놀러온 사람들 대상으

로 했을 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잘 해줬다. 그 뒤에 우울증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농성할 때나 통과될 때는 전혀 신경을 못 썼었다.

**Q.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본 활동은 있는지? 아니면 도중에 었어진 기획 중에서 아쉬웠던 것.**

김동욱 : 서울지부에서 교육담론팀이라는 것을 했다. 교육담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글 한두 번 쓰고 었어졌다. ‘수월성 교육’ 등의 주제로 청소년운동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해보려고 했는데, 두 주제 하고서 끝났던가? 그래서 좀 아쉬웠다.

**Q. 부산과 서울, 두 지역에서 활동해봤는데, 지역 간의 차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같은 것을 느낀 점이 있는가?**

김동욱 :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부산에는 청소년일 때 있었고, 서울에는 비청소년일 때 있던 것이라서, 지역의 차이인지 내 조건의 차이인지, 섞여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등갓길에 홍보를 하고 했지만 부산에 있을 때는 내가 학생이라서 그런 활동이 불가능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말하면, 환경의 차이? 일단 서울에는 다른 단체들이 많잖나. 다른 단체들도 많고 공간을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부산에서는 모임 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뭔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꼭 사람이 적어서만이 아니라 주변의 아는 단체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력이 안 되는데, 서울에서 뭔가 의제가 생기면 그걸 따라가야 하는 부담감이나 벽참도 좀 있었던 같다. 그 외에는 뭐, 총회 장소도 매년 여러 지역을 돌아가면서 해서 총회 참가 등에 장소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없었다.

## 많이 성장했다

**Q. 활동했던 때와 비교해서, 바뀐 점이 있는가?**

김동욱 : 지금 아수나로 후원회원으로 있으니까 공급 내역을 매월 받아본다. 보면 수입과 지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보인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일 년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규모다. 그래서 많이 성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재정 규모가 있어야 활동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Q. 활동을 지켜보고 눈에 띄게 변화했다 할 만한 건 없나?**

김동욱 : 잘 지켜보긴 했나...? 가끔 들어가서 카페 글이나 활동가들의 글, 페이스북 같은 것도 보고 한다.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기도 하고. 자주 보진 않는다. 얼마 전에 부산지부에서 나이주의 주제로 자리를 마련한다기에 가볼까 말까 하다가, 가도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갔다.

**Q. 전에 아수나로에 “자본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청소년운동”이 돼야 한다고 글쓴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웃음)**

김동욱 :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꺼내니까 말해보자면. (웃음) 공현이 <전교조>에 관련해서 그 많이 회자된 칼럼(“맘 편히 욕할 수 있는 조건”(한겨레신문 2014.07.13.)을 말한다.)을 읽었을 때도 여전히 그런 부

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Q. 지금도 부산시 주민인데 부산의 학생인권 현실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김동욱 :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부산에서도 좀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동생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 보면 방학 때 학교에 나가야 되긴 했지만 방학 때는 머리에 파마를 해도 별 상관이 없었고, 학기 중에도 그렇게 두발규제가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다닌 학교는 안 그랬는데... 부산 안에서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각자의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한 이 슈로만 집중하기는 어렵단 생각이 든다.

**아수나로 로고 디자이너, 일명 '아짱'을 만든 사람**

**Q. 아수나로 로고, 일명 '아짱'을 디자인한 사람인데, 계속 쓰이는 걸 보면 어떤가?**

김동욱 : 그거 만든 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였나 시험 볼 때였다. 체육이었나, 빨리 풀고 잘 수 있는 과목을 볼 때, 잠은 안 오고 시간은 남고 그래서 시험지 뒷면에 끄적이다가 한 10분, 15분만에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인데 계속 써주니까 고맙다. 나는 지금 활동은 안 하지만 그런 흔적이 남아 있구나. 고마운 마음 그런 것이 많이 든다.

**Q. 원래 디자인을 좀 했는지?**

김동욱 :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웹디자인을 공부했다. 하지만 웹디자인이랑 로고는 관계는 없긴 한데... 두 개가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닌가? 디자인은 잘 못한다.

**Q. 지금 대문도 만들었지 않나?**

김동욱 : 내가 한 거긴 한데, 너무 엉망이니까 제발 얼른 바꿔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활동을 언제 왜 그만뒀는지, 그만둔 후에는 아수나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궁금하다.**

김동욱 : 좋게 끝난 것 같진 않아서...(웃음) 그 무렵의 내가 썼던 카페 글들을 찾아서 링크하고 읽어보고 왔었는데, 일단 간단히 말하면 좀 활동 방식에 대한 이견이 생겼다. 그런데 내 의견에 아수나로 안에서 사람들이 동의해주진 않았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할 것인가, 다른 운동을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것을 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청소년운동을 아예 그만둘 생각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우울증도 겹치고 이래저래 사정상, 그 이후에는 안 하게 됐다. 2011년 하반기 정도였다.

나간 이후에도 후원은 계속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후원금도 좀 늘리겠다.

**Q. 후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좋게 나갔다는 것 아닌가? (웃음) 그 외에 아수나로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하는지?**

김동욱 : 예전에 레드북스인가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출판기념회> 이럴 때도 연락이 와서 갔었다. 그 외에는 아수나로 출신이나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많이 있다. 부산지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했다. 반짝과는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다.

**Q.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수나로 등 청소년운동을 한 것이 자신의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달라.**

김동욱 : 의외의 이야기지만, 내가 교사가 되기로 한 것도 아수나로 때문이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교사가 될지 말지 고민 중이지만, 교대에 진학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수나로 활동의 영향이 있었다. 그 당시에 도대체 내가 왜 그랬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보자면 처음에는 그냥 한국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것 때문에 프랑스로 가고 싶어서 프랑스어 배우자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갔다. 내가 진짜 별 생각이 없었구나. 지금은 프랑스어를 거의 못한다. 그런 걸 보면 외고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수나로에서 특목고, 자사고 폐지 운동을 할 생각은 없나? (웃음)

그런데 아수나로 활동하면서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뭘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좀 괜찮은 교사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다.

지금 활동하는 <노동자연대> 안에서는,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인권 등에 대한 의식은 괜찮다고 느낀다. <노동자연대> 활동에 관해서는 아수나로 활동의 경험이 무슨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외에는 중요하게는, 아수나로 활동을 안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입 좌파’? 이런 것이 뻤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스스로도 좀 더 급진화될 수 있었고, 활동을 경험해볼 수도 있었고. 활동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다. 그런 게 고마운 부분 같다.

**Q. 마지막으로, 10주년을 맞은 아수나로에 메시지를 준다면?**

김동욱 : 몇 달 전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아수나로 서울지부에 사람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라며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걱정하더라.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나는 아수나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한다. 아수나로의 운동 방향에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웃음) 단체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청소년운동이 늘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학교의 억압도 심하고 청소년들도 굴레에 많이 매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끈기나 인내? 뭐라고 표현해야 좋지? 하다보면 잘 될 거라고,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싶다.

## 아수나로가 고향 같은 사람

- 세안세다 인터뷰

난다, 영서

2015년 11월 27일 서울 흑석동 터방내

### 처음 해본 활동은 <인천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

Q. 아수나로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세안세다 : 2009년 용산 참사가 내게는 굉장히 큰 일로 다가왔다. 그 이후에 용산 참사 국민법정에 갔었는데 청소년 판사로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발칙’이란 분이 오셨다. 그 때 처음 아수나로를 알게 되었고 궁금해서 검색해봤다. 아수나로 카페에 들어 가보니 다음 주에 수원에서 총회를 한다는 공지가 있었다. 수원이면 인천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가보게 됐다. 사실 그 당시에는 총회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다. 인천지부 활동이 없어서 휴면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에서 활동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없어지는 것보단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뭘 해보죠” 하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난다 : 총회에서 세안세다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난다. 처음 보는 회원이었는데 세안세다라고 자기 소개를 했던 것 같다. 누군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까 수줍어하는 말투로 설명해줬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영서 :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난다 : 되게 멋있었다.

세안세다 : 하하하하

**Q. 세안세다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천지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지부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세안세다 : 처음에 어려웠던 건 함께 결정하는 문화, 별칭을 쓰며 나이에 관계없이 반말하든 문화 등이었다. 내가 경험한 세계가 아니었으니까. 스스로가 아수나로의 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오랫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왔고,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나이에 따른 예의에도 익숙했다. 처음에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 싶었다.

처음 해 본 사업은 <인천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였다. 설문지를 만들어야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도서관에서 설문조사 방법론 같은 책을 빌려서 읽어보면서 만들었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누군가 알려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게 되었다. 아쉬웠던 건 <인천학생회연합>과 같이 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후속 활동으로 이어나가지도 못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도 하고 아수나로 활동을 해서 힘든 점도 있었다. 야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새벽에 자고 다시 학교에 가는 삶의 패턴이라 잠도 많이 부족했다.

**Q. 지리적 위치, 열악한 학생인권상황 등 인천지역만의 특징이 있기도 하다. 활동을 할 때 이런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세안세다 : 기자회견을 하는 데 기자가 아무도 안 온 적도 있다. 결국 활동가들끼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서울에는 청소년인권활동을 함께 하는 연대체도 있고, 학생인권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위나 주체가 많다. 하지만 인천에는 함께 이야기 할 주체들이 비교적 없었다. 감수성의 결을 나눌 비청소년 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가 많이 없었다. 나름대로 청소년인권에 대해 공감하는 몇몇 이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함께했던 경험이 없다. 그런 지점에서 많이 열악했던 것 같다. 한편으로 지부 내에서의 어려움도 있었다. 서울에는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보였지만 인천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회원도 많지 않았고 구성원이 너무 빨리 바뀌었다. 사람들이 서울로 자꾸 빠져나가기도 했다.

### 학생회 활동과 아수나로 활동 사이, 청소년과 비청소년 사이

**Q.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도 함께 했다. 아수나로 활동도 하고, 학생회도 하면서 겪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세안세다 : 2011년에 당시 교육감 후보들이랑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한 협약식을 했다. 인천, 경기, 서울의 교육감 후보들인 이청연, 김상곤, 박노현이 나왔다. 거기에 참여했는데 동아일보 2면에 실렸다.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학생부실에 전화가 갔다. 사진을 보아하니 학생회장 얼굴이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너 여기에 갔냐?”라고 했다. “네, 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야 동아일보 2면에 나온 건 엄청난 거니까 스크랩 해놔.” 라고 하더라. (웃음)

또 인천에서 10대 명문고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학생자치가

망가지는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축구부, 농구부 같은 동아리를 자르고 로봇공학부 같은 걸 한다는 지. 그러다 몇몇 학교 학생회장들이 모여 '10대 명문고 선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말하게 될 자리가 생겼다. 그때 그 사람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 다음날 교무실에 불려갔다. 그럴 때도 잘 될 뻔 했지만 어려웠던 게, 권위가 무서워서 언론에 노출되고 일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다.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용인 받을 정도만 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런 점들이 아쉬웠던 것 같다.

#### Q. 아수나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

세안세다 :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건 가장 처음 했던 서명운동 캠페인이다. 하기 전부터 너무 설레서 들뻤다. 그래서 홍보물도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준비해갔다. 학교 친구들한테 서명운동 할 거니까 놀러오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로 놀러왔다. 친언니도 친구들과 놀러왔었다. 그만큼 내게는 설레고 신나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게 강렬하게 느껴졌다.

#### Q. 아쉬웠던 활동이 있다면?

세안세다 : 아쉬웠던 건 인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무마하려고 들어갔던 네트워크 회의다. 서울이랑 경기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인천에는 아직 없다. 그리고 당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는 안 만들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다.

난다 : 학생인권 요구하니까 교사랑 학부모 인권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여러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들을 추진했었다. 교육공동체조례, 학교조례, 그냥 현장으로 때우려는 시도도 있었고. 인천의 경우도 전형적인 '유사' 학생인권조례였다.

세안세다 : 그 네트워크 회의에 결합했는데 뭔가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아 아쉽다. 그때가 내 개인적으로도 비청소년/청소년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활동을 오래 하면서부터는 뒷수습을 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수능 끝날 때까지 쉰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하게 기자회견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대학교에 입학하고 2학기 즈음까지 아수나로 활동을 했었는데... 내가 스무 살이 되었으니까 비청소년들의 세계에선 나이가 어린 편이라 어린 애가 뭘 하겠냐는 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청소년운동의 세계에서는 나이와 경험이 많은 편이라서 뭘가를 수습하는 역할이 되어야 했던 것 같다.

####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스스로 선택한 경험들의 소중함

##### Q. 만약 아수나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수나로가 본인의 삶에 끼친 영향이 궁금하다.

세안세다 : 정말 많이 다를 것 같다. 나는 그때 아수나로의 경험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어떤 포기를 하면서 선택한 첫 번째 경험인 것 같다. 고등학교 다닐 때, 활동을 하며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2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100등 넘게 떨어져서 선생님 다섯 명한테 불려 다녔다. 집에 혹시 부도가 났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 때 나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다. "선생님, 성적 잘 나올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 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괜찮다는 위안이 됐다. 성적은 많이 떨어졌지만 아수나로도, 학생회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해보았던 경험이 나에게 크게 남아있다.

또 아수나로 활동하면서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학교 안에서 만들었던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고등학교 친구가 학교에 놀러갔더니 우리가 만들었던 학생회 게시판이 그게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1년 동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학교를 만들지 슬로건이 있고, 공약들과 실행 상황,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이 게시판에 그대로 있었다. 그때 만들었던 학생회 문화들이 다 남아있다는 것, 그게 너무 신기했다. 우리가 ‘학생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했다. 당시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기획서를 내니까 그럼 ‘안 보이게 주차장에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주차장에서 사비 털어서 비요프 사주고 영상도 만들고... 그런데 그게 작년에 지역 언론에 <인천여고 학생의날 행사>라고 뻤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저항하자!” 이런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약간 빼빼로데이 같아졌지만. 신기한 경험이었다.

청소년운동 할 때 들었던 생각들 중에, 당장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과연 뭔가가 바뀌고 있기는 한가 싶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지금 당장 미미해보이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 경험들이 다채로워서 지금 일을 할 때도 안 해본 게 별로 없다.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하고 싶구나, 생각이 드는 것도 해봐서 아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잘 몰랐을 것 같다. 활동 안했으면 난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우리 부모님이나 주어진 환경이 강압적이진 않았지만, 나는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익숙했던 사람이었다. 한 번도 그 밖으로 벗어나보지 않았다. 그 안을 벗어나고 무언가를 선택해나가는 삶은 아수나로를 시작했던 그 순간이 시작이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 그래도 아수나로

**Q. 아수나로 활동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눈에 띄는 게 있다.**

세안제다 : 사람들 반응 보는 걸 열심히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용이 올라오면 그 글보다는 사람들 반응을 보는 편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더라. 최근에는 한글날 논평이 재미있었다. 안전한 것보다 욕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웃음)

**Q. 현재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세안제다 :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나는 아수나로 활동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행복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었다. 지금 아수나로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좀 더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다면 할 때도 있다. 《요즘것들》 신문도 e-book으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던지 그런 상상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어, 나도 아수나로야~ 아수나로 했었어~”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참 좋고 재미있다. 예전에 어느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수나로 활동을 잠깐 하셨던 분이였다. 그 때 굉장히 반가웠



다. 또 다른 곳에서 우연히 만난 분은 본인 가족이 체벌 사건을 겪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어딘가에서 계속 연결되고 만나는 경험이 되게 좋았다. 아수나로는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다.

## 구경하러 갔다가 7년을 활동한

- 포알 인터뷰

인터뷰어 : 타시아

2015년 11월 29일 경남 창원 마산시의버스터미널 카페

**Q. 아수나로 창원지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창원지부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준다면?**

포알 :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다른 동지들을 통해서 '집회에서 청소년단체를 봤다'. '서울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신기한 단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창원에 지부가 만들어진다는 걸 전해 듣게 되었다.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며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첫 모임 때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는 '경남중부지부'라는 이름이었고 첫 모임 때는 4~5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주도하고 있던 '밤의마왕'이라는 활동가를 빼고는 다들 그냥 보러온 상황이었던 것 같다.

**Q. 아수나로나 경남중부지부에 대한 첫 인상은 어땠는지?**

포알 : 신기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같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압적인 공간인 학교와 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흔히 20살이 넘어서 좀 더 쉽게 활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청소년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 안타까웠다. 운동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같이 활동하는 청소년활동가 분들은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Q. 비교적 많은 나이에 청소년운동을 시작했다. 아수나로 활동을 왜 시작했고 어떤 걸 기대했나?**

포알 : 사실 의도와 상관없이 시작했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 간 거였다. 그런데 활동가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했다. 아수나로는 모두가 동등한 활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니 누군가가 도우미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활동회원으로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사범대를 다녔기 때문에 교육의제에 아예 관심이 없지는 않았다. 아수나로가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사자들이 자기 고민과 자기 위치에서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그러기엔 너무 힘들었고 특히 '지방'에서는 더더욱 어려웠다.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다가 계속 바뀌니 지부의 존속 자체가 어려웠다. 창원이라는 도시는 노동운동 말고는 운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도시이기에 어렵게 만들어진 아수나로 지부라는 공간이 소중했고 없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7년씩이나 하게 됐다. 솔직히 서울 같은 환경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

최근에 창원지부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멘붕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역지로 잡고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운동이 생겨날 거란 생각도 한다. 활동을 할 때에는 너무 내 몫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 힘을 쏟은 것이 실패해온, 아쉬운 역사들

**Q. 창원지부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다. 주로 했던 활동이나 기억나는 일 등을 이야기해 달라.**

포알 : 크게 3개 정도였고 그밖에는 일상적인 활동들이었다. 첫 번째가 학내 시위를 준비한 거다. 2008년 촛불시위 시기에, 밤의마왕이 학교에서 부학생회장을 맡고 그러면서 학교 교칙을 바꾸는 문제로 학내 투쟁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막판에 걸려서 결국 촛불시위는 못하고 우리가 학교 입구에서 피켓팅만 했다. 그때 처음 시위를 준비하면서 긴장과 기대와 불안이 막 몰아쳤었다. 그렇게 촛불시위가 무산이 되서 학생 수만큼 다 사났던 초를 못 써서 한참을 썩혔다.(웃음) 그때 촛불시위도 끝물이어서 몇 년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촛불시위 때 아수나로 창원지부 이름으로 기증했었다.

두 번째는 창원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자 분이 청소년인권 문제로 같이 활동해보고 싶다고 아수나로를 찾아오셔서 1년 동안 학내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 그 학교에서 한 분 더 결합해서 학교에서 두 명과 창원지부 전체가 1년 동안 달라붙어서 학내 사업을 쫓 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토론하고 학내 소식지도 만들고, 교칙 개정 운동도 하고 했는데 막판에 이걸 수면 위로 올리냐 마냐 했을 때 그 학생회장 분이 잠수를 타셨다. 정말 힘드셨던 건 이해하지만 1년 동안 준비했던 차에 잠수를 타셔서 다들 정말로 힘들어 했다. 그래도 이 활동 덕분에 '호밀밭의파수꾼'이 아수나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성과였다. 학생회장 외에 한 명 더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호밀밭의파수꾼이었다.

이렇게 창원지부가 크게 학내 운동을 준비했던 게 두 번이었는데 둘 다 망했다. 학내 주체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다. 밤의마왕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의 동의를 많이 못 이끌어내고 학교에 걸리고 그러면서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된 상황이 힘들었다. 두 번째는 잘 진행해갔지만 막판에 당사자가 지쳐버리니까 잘되지 않았다. 너무 아쉽다.

**Q. 경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도 있었다.**

포알 : 그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마지막 세 번째이다. 그때 아수나로 창원지부는 청소년 서명을 받았다. 선거권자가 아닌 청소년 당사자들의 서명은 주민발의에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조례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과정이 다른 지역과 좀 달랐다. 경남은 운동세력이 꽤 힘이 있는 지역인 반면 청소년단체의 힘이 작고 몇 명 안 되다보니, 처음에는 다른 운동단체들끼리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준비하다가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때서야 우릴 불렀던 거다. 그러다보니 단체들 내부에서 나름 많은 고민을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를 두고도 창원지부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그래도 통과된 다음에 바뀌나갈 수도 있으니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참여하게 되었다. 아수나로가 제한적인 부분들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발의에 포함 안 되는 청소년 서명을 받는 것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서 탐탁지 않아 하다 보니 갈등도 많았다. 그래도 어쨌든 독자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가 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도의회에서 좌절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해도 안 된다는 좌절이 더 커진 면도 있다.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계속 서명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라서, 다음 서명을 받을 때부터는 참여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기도 했다. 창원지부의 역사는 에너지를 쏟던 것들이 실패하는 역사였던 것 같다.

#### Q. 아수나로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겪은 문제 등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포알 : 나는 나이가 큰 고민이긴 했었는데 오히려 창원지부 안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내 착각이었나?(웃음) 일부러 저 자신이 의식해서 제가 주도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어쩔 수 없는 나이에 따라 생기는 경계도 같이 활동하면서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창원지부 안에서는 나이 위계에 따른 권력, 또는 그런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다른 지부 활동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더 컸던 것 같다. 창원지부가 다른 지부와 다르게 움직일 때마다 오해가 생겼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오래 활동한 활동가는 나이가 많은 활동가가 된다. 오래 활동하다보면 좀 더 권위 있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이 때문인지 활동의 경험 때문인지 애매해지는 게 생긴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활동에 대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 스스로도 나이를 의식하고 편견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들을 어쨌든 좀 없애가고 싶었는데 아수나로 전체 측면에서는 별로 잘하진 못했던 것 같다. 자주 만날 수 없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창원지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 활동을 했지만 좋지 않았다 싶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도 있다. 활동을 그만둘 때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

난 원래 사람들에게 반말을 잘 안하는 편이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도 해서 나이주의 반대 운동에 대한 반감은 없었다. 그런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반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운동사회 속에서도 나이에 의한 위계질서가 많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나이주의 반대 논의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운동의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한 칼날로만 그치는 것도 같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건 맞지만 같이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길게 보며 고쳐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문제적 인간이 되며 여지가 사라지는 상황도 자주 있는 것 같다.

### 시작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Q. 10주년을 맞이한 아수나로 활동을 지금 지켜보면서, 자신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때에 비해 눈에 띄게 변화한 점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포알 : 하나의 운동단체로 자리 잡은 게 가장 큰 것 같다. 전체 사업을 통해 이슈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사업으로 만들어나가며 청소년운동이 하나의 영역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다만 이걸 '지방'에서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 과제인 것 같다.

한편으로 보면 왜 확확 확대되지 않을까 고민이 든다.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같은 활동에 많이 참여하시는 청소년 분들이 있는데 아수나로는 이런 분들과 연결지점을 잘 못 잡는 것 같다. 이슈를 먼저 제기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나 내용에 빠르게 발맞춰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한 것 같다.

**Q.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해 달라. 청소년인권운동이 자기 삶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포알 : 나는 일하면서 정치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사라졌지만, 창원은 아직 남아있는 <창원 안녕들 하십니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도 같이 하고, 노동 개악 같은 이슈들도 같이 다루면서 청소년들, 대학생들과, 같이 학습하고 활동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대학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접했는데 졸업하면서 운동을 계속할 결의를 하지 못했다.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고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었다. 그런데 아수나로 활동을 하면서 다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과거 운동을 했을 때는 인권이라는 문제가 별로 큰 비중이 아니었다. 아수나로를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새로운 운동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특히 아수나로에서는 매우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다. 운영도 그렇고 활동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Q. 10주년을 맞은 아수나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포알 :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수나로가 청소년 스스로 자기 해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시간 내기 쉽지 않은 청소년들이 활동하려고 나온 것 자체만으로 그들을 더 많이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과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분들이 소극적이거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고 결정이고 고민인데 그런 것들이

밀리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다. 한 명 한 명을 서로 잘 챙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활동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든다.

그리고 청소년운동이라는 게 운동 중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시작은 청소년운동으로 하지만, 운동과 고민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밀양에서 활동하면 청소년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송전탑도 자신의 문제이고, 창원 활동가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게 고민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해고 문제가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다.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게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종착점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청소년이라서 청소년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난 아수나로가 청소년 의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주된 활동이나 실천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이긴 하지만 토론 모임 등을 할 때는 여러 사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시작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 아수나로의 청소년 활동가들

- 밀루, 쩡쨡 인터뷰

인터뷰어 : 영서

2015년 12월 28일 서울 토프레스 증산벚꽃길점

### 나도 학생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Q. 아수나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쩡쩡 : 예전부터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참여할 방법을 못 찾고 있었다. 집회 등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방법은 잘 몰랐다. 여하간 참여한 주된 이유는 학교 두발규제 때문이었다. 대전에 살고 있는데,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두발규제는 옛날에 없어진 건 줄만 알았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머리를 아주 짧게 잘라야만 했었다. 너무 끔찍했다. 학교에 건의를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며 알아보다가 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 인권운동 등을 알게 되었다. 아수나로도 그 때 처음 알게 되었다. 내가 찾아본 정보와 논리를 근거로 교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에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1학년 때는 비교적 두발규제가 덜 심했다. 하지만 2학년 때 생활지도부장 교사가 바뀌면서 두발규제가 더 심해졌다. 결국 너무 화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수나로 활동도 결심하게 되었다.

밀루 : 나는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다. 광주에 살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말, 그러니까 2011년 말에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화제가 되었다.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체벌이 없어도 수업시간에 꿀밤도 못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학생인권’이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속옷도 흰색만 입어야하는 등 규정이 심했다. 수업시간에 갑자기 교칙을 잘 지키는 학생을 일으켜 세워서 다른 학생들에게 구경시키는 일들도 있었다. 그런 일들이 부자연스럽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도 학생이 소수자라거나 인권침해를 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쩡쩡 : 맞다. 나도 학생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밀루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 교장이 방송에서 “우리는 규칙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 학기에 규정이 딱 하나 바뀌었다. 양말을 흰색만 신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겼음에도 효력이 없어서 다들 실망했다. 그렇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 말, 증3때 진로캠프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진로캠프를 가장한 인권캠프였다. 장애인, 여성, 환경, 청소년 4가지 파트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됐다. 나는 장애 파트 수업을 들었는데 강사 분이 아수나로의 후원회원이었다. 수업이 끝날 때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만들었던 '학생의 날 신문'을 받아서 친구들이랑 읽었다. 신문에 나왔던 선거권 연령 인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 자치 현실을 비꼬는 면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 신문 뒷면에 발행처가 <전교조>와 아수나로라고 되어있었다.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사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해서 <전교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아 여기는 <전교조>와 관련이 있고,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구나. 나도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 Q. 청소년인 상황에서 아수나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짱짱 : 아수나로는 사실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운 단체다. 나는 집이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집이 엄했다면 활동을 못했을 것 같다. 실제로 통금시간이나 부모의 간섭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면, 아수나로 밖에서는 청소년들이 비청소년과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비청소년 활동가들을 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밀루 : 일제고사 반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처럼 내가 겪지 않은 굵직한 활동들이 많다. 그 이야기들에 끼지 못하니까 어렵듯이 힘들었겠다는 느낌만 든다.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부담감이 들기도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회에서 또래들을 만났고 어떠한 세력이 생겼다. 93년생 활동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내 또래 활동가들이 없다. 청소년인 활동가들의 나이를 헤아려보면 동갑인 활동가들이 거의 없다. 같은 나이별로 보통 한두 명씩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1년마다 삶이 크게 바뀌기에 또래가 많은 건 중요하다. 그래서 93년생들의 대학입시거부가 가능했던 것 같고 부럽기도 하다.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하다. 학교 다닐 때도 다른 학생들과 잘 못 어울리고 대중적인 문화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 성격을 바꿔야 하나 싶기도 했다.(웃음)

#### 아수나로 활동의 진입 장벽은?

Q. 아수나로 회원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운동을 할 때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는지?

짱짱 : 고통스러웠다. 결국엔 학교를 그만뒀다.

밀루 : 나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아수나로 모임이나 행사에 갈 때도 "인권강연 들으러 간다."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숨겼다. 이야기해봤자 "왜 그런 걸 하나.",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소리만 듣게 될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었다. 그럴수록 가족을 설득하는 건 더 힘들어질 테니까. 한 번은 내가 아수나로 모임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동생에게서 패륜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외에도 집 안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많이 당했고 결국은 탈가정을 했다.



**Q. 나이에 따른 호칭을 쓰지 않는 점, 모두가 평등한 회원 구조 등 아수나로만의 문화가 있는데, 처음에 당황하거나 놀란 적은 없는가?**

밀루 :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임에 갔는데 청소년이 나 말고 한 명도 없어서 당황했다. 대학생들이 대학교 이야기 하고 있고, 몇 살처럼 보이냐고 해서 23살처럼 보인다고 하니깐 기뻐하고...(웃음)

처음 거리캠페인을 할 때 내가 지나가는 어린이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고, 내 또래인 활동가를 처음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고 싶어서 나이를 물어봤다.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아서 “고등학생이시겠네요”라고 말하니깐 당황스러워 했다. “언니!”라고 말하니깐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활동가가 아수나로에서는 서로 합의한 후에 반말을 한다고 설명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회원과 모임에 왔는데 그 회원이 나에게 언니라고 불렀다. 그때 나 말고도 다른 활동회원들에게도 ‘언니, 오빠’라고 불러서 문제제기를 받았는데 그때도 잘 납득이 안 갔다. 학교에서부터 거리낌 없이 쓴 호칭이니깐. 한 번은 아수나로 단체 카톡방에 “형, 누나,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없애버리는 건 아깝지 않을까요?”라고 썼었다.(웃음) 다른 활동회원들이 비꼬면서 장난으로 서로를 형, 누나라고 불렀다. 나를 웃음거리로 삼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뭔가 설명해주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짱짱 : 모임 처음 나왔을 때는 청소년이 많았다. 제가 ‘형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들 표정이 굳으면서 “아수나로에서는 형, 누나, 언니, 오빠 호칭을 안 써요.”라고만 설명해주었다. 그때 그만 둘 뻔 했다.(웃음) 사실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나를 우겨넣었다. 듣는 입장에서도 불쾌하거나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Q. 앞으로 아수나로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짱짱 : 대중조직을 꾸리고 싶다. 지금의 아수나로는 돈도 없을뿐더러, 청소년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 <전교조>를 보면 전체 교사 중에 가입 비율이 높고 조합비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청소년운동에서도 그 정도로 대중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다.

밀루 : 아수나로를 만들고 싶다. 무라카미 류의 소설 《엑소더스》에 청소년들이 만든 인터넷방송이자 조직 이름이 ‘아수나로’이고, 나중에는 자치도시를 세운다. 그런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청소년언론이다. 지금 아수나로에서 내고 있는 청소년신문 《요즘것들》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역량이나 지면 때문에 한정되는 것 같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주제는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문화는 비청소년들을 따라하는 것으로만 비취진다. 때로는 ‘이것은 청소년들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배척당하고, 문화 콘텐츠들도 비청소년 중심으로 되어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소비하고 생산하는 문화를 담은 대중적인 청소년언론을 만들고 싶다.

## 활동에서 얻은 불안과 위로

Q. 아수나로 활동을 안했다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 것 같은가? 아수나로가 여러분의 삶에 미친 영향을 말해 달라.

짱짱 :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외국어고등학교에 합격해서 기뻐했을 것 같다. (영서 : 떨어져서 슬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학교에서 두발규제만 없었다면, 많은 청소년이 그러듯이, 그냥 입시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학교에 다녔을 것 같다.

밀루 : 짱짱이는 외고에 갔어도 활동을 했을 거다. “학습시간만 줄었어도 활동을 안했을텐데...” 하면서.

짱짱 : 활동을 하며 삶이 많이 불안해졌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밀루 : 아수나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내 탓이 아니라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다. 학교폭력을 당했었는데 그 동안은 내가 활발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고, 내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활동을 하기 전부터 고등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동네 고등학교들을 보면 밤늦게까지 항상 불이 켜져 있었다. ‘저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하고 싶은 일은 언제 하는 걸까?’ 싶었다. 그게 너무 두려웠다. 더 나아가서 경쟁을 하고 대학을 가고, 생계를 부양하는 것도 큰 산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모두가 “고등학교는 꼭 가야 한다”, “다들 힘들어도 견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수나로는 유일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준 존재였다. 청소년도 사람이라는 위로를 받고, 어찌면 그래서 더 활동에 붙어있게 된 것 같기도 하다.

## 아수나로와 함께 늙어간 사람들

- 난다, 파이루, 윤쓰리, 빈둥 인터뷰

인터뷰어 : 영서

2015년 12월 6일 나뉘아지트

### 어쩌다 마주친 아수나로

Q. 아수나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빈둥 : 고3 때, 컴퓨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난 '인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다. 그러다가 아수나로 카페를 찾았고 가입했다. 마침 내가 사는 광주 지역에도 모임이 있어서 찾아가게 되었다. 첫 모임은 어떤 사업의 평가 회의였는데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서,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말하다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

윤쓰리 : 중학생 때, 내가 활동하던 가수 윤하 팬카페에 아수나로 집회 홍보글이 올라왔다. '2011년 사라진 학생인권을 찾는 실종신고' 집회였다. 그 집회에 가지는 않았지만 '와 이런 데도 있네. 괜찮다.' 하는 생각에 스크랩을 해놨었고 그 뒤로 한 달 쯤 뒤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니던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그 당시 한창 언론에서 학내 종교강요로 시끄러웠다. 학교에서 '환경수업'과 '종교수업' 중에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나눠주면서, "환경수업 신청하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랑 1:1 면담할 거야."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화나서 환경수업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일단 종교수업으로 신청했다. 그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아수나로가 생각났다. 아수나로 카페에 학교에서 있던 일을 썼는데 공현이 댓글로 "좀 차갑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걸 올린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라고 썼고, 루블릿이 "이런 글을 올리시기보다는 같이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해서 바로 활동회원 신청서를 내고 활동을 시작했다.

난다 : 중학생 때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인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나다>에서 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주최했던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라는 집회에 갔었다. 성남에 살았는데, 집회에 함께 갔던 성남 지역 사람들하고 계속 모이면서 모임을 만들었고, 아수나로에서 여는 행사나 집회에도 종종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고등학교 다니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해에 학교를 자퇴하면서 본격적

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파이루 : 활동을 시작한 건 2006년 여름쯤이었다. 학교에서 체벌하는 영어 교사가 너무 싫어서 네이버에 선생님 괴롭히는 법을 검색해봤다. 그러다가 아수나로 활동가의 블로그를 찾게 되었고 아수나로 카페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아수나로가 규모도 너무 작고 집회에 200~300명 정도밖에 안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 사람으로 될 할 수 있겠냐고 카페에 글을 썼더니 공현이 화나서 “그런 말이나 할 거면 모임이나 나오라.”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주 모임에 나갔다. 나도 그렇고 다들 네이버 검색으로 아수나로를 알게 되었으니, 네이버가 아수나로의 일등공신이였다.(웃음)

### 아수나로와 함께해온 변화

**Q. 모인 사람들이 5년 이상씩 활동했고, 대부분이 비청소년이다. 처음과 다르게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바뀐 것 같은지 이야기해달라. 아수나로가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빈둥 : 처음 활동할 때는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다.(웃음) 비청소년이 되면서 장난으로라도 늙은이 취급받는 게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청소년인권 감수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테면 말실수를 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려고 한다. 하지만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말은 예전부터 많았던 것 같다.

아수나로가 바뀐 점이라면, 2011년에 총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난 활동가들이 내가 여자라는 걸 보고 놀랐었다. 당시 아수나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추측했던 거다. 지금은 활동가들이 그러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인다. 아수나로의 문화나 제도 등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눠왔기 때문인 것 같다. 다만 논의의 분위기는 조금 딱딱해진 것 같다.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는 분위기가 깔려있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토론이 잘되지 않고 토론문화가 굳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새로운 활동가가 잘 유입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

난다 : 지금은 아수나로를 소개할 때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청소년, 10대들이 활동하는 단체’라는 느낌이 컸다. 당사자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내가 스무 살이 되고 나니 조금 혼란이 왔다. 갑자기 다른 활동가들이 이모나 할머니라고 놀리기 시작했다.(웃음) 돌이켜보면 내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청소년 회원들이 많았던 시기였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 반대 운동 등의 교육운동을 많이 했었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에 지금보다 더 큰 방점을 찍고 있었다. 지금은 회원들의 연령대가 훨씬 다양해졌다는 느낌이다. 많이 상향되었지만 어쨌든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20대가 되면 많이 그만뒀고, 30대 활동가는 한 명밖에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비청소년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단체가 커지면서 체계화되었다는 느낌도 든다. 지부 안에도 뉴페담당, 모임담당, 연락담당 등이 있고, 담당과 역할이 촘촘해졌다.

내 역할을 떠올려보면 예전에는 담당들을 많이 맡았는데, 요새는 담당을 많이 맡지는 않는 대신 다른 담당자인 활동가들을 쪼고 있다.(웃음) 예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기획하며 나서서 했다면

지금은 역사정리, 교육, 연구, 지원 등을 주로 하게 된 것 같다.

모히또 :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실무를 거의 맡지 않았다. 다른 활동회원들이 기획하는 활동에 조금씩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이를테면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반대 활동할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적용받는 대상자라서 일인시위를 했다. 그런데 장소 선정, 피켓 제작 등의 실무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나는 피켓 들고 서있는 식이었다. 지금은 실무 능력이 좋아졌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활동 되게 오래하셨네요.”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활동 초기에는 아수나로에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 나이 적은 활동회원들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몇 달 이상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반말이 튀어 나오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웃음)

아수나로가 바뀐 것은, 예전에는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전체공금담당도 잠수를 탔는데, 담당자가 통장 명의자이기도 해서 몇 달 동안 공금이 묶인 적도 있었다. 서울지부에서도 지금은 처음 상·하반기 초에 어떤 일에 집중할지 계획을 세우지만, 과거에는 “우리 이거 하자.” 하는 식으로 계속 감당 못 할 정도로 일을 벌이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체계화된 것 같다.

파이루 : 내 역할은 별로 바뀐 게 없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기획자적인 역할이었다. 다만 청소년이었을 때는, 당사자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나 의견을 요청받기도 했다. 2009년도에 고등학교 복학하고 촛불투쟁이 끝났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한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어떤 역할을 취할지 고민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대학입시거부선언도 생각했다. 20살이 넘고 그만두었던 활동가들도 많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모임 장소로 쓰곤 했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생기는 등 단체 시스템이나 실무에 있어서는 변화는 컸다. 확실히 더 많이 체계화된 느낌이다.

빈둥 : 처음 아수나로 모임에 갔을 땐 ‘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 지금은 지부나 팀 회의에서 안전을 확실하게 정하고 논의해나가는 게 보편화된 느낌이다.

파이루 :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부 간의 격차다. 서울지부는 그동안 구성원이 없어지거나 지부가 휴면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에 실무 경험을 쌓고 내부에서 정보와 인프라를 구축해 수 있었는데 지부들 중에는 구성원이 전부 바뀌거나, 휴면되었다가 다시 생겨난 곳이 많았고 지부 간에 격차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실무 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크게 생겼고 갈등의 원인이 된 것 같다.

난다 : 10주년 자료집을 고민할 때도 아수나로는 지부 단위로 활동을 해왔으니까 지부별로 역사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활동이 끊기는 지부가 많아서 의제별 활동 정리로 바꾸게 되었다. 아수나로의 변화를 따진다면 10주년을 맞아 바뀌는 게 가장 많지 않을까 싶다. 회원 구조 개편과 상근자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내부적인 변화가 클 것 같다.

**Q.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뭘 하게 되었을 것 같은가? 아수나로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빈둥 : 집을 나오지 않았을 듯하다. 아수나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쉽게 나의 선택을 결정하기 힘들었을 듯하다. 아마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까? 그러고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나는 망했네.” 이려고 있었을 거다.

난다 : 수능을 보고 대학도 갔을 것 같다. 아수나로가 자퇴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아수나로를 몰랐다면 계속 미루지 않았을까 싶다. 고1 때는 고민만 하다가 2학년 때 자퇴한 건데, 2학년 때도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냥 다니자는 심정에 졸업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식으로 계속했으면 수능까지 꾸역꾸역 봤을 거다.

빈둥 : 사실 지금도 꾸역꾸역 살고 있긴 하다. 다만 아수나로가 없었다면, 선택할 때 나의 고민을 덜 존중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대학은 나와야지 하는 말에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윤쓰리 : 부모랑 많이 싸우고 맞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탈가정 했을 때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고 난리치던 시절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부모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아수나로를 몰랐더라도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 같지는 않다. 수능 공부는 어떻게든 안하겠다고 싸웠거나, 아님 진짜 살아있지를 않거나. 어쨌든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그 공간에서는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아수나로가 집과 학교를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

파이루 : 아수나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을 거 같다. 요리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영양사인 누나와 진로를 같이 했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성직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 같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가지 않는 걸 엄청 큰 선택이라 하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그리 큰 선택이 아니었다. 다만 생각의 변화는 크다. 하고 싶은 일의 기준이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빈둥 : 파이루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분위기의 집이었다면, 나는 무조건 대학에 가야만 했다. 대학가기 싫다는 한마디만 꺼내도 부친이 밥상을 엮고, 내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다.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부친이 가정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말 듣게 하고 하는 걸 겪으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안에 계속 살았을 테니까 부친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변 활동가들이 보증금을 모으고 집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돈을 모아서 집을 나왔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내가 나로서 충실하게 살아보는 것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 같다.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다. 끔찍할 거 같다.

난다 : 활동이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다. 활동을 안 했다면 청소년이나 소수자의 이야기들이 잘 안 들렸을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끈기 있는 성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활동하면서 ‘이거 하나는 꼭 해내야지.’ 하며 오기가 생기는 순간들이 있었다.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아쉬움, 중요한 건 ‘노오력’

**Q.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 좋았던 순간, 아쉬웠던 순간들을 말해 달라.**

빈둥 : 2013년 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사건 이후 광주지부에 활동회원이 계속 유입되었다. 최대 15명이던 적도 있었다.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을 하다가 잘 안되었다. 팀 체제로 운영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되었는데, 피곤하기도 했고 내가 없어도 잘되겠지 하는 마음에 모임에 몇 번 안 나갔더니 그 사이에 다들 떨어져나가고 말았다. 물론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 챙겨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다시는 안 올 거 같은 순간이다.

따이루 : 2011년에 대학입시거부 선언을 하던 때가 가장 좋았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가장 막막함이 밀려 오던 시기였던 거 같다. 개인적으로도 10대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외부 정국도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대학입시거부 선언을 하면서 운동의 과제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도 있었다.

가장 아쉬웠던 활동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였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주민발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기도 했지만 피로도가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청소년 집단 안에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응을 잘 못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쓰리 : 2013년까지는 맘에 드는 활동도, 아쉬운 활동도 없었다. 잘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꽃히는 활동이 없었다. ‘그래도 다들 뭔가 하나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에 하다가 망하고 말았다. 최근을 생각해보면 아쉬웠던 건 2014년도에 했던 성폭력 사건 대책위다. ‘이때 이렇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가장 많이 든다. 가장 좋았던 활동은 2014년에 만든 ‘학생의 날 신문’ 2호다. 아수나로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을 처음으로 느꼈던 활동이었다.

난다 : 수원지부도 북적일 때가 있었는데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을 할 때였다.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하긴 힘들지만 전국적인 활동이었고, 재미있었다. 한 명이 의견을 던지면 그걸로 일이 착착 진행됐다.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쿵짝이 잘 맞았다. 아쉬웠던 활동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뿌리 내리기 팀’이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주년 활동, 지역 학생인권캠프 등을 준비했고 나름 재밌었던 활동이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캠프를 통한 조직화가 목표였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계획하던 캠페인도 무산되어서 아쉬움이 크다.

빈둥 : 학생인권조례 이야기하니까 아쉬운 일이 또 생각났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에 들어갔던 일이다. 자문위원들이 18명 정도 되었는데 교사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심지어 그 안에서도 교사들로만 이루어진 교사 TF팀까지 있었다. 학생참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원도 제대로 안 되었고 이마저도 나중엔 없어졌다. 당시 나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당사자로서 입시에 대한 분노만 있는 상황

에서 결합하다보니 다른 담론들을 놓쳤다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크다.

파이루 : 서울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세력화가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운동적 개입도 할 수 없었다. 그 기력을 제도화에 다 쏟아 부었다. 우리와 고민을 나누는 학생들의 그룹을 형성하는 데 더 힘을 썼어야 했다. 당사자의 세력이나 움직임이 부족하다보니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힘들다. 그건 광주도, 서울도,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을 설득하고 세력화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걸 잘 못했다는 아쉬움은 계속 든다. 학생인권조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쉬움이 크다.

#### Q. 앞으로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윤쓰리 :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이주의 담론에 관심이 많았다.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아수나로의 내부 문화가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나이주의 의제 활동을 많이 했지만 팀에 들어가면 정작 애착이 안 가고, 재미가 없고, 하기 싫고, 뭐해야할지 모르겠고, 회의 가면 앵그리버드가 재밌고...(웃음) 선불리 말하기가 애매하다.

난다 : 10주년 기념 후원행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후원행사에서 번 돈으로 반상근자를 두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활동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재정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빈둥 : 아수나로가 계속 살아남았으면 한다.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친구에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계속 물고 늘어지니 살짝이라도 바뀌더라고 하더라. 사회가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청소년 혐오'라는 말을 아직은 생소해한다. 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둔감한 거다. 그걸 최소한 인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할 단체가 아수나로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다. 그래서 아수나로가 남아있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파이루 : 청소년 중에서도 탈학교, 다문화, 빈곤계층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집단에 대한 세력화를 할 수 있는 단위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걸 청소년인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아수나로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이 세력화되었을 때 더 재밌고 진득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탈학교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경직된 교육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흐름 속에서 더 필요한 운동이지 않을까 싶다.

난다 : 파이루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가 생각이 든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수나로 회의에서 이야기해서 탈학교 팀이 만들어졌는데 한 반기도 못하고 사라졌다.

파이루 : 운동이든 뭐든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노오력'하면 된다. '노오력' 만큼 좋은 게 없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 기념자료집

어서피,  
르니,

하지만 망하지 않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백과사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은 아수나로와 그 역사에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정리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사전을 통해 아수나로의 운영과 활동과 역사에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사용되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다만 분량과 역량의 문제상, ‘두발자유’ 등 아수나로의 주장이나 청소년인권의 내용을 다루는 내용들은 거의 넣지 못했으며, 또 다듬을 수 있는 다른 단체들에 관한 내용은 넣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기로 한 단어들은 총 40개이다.

각 항의 분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하나의 항이 여러 개의 분류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조례이므로 법에 속하면서, 특정한 하나의 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만들려고 했거나 제정된 조례들을 통틀어서 학생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조례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용어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운동으로도 분류된다.

- ▲ 기념일 : 달력상의 특별한 날짜.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특별한 일을 하는 날.
- ▲ 도서 : 아수나로에서 만들거나 중요하게 참고한 책. 출간된 단행본이 아닌 문서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 ▲ 법 : 법률이나 조례 등의 공식적인 법. 아수나로가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운동에 주요하게 관련되었던 법들을 넣었다.
- ▲ 언론 :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으로 간행된 언론들. 뉴스, 소식지, 매거진이나 잡지, 월간지 등. 주로 아수나로가 만들었거나 아수나로 활동에 관련이 깊은 것들을 모았다.
- ▲ 용어 : 아수나로에서 널리 쓰는 개념이면서 청소년운동 전반에서, 또는 일반적으로도 확장해서 쓰일 수 있는 개념들을 ‘용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 ▲ 운영 : 아수나로의 운영이나 내부 사항에 관련된 항들.
- ▲ 기타 : 로고, 사무실 명칭 등 그 밖의 것들.

## 《1318 바이러스》(1318virus, 바이러스)

분류 : 언론

- ▶ 청소년 인터넷 언론. 2005년 창간되었다. 청소년에 관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이다.
-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언론매체사업부에서 시작되었고, 2005년에 별도의 인터넷 언론으로 정식 창간한 매체이다. 한때 <민중의소리>에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독립언론', '1318세대를 위한 매거진', '청소년대표언론' 등 다양한 수식어를 달았다.
- ▶ 창간 이후, 각종 학내 시위 사건이나 청소년운동 소식들을 보도하면서 청소년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다.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들도 있다. 또한 청소년인권에 대한 칼럼 등도 꾸준히 실었다. 당시 인터넷 매체들 중 비교했을 때 상위권의 독자 수를 확보했던 적도 있다.
- ▶ 2008년, 《바이러스》에서 학원 탐방 연속 기획 기사로 학원 광고 내용의 기사들을 게재하고 여기에서 학생들에 대한 감시, 휴대전화 수거, 심야 학습 등도 비판 없이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아수나로가 비판하는 의견서를 보냈던 적이 있다.
- ▶ 《저요, 할 말 있습니다》라는 책을 2007년 발간했다. 여기에는 바이러스에서 그동안 취재하고 전해온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더 살을 붙여서 담았다.

## 18세 선거권 (16·17세 선거권,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권 제한 연령 완화)

분류 : 용어 | 운동

- ▶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하자는 주장이나 운동. 혹은 16세나 17세, 그 밖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자는 비슷한 주장들. 어쨌건 선거권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을 낮추자는 것이다. '18세'부터가 청소년 운동과 연관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만18세부터 보통 말하는 '10대', '청소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고, 청소년운동에서는 2002년 대선 때 <낮추자> 모임에서 모의투표 행사 등을 연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04년 총선 때도 재차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 ▶ 18세 선거권 주장의 주된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부분의 선진국 등은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18세이고 국제적으로도 아동의 기준을 18세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② 대한민국 법상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은 18세부터 진다. 또한 꼭 18세가 아니더라도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청소년의 권익 대변을 목표로 내세운다. 만18세부터 고등학생이나 사회 통념상의 청소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들이 운동의 논거로 많이 쓰였다.
- ▶ 실제로 18세 선거권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이니, 참여한 청소년인권 문제인 셈이다. 2016년 초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18세 선거권, 하지

만 고등학생(혹은 청소년)은 제외'라는 기묘한 안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18세 선거권도 잡을 수 없는 셈이다.

▶ 한국의 선거권 제한 연령은 21세였다가 1960년 4.19 혁명 이후 20세로 바뀌었으며 2005년 19세가 되었다. 이는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이 시민사회의 18세 선거권 요구에 따라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두 당이 합의에 의해 19세로 절충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결과이다.

▶ 1990년대 초반, 고등학생운동 조직인 <고등학생 정치활동 쟁취를 위한 공동실천위원회>는 선거권 제한 연령을 16세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선거권 제한 연령이 20세일 당시 처음에는 대학생단체나 청년단체 등도 이 주장에 동참했으나, 선거권 제한 연령이 19세로 바뀐 뒤 특별히 함께하지는 않고 있다.

▶ 청소년운동의 참정권 운동은 2000년대 초반에는 18세 선거권을 많이 이야기하다가, 이후에는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더 풍부하고 폭넓은 참정권을 함께 주장하는 쪽으로 변해왔다. 아수나로는 2012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원탁회의>, <내나라 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하면서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 《2008 청소년인권 선언》

분류 : 도서

▶ 2008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인권선언. 청소년인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2008 인권선언 운동을 전개한다. 이는 2008년 촛불집회와 신자유주의 등의 현실 속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인권선언을 만들고 선언하자는 취지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추가 되는 《2008 인권선언》 외에도 표현의 자유 선언, 장애인 선언 등 다양한 분야별 선언운동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소년인권 선언이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 선언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교육 현장이나 거리 등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선언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을 나뭇잎 모양의 종이에 받았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표현들, 그리고 아수나로 등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2008 청소년인권 선언》이 만들어졌다. 또한 나뭇잎으로 모은 말투를 살리기 위해 “~해!” 등 반말형을 취한 것도 특징이다.

▶ 2008년 시점에서 청소년운동이 청소년인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분류 : 도서

- ▶ 2015년 1월 <청소년활동가마당>에서 발표한 선언. 23명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연명했다. 청소년운동의 목표와 정의와 의미, 청소년운동의 주체, 청소년운동의 특성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 ▶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는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를 열었다. 2010년 <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이 그 시초였으며, 2014년부터는 <청소년활동가마당>이 열렸다. 2015년 1월 <청소년활동가마당>은 두 번째였고, 이 자리에서는 대중조직에 대한 고민 나누기, 나이주의에 대한 토론, 그리고 청소년활동가 선언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 ▶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은 <청소년활동가마당> 기획단이 초안을 써가서 이에 대해 참가한 청소년활동가들이 토론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 ▶ 아수나로 기본원칙 등에 포함된 내용에서 더 구체화된 청소년운동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2010년대 청소년운동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선언이다.

## 기본원칙

분류 : 운영

- ▶ 아수나로의 활동 방향과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회칙이 운영과 아수나로 활동을 하며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정해둔 것이라면, 기본원칙은 아수나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과 청소년운동에 대한 입장을 담은 자료이다.
- ▶ 2006년 8월에 최초로 승인된 기본원칙은 아수나로가 주장하는 청소년인권의 원칙과 청소년운동의 방식을 설명한 뒤, 아수나로가 주장하는 바 20개를 나열하는 형식이였다. 그 뒤 2011년 1월 제8회 총회에서 기본원칙을 새롭게 다시 만들 것이 제안되었고, 새로운 기본원칙은 2012년 1월 제10회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기본원칙은 아수나로의 취지와 아수나로가 다루는 청소년인권의 원칙, 아수나로가 바라는 변화, 아수나로가 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방법론, 아수나로 운영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 ▶ 뉴페 공부모임 때 인쇄해서 같이 읽어보곤 한다.
- ▶ 보통 아수나로에서 쓰는 여러 문서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결연한 문체로 작성되어있는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 끈대

분류 : 용어

▶ 끈대는 청소년운동에서 나이주의적이고 청소년 차별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된다. 끈대에 해당할 최소한의 조건은 나이주의적·나이차별적 관념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이나 연소자는 열등하거나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노골적으로 가족주의·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청소년 또는 연소자를 일방적으로 훈계하려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

▶ 끈대는 본래 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교사를 가리켜 쓰는 은어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을 흉볼 때 쓰던 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①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②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 페미니즘/여성주의에서 '마초'의 위상과 비슷한 점이 있다. 마초가 가부장주의적, 남성중심적 사고를 내면화한 사람이라면, 끈대는 나이주의와 비청소년(연장자) 중심적, 장유유서 마인드를 내면화한 사람이다. 또한 진성 마초가 여성을 지극히 위하며 보호한다면, 진성 끈대는 청소년을 사랑하며 지극히 위하고 보호한다.

## 나름아지트

분류 : 기타 | 운영

▶ 서울에 위치한 청소년운동 단체들의 사무실 내지 공용 공간.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초 기준으로 아수나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투명가방끈>이 함께 쓰고 있다.

▶ 2010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활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수나로의 서울 사무실'로서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아수나로 서울지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같이 쓰는 사무실이었다. 이후 시즌3로 이사하면서 활기에서 공간 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 보증금은 인권홀씨상 상금과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처음에 마련했고, 빌린 돈 등은 책 인세와 아수나로가 모은 돈으로 갚았다. 이후 이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2013년 <활기>가 <활기충전> 후원행사를 열어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증액했다.

▶ 최초 계약 과정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먼저 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제8회 총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서울지부가 사과하고 계약을 진행한 회원이 탈퇴했다. 이로 인해 사무실 등 공간을 마련하려면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 현재 나름아지트는 시즌3로, 시즌1은 영등포구 문래동, 시즌2는 당산동에 위치했다. 과거 가정에서의 폭력을 피해서 탈출한 청소년활동가를 잡으려고 친권자와 경찰 등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비공개.

## 나이주의(연령주의)

분류 : 용어

▶ 나이에 따른 상하 위계 관념, 특정 나이에 따른 권력관계나 특정한 이미지를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전반을 가리킨다.

▶ 청소년운동, 특히 아수나로는 나이주의를 연소자인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배제, 편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해왔고, 나이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운동의 입장에서 주로 겪는 나이주의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하대를 하거나 얕보는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서툴거나 부족하거나 미성숙하거나 발달할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 짓는 것 등이 있다. 청소년운동은 곧 특정한 형태의 나이주의를 타파하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아수나로는 이에 따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하대하지 않으며, 친하고 안 친한 정도에 따라 반말과 존댓말을 구분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언니”, “누나”, “형”, “오빠”와 같이 연령을 드러내는 호칭도 잘 쓰이지 않는 편이다.

▶ 나이주의는 나이에 따른 구분, 성년과 미성년의 상하관계, 학교, 취업, 결혼 등 현재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대한 규범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령 학교제도나 퇴직제도나 노인연금 등은 나이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이주의 자체가 사회재생산과 생활에 관련된 제도이자 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본래 나이주의, 연령주의의 영어 유래라고 할 수 있는 Ageism이라는 단어는 “고령자(노인) 차별”을 의미했다. 그 이후 페미니즘 등에서 더 풍부하게 해석되었다. 정희진은 나이주의(연령주의)에 관해서, “나는 연령주의를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심각한 혹은 '결정적'인 사회적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연령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이른바 '생애 주기'식의 연령주의와 나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연소자/연장자 우선주의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 보호주의와 혼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가 보호주의이고 어떤 경우가 나이주의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아수나로 안에서 과거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깨기’ 운동 등을 해보려 했지만 아직 제대로 공론화한 적은 없다.

## 내부게시판

분류 : 운영

- ▶ 아수나로 활동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온라인 게시판. ‘내부’게시판이라고 주소에 nebu가 들어간다.
- ▶ 하지만 막상 권한을 얻어 들어가 보면 ‘별 거 없다’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 ▶ 내부에서만 공유되어야 할 회의록, 공금내역, 회원들의 연락처 정보 등 외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9년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여름 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개설되었다.
- ▶ 2010년, 일제고사 반대 운동 때 언론사들이 카페에 공개해둔 아수나로 지부 회의기록 등을 복사해서 보도한 사건 이후로, 회의록에서 연대 단체에 관련된 사항, 학교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은 내부게시판에만 게시하도록 주의한다.
- ▶ 2012년 내부게시판 내에 익명게시판이 생겼으나, 토론이나 의견 개진이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했고, 인권침해 내용이 있는 게시물 등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현재는 글 게시를 막은 상태이다. 과거에 쓰인 글들은 남아 있다.
- ▶ 내부게시판에 연결된 위키도 있다. 위키에는 지부들의 활동회원들에 관한 정보들과 팀 구성원 정보, 그리고 매뉴얼들과 용어사전이 존재한다. 나름 어 사전의 밑바탕이다.
- ▶ 게로게론이 처음 만들어서 계속 담당을 맡고 있는데, 내부게시판 담당은 기술적 문제로 불가피하게 증신직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 ▶ 10주년을 맞이하여 아수나로가 회원 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활동회원과 일반회원들이 함께 보고 쓸 수 있는 좀 더 개방적인 형태가 될 예정이다.

## 대학거부 (대학입시거부, 수능거부)

분류 : 용어 | 운동

- ▶ 대학 입시나 진학을 거부하는 것. 단지 대학을 가지 않거나 그만두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제도, 대학, 사회구조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대학에 가지 않거나 그만두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은 입시경쟁교육이나 학력·학벌차별, 학생인권침해, 시장화되고 불합리한 대학교육, 경제적·사회적 차별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불복종 행동이다. 그러나 꼭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자신의 비진학이나 자퇴를 ‘대학거부’의 의미로 다시 명명하거나 새롭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 ▶ 대학을 아예 진학하지 않은 것을 ‘입시거부’ 또는 ‘대학입시거부’,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한 경우를 ‘대학거부’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입시거부는 주로 수능시험일에 거부선언을 하므로 과거에는 ‘수능거부’로 불렸다. 그러나 세세하게 나누기보다는 모두 합쳐서 ‘대학거부’ 또는 ‘대학입시거부’라고 부르는 편이다.
- ▶ 알려진 것으로는 2002년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활동하던 박고형준이 본인의 고3 수능시험일에 수능을 거부하고 1인시위를 한 것이 최초이다. 그 뒤 교육운동 단체들과 함께 2007년 허그루(당시 <청소년 다함께> 회원), 2008년 김남미(당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등이 수능시험일에 거부선언을 해왔다.
- ▶ 2010년 김예슬이 고려대학교를 자퇴하면서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대자보를 붙여서, ‘대학을 그만두는’ 의미로서의 대학거부선언 사례를 만들었다.
- ▶ 80년대 고등학생운동에서 운동을 위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노동자가 되었던 경우들, 그리고 대안교육에서 입시를 벗어나서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들을 대학거부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
- ▶ 2011년 청소년활동가들이 제안하여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집단적·기획적으로 대학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1년에는 당시 고3/19세 청소년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과 20대 이상의 대학거부선언이 함께 진행됐다. 이 운동으로 대학거부자들이 중심이 된 <투명가방끈>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됐다.
- ▶ 수능시험이나 대학진학은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인데, 병역 문제처럼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러나 대학진학과 대졸 학력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일종의 ‘정상 기준’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다. 대학거부자들은 대학진학과 학력·학벌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온전히 선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부’라고 명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거부’를 하기 위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입시와 대학으로부터 낙오되고 배제되는 사람들 - 대학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부’라는 언어로 교육과 사회에서의 차별을 비판하고 바꾸며 다른 삶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 ▶ 2011년에 <투명가방끈>을 처음 제안한 사람들 중 다수가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었고, 아수나로 활동회원인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대학거부를 선택한다. 그러나 아수나로 활동회원인 청소년들 중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진학 자체는 각자의 처지와 진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다만 입시경쟁교육이나 차별에 반대하는 청소년운동의 성격상 대학거부에 친화적이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운동을 하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학거부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한다. 또 청소년운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거부 운동이 대학입시로 대표되는 주류적인 생애 경로를 벗어난 삶의 모델과 연속된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 관련 도서로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대학 거부, 그 후》가 있다. 김예슬이 쓴 《김예슬 선언 -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책도 있다.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분류 : 도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기획하여 2009년 발간한 책. 메이데이 출판사에서 나왔다. 공현·김명진·김찬욱·무직인꿈틀이·바람 외 저. 청소년인권에 대해 각 주제별로 청소년인권운동이 주장하는 글을 써서 모아놓은 형태이다. 교육/학생인권/정치·노동·경제·보호주의/가족및친권·성, 이러한 주제 분류로 4부로 구성되어 있다.

▶ 아수나로에서 ‘아수나로 BOOK’이라는 기획을 하여 2008년에 자체 발간한 책이 시초였다. 아수나로 BOOK에는 주장 글들 외에 청소년운동 역사에 대한 개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을 보고 출판사에서 발간을 제안해서 정식 출간까지 가게 됐다. 그리고 아수나로 BOOK의 글들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의 글들이 약간 다르고 새로 쓰거나 고친 내용도 많다.

▶ 아수나로가 저자로 들어가야겠지만, 총회에서 이 책의 글들이 모두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토론하고 동의한 내용은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개별 필자들의 이름을 쓰는 방식이 되었다. 또한 그러면서도 각각의 글들이 개인 작업이 아닌 공동 작업인 경우, 다른 활동회원이 많이 수정한 경우 등이 있어서 필자 이름을 글마다 표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 이 책의 인세 덕분에 한동안 아수나로 재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인권, 교문을 넘다》와 연결하면 ‘멈추다’, ‘넘보다’, ‘넘다’의 3단계가 연속성이 있어 보여서 마치 시리즈 같다.

▶ 줄여서 “머피인”이라고도 불린다. 뒤에 “ㅋㅋ”까지가 정식 책 제목인데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ㅋㅋ’라고 읽을지 ‘카카’라고 읽을지 ‘키윽키윽’이라고 읽을지 뭐라고 읽을지 몰라서

▶ 2012년 무렵부터 출판사 사정상 품절 상태이다.

## 비청소년 (어른)

분류 : 용어

▶ 청소년이 아닌 사람. ‘어른’.

▶ ‘미성년자’와 ‘성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구도라서 차별적이고, ‘어른’이라는 표현에도 ‘성인’과 같은 의미, 또는 ‘시대의 어른’처럼 존경할 만한 권위자/인격자를 가리키는 어감이 있다. 이에 청소년 중심으로 건조하게 정의한 것이 ‘비청소년’. 말 그대로 청소년운동에서 논하는 청소년이 아니라는 뜻.

▶ ‘장애인’, ‘비장애인’과 유사한 조어 방법이다.

▶ 줄여서 '비칭'이라고도 한다.

▶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청소년활동가들이 '비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낯설어 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

## 수도권 중심주의 (서울 중심주의)

분류 : 용어 | 운영

▶ 여러 운영이나 활동이 서울 혹은 서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이를 비판적으로 칭하는 용어다.

▶ 아수나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청소년운동이 소규모의 이슈파이팅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만 주로 활동이 벌어지고 주목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언론사 등이 서울에 몰려 있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건 위주로 보도가 되다보니 이런 현상이 심했다. 아수나로가 처음 만들 때부터 전국에 지역모임들을 만들고자 한 취지 역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자는 의미가 있었다.

▶ 한국 사회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 집중 현상이 심하다. 언론만이 아니라 각종 자원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인구부터가 전체의 1/5이 서울, 1/2 정도가 수도권에 살 정도이고 교통, 문화시설 등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청소년운동 입장에서 공간의 빌리거나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려고 할 때면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차이가 나게 된다.

▶ 대학들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이 심하고, 특히 '인서울'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아수나로 회원 중에서도 대학 진학을 서울로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생겼다.

▶ 아수나로 안에서 서울에서 아수나로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진행할 때가 많다는 점, 연대체 활동 등도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대체로 서울지부에 있는 오랫동안 활동해온 회원들이 다른 지부 활동을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잦다는 점에서 수도권 중심주의 비판이 나오곤 했다. 꼭 아수나로가 아니더라도 각종 행사나 도움이 되는 활동 등이 서울에 많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 단위 회의를 꼭 서울에서 하지 않는다든지 총회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의식적 노력을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언론, 그밖의 자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이 계속되는 이상 한계가 있다. 반은 진담, 반은 농담으로 대학평준화와 행정수도 이전 등이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어제 세종시가 생겼으니까 좀 바뀔지도? 하지만 아수나로 세종지부가 아직 없다.

## 스펙이용제한

분류 : 운영 | 용어

- ▶ 아수나로 활동을 한 경력 등을 상급학교 입시 및 진학에 활용하는 것, 즉 소위 '스펙'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이다. 2010년 1월 제6회 총회를 통해 회칙에 포함되었다.
- ▶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대학 입시에서 NGO전형 등에 아수나로 활동을 쓴 사례가 몇 번 있었고, 또 아수나로 활동을 사실 거의 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아수나로에서 활동했다고 쓴 사례가 발견되어 논의가 시작됐다.
- ▶ 제한해야 한다는 측은 운동이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우리는 입시경쟁 등에 반대하므로 더욱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회의적인 측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엔 공감하지만 진학을 위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활동을 열심히 해온 회원이 나중에 진학에 도움을 얻기 위해 쓰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다는 의견이었다.
- ▶ 결국 사용하는 걸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되도록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상급학교 진학에 이용하려면 지부에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또한 “아수나로 활동을 입시에 사용하는 것에 아수나로는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아수라장》

분류 : 언론 | 운영

- ▶ 아수나로에서 만든 온라인 블로그 소식지. 2011년 창간되어 2012년 12호, 그리고 2014년 1월에 2013년 결산호를 내고 《요즘것들》을 창간하기로 결정하면서 폐간되었다.
- ▶ 제목인 《아수라장》은 아수나로를 잘못 기억하고 말한 사례 중 ‘아수라장’에서 따왔다. 왠지자질 떠들썩한 아수나로의 활동 상황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 ▶ 후원회원과 활동회원들을 주된 독자로 상정하고 만들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했으나 지부별로 활동소식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 등, 만드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 ▶ 청소년인권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칼럼으로 다루는 ‘인권톡배기’ 등 읽을거리도 있었고 활동회원을 소개하는 ‘인간극장’이라는 동영상 코너, ‘십자말풀이’ 등 재미를 추구한 콘텐츠들도 있었다.

## 아이들 (우리 아이들)

분류 : 용어

- ▶ 일부 활동가들에겐 ‘지뢰’, 마음 속의 가드를 올리게 만드는 단어. 누군가가 청소년에 대해 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나오는 단어. 각종 주장의 편리한 핑계거리.

▶ 청소년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보호주의적인 태도가 강한 사람들은 심중팔구 ‘아이들’, 또는 더 심하게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보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은 유념해야 할 것.

▶ 엄밀히 말해 ‘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이나 의미상 차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어른/아이’ 등의 어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란 표현은 주로 어른과 대비되어 청소년을 편하게 부를 때 쓰이고, 또 자신의 자식이나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상대를 부를 때도 “우리 아이”라는 호칭이 쓰인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청소년 당사자는 쓰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체를 비청소년, 친권자로 한정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촛불집회에서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피켓이 유행했던 것, 2014년 탈핵 관련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 내가 먹는 음식, 내 아이가 뛰어노는 이 땅,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안전할까요?” 같은 홍보 문구가 쓰였던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아이들을 위해’ 뽑아달라고 하고, 연금 개혁 문제를 논할 때도 정부와 노조가 각각 ‘아이들’을 이유로 삼기도 했다. 뭐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라고 하면 착하고 훌륭하고 공익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은 청소년보호주의의 폐해이다. 아수나로는 소위 탈핵운동 등과 이런 주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 아짱

분류: 기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로고를 가리키는 애칭. 2010년 제6회 총회에서 채택된 아수나로 로고는 ASUNARO 중 A를 사람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이에 따라 이 로고를 의인화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여러 결과 ‘아짱’이 정착되었다. 이는 로고가 치마를 입은 사람처럼 보이기에 여성으로 생각되고 제작자도 여성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다고 말했기에, 일본어에서 나이가 적은 여성을 부르는 애칭인 ‘짱’이 붙어서 아짱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정설.

▶ 한편, 일본 아이돌그룹 퍼폼에 애칭이 “아짱”인 멤버가 있어서, 퍼폼 팬인 모 활동회원의 희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아짱 로고가 세로로 너무 길어서 로고로 디자인에 활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

▶ 아짱은 다 좋은데 혼자 서있는 게 외로워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서 여럿이 함께하는 조직적 운동을 표현

하기 위해 아짱을 복제해서 여럿을 세워두기도 한다. 클론아짱?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거부)

분류 : 용어 | 운동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나 사상, 신념 등을 이유로 군사활동 또는 총 등의 전쟁무기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부 사유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게 되면, 보통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 유엔자유권위원회는 국제인권협약상 '양심의 자유'에서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공식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 평화운동 단체 등에서는 '양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평화권 또는 평화적생존권의 차원에서도 병역거부를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병역은 남성 청소년들 다수가 청소년기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 청소년활동가들도 병역 문제로 고민을 했다. 아수나로 회원들 중에 병역 사항은 다양한데, 병역 대상자 중에는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다수이며, 아수나로 회원 중 병역거부를 직접 한 사람은 공현이 있다. 청소년운동 출신이거나 청소년운동 관련자로 병역거부를 한 사람으로는 박정훈(2000년대 초중반 부산에서 청소년운동), 강의석(고등학교에서 종교자유운동), 홍원석(〈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 김경묵(2000년대 초중반 부산에서 청소년운동 / 현재 영화감독) 등이 있다. 청소년운동을 했던 사람이 병역거부 이유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난민신청을 하고 망명을 한 일도 있다.

## 어린이날

분류 : 기념일 | 운동

▶ 어린이·아동을 위한 기념일. 한국에서는 5월 5일, 국제어린이날은 6월 1일, 세계어린이날(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만들어진 날)은 11월 20일이다.

▶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0년대 일제식민지 시기 소년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어린이날 운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윤리적 억압 등으로부터 해방하라는 취지의 운동이었다. 그래서 《어린이날 선언》 등을 보면 '존댓말을 써달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등 지금 봐도 익숙한 요구들이 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안습 상황. 처음에는 〈천도교소년회〉 창립일이면서 국제적인 노동절 행사와도 맞물리는 5월 1일로 정해졌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 광복 후에는 5월 5일로 공식 지정됐다.

▶ 현재로서는 운동적 의미가 퇴색하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각종 행사가 열리는 기념일 정도로

의미가 바뀌어 있기에 청소년운동에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1년 <혁명적육식주의자동맹>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어린이날 기념 토론회 ‘당신들의 어린이날’을 열면서 어린이날의 운동적인 유래를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2015년 어린이날에는 아수나로에서 ‘학습시간 줄이기’ 요구 전국 동시 퍼포먼스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공부한다”를 기획했다. 거리에서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 어린이날 거리에서는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학습시간 줄이기도 그렇고 뭔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서명이나 캠페인에 좀 더 잘 참여해준다는 경험담이 있다.

## 《오늘의 교육》

분류 : 언론

▶ <교육공동체 벗>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교육 전문 비평지이다.

▶ <교육공동체 벗>은 출판사 겸 단체인데 교육·지식협동조합을 표방하고 있다. 과거 《우리교육》을 만들던 사람들이 《우리교육》에서 경영과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나와서 새롭게 만든 것이 <교육공동체 벗>이고, 《우리교육》에서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것. 조합원이 있고 출자금을 내며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가지는 등 협동조합의 모델을 가져오긴 했는데, 법적인 의미의 협동조합은 아니다.

▶ 2011년에 창간준비호와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2016년 9월 34호가 발간되었다.

▶ 《오늘의 교육》은 ‘교육불가능’, ‘학교민주주의’,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왔고, 현재 교육 관련 전문 매체 중에서 청소년운동의 논의를 가장 자주 게재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에 관련된 글이나 학내 투쟁 에세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글, 또는 청소년운동 자체에 대한 글들이 실려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34호 특집 주제는 ‘나이주의를 넘어서’로 나이주의와 청소년보호주의, 청소년혐오 등에 대한 글들이 실렸다.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벗 조합원인 경우도 있고, 아수나로 활동회원인 공현이 편집위원, 편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 《오답 승리의 희망》

분류 : 언론

▶ 청소년자유언론.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구 <전북청소년인권모임>)에서 발간했으며 <나르샤>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만들어졌다. 발간 주기는 초기에는 1년에 2회였으나 점점 비정기적으로 나오면서 무크지처럼 되었다.

▶ 2006년 초에 창간호가 나왔고 2013년 15호를 끝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휴간호를 낼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되는 중.

- ▶ 8호까지는 8면 종이신문 형태였고 9호부터는 제본된 책자 형태로 발간된다.
- ▶ 청소년들의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며 만들어졌으며 기획 기사나 취재보다는 자유롭게 쓴 글들, 기고 등을 모아서 나왔다. 주장, 에세이, 리뷰 등이 많이 실리는 편이었다.
- ▶ 줄여서 '오승희'라고도 부르는데, 이 때문에 오승희가 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 ▶ 이현 작가가 쓴 청소년 단편소설 《오답 승리의 희망》의 모티브이자 소재가 되기도 했다.

## 《요즘것들》

분류 : 언론

- ▶ 아수나로에서 발간하는 청소년신문.
- ▶ 2014년 3월 창간준비호를 냈고 6월에 창간호를 냈으며 그 이후 약 2개월 ~ 3개월을 발간 주기로 하여 2016년 3월에 제9호를 발간했다. 5호까지는 타블로이드 절반 규격으로 4면으로 냈으나, 6호부터는 8면으로 내고 있고 광고도 신고 있다.
- ▶ 청소년운동의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을 만들자는 기획이 오랜 시간을 들여 실현된 결과물이며, 《청소년의 눈으로》 중지 이후 약 6년만의 일이다. 그 사이에 온라인 소식지인 《아수라장》이 있긴 했지만, 2011년 무렵에 아수나로에서 언론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준비하는 팀을 두었고 이 팀에서 인터넷언론과 인쇄형 언론 등을 다양하게 조사했었으나 결국 재정적으로나 역량상으로나 무리라고 결정했던 적이 있다. 2014년에는 재정과 역량이 확대되어 비록 월간지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시기마다 배포할 신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만들기로 했다. 무리해서라도 종이신문으로 내자고 한 것은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읽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청소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매체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 ▶ 발간 시점에 맞춰서 청소년들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특집기사들과 운동 관련 소식, 청소년들의 삶에 관련된 소식들인 '청소년24시', 칼럼 '청소년의 눈으로'와 에세이 '극한직업 청소년', 리뷰 등으로 구성된다.
- ▶ 2014년과 2015년, <아름다운재단>의 자발적 청소년 사회문화활동 배분을 2회 받아서 제작했다.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분류 : 도서

- ▶ 배경내(당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등의 활동가. <인권교육센터 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의 교육실이 분리된 것이다.)의 저서. 긴 시간 동안, 아수나로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학생인권에 관해 공부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



었던 책. 지금도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았다. 2000년에 <우리교육>에서 ‘청소년REPORT’ 시리즈 두 번째로 발간되었다.

▶ 배경내의 1998년 교육학 논문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각색, 편집하여 쓰인 책이다. 당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사례와 분석을 가장 충실하고 깊이 있게 행한 연구 작업이었다.

▶ 고등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인권 현실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학생인권침해가 왜 반복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학교의 구조와 문화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다.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인권, 교문을 넘다》와 연결하면 ‘멈추다’, ‘넘보다’, ‘넘다’의 3단계가 연속성이 있어 보여서 시리즈 같은 느낌을 준다.

▶ 출판사의 사정으로 절판된 상태다.

## 《인권, 교문을 넘다》

분류 : 도서

▶ 학생인권을 주제로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다. <인권교육센터 들> 기획, 공현·박민진·오혜원·정주연·조영선·배경내 저. 공현은 아수나로 활동회원이자 <인권교육센터 들> 회원이며, 다른 저자들도 <들>의 상임활동가이거나 회원. <한겨레에듀>에서 2011년에 발간되었다.

▶ 부제가 “학생인권 쟁점 탐구”이다. 그 부제대로 ‘학생인권은 이런 것이다’ 하는 소개 수준을 넘어서 학생인권의 원칙과 실제 학생인권의 쟁점들을 다룬다. 학생인권, 더 나아가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점을 익히기에 좋은 책이다.

▶ 서문적인 1부를 제외하고, 2부는 두발규제와 체벌, 양심의 자유 침해, 휴대전화 규제, 교복 및 복장규제, 강제보충자습, 집회의 자유 침해, 연애 탄압 등 학생인권의 내용들에 대해 다루고, 3부는 미성숙, 보호, 교권, 규칙, 가족 및 부모, 학교 안 차별 등 학생인권 또는 청소년인권을 보는 일반적 관점의 문제들을 다룬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증가하고, 학생인권의 내용과 주장에 대한 정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획되었다. 2010년 <들>이 두발규제, 복장규제, 체벌 등 각 학생인권 주제별로 청소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논리와 의견들을 반영하여 쓰였다.

▶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2부 각 장 끝부분마다 ‘토론해봅시다’ 같은 내용의 사례와 질문이 들어 있다. 집회의 자유에 관해 다룬 장 끝에는 선거권 제한 연령 문제에 대한 질문이 붙어 있는 식.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이후 10여 년 만에 만들어져서 “교문을 넘다”라고 선언한 점에서 그간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또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와도 연결하면 ‘멈추다’, ‘넘보다’, ‘넘다’의 3단계가 연속성이 있어 보여서 시리즈 같은 느낌을 준다.

▶ ‘인교님’, ‘넘다’ 등의 줄임말로 불리곤 한다.

## 재정독립성 원칙

분류: 용어 | 운동

▶ 아수나로의 재정 운영에 관해, 재정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자본), 정부(국가) 등의 보조금,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소액의 개인 후원인들과 자체적인 수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단체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 그 취지는 특정 권력에 대해 재정적으로 종속되어서 활동이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게 되는 등의 위험을 경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기업, 정부로부터 나온 돈을 전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있다. 활동을 할 때 정부 등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등 제약이 생길 염려를 없애고, 지원금이 끊긴다고 해서 단체 활동이 어려워지는 수준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기업과 정부에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직접적 지원금 신청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업의 영리활동 등과 연관하여 후원을 받지 않는 것 등.

▶ 2006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 논쟁이 있었고, 2008년 2월, 제3회 총회 때 재정독립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3회 총회에서는 재정의존도, 돈의 성격, 제약이나 제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 2008년 <아름다운재단>에 배분사업 신청을 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 <아름다운재단>도 기업의 후원을 받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이때 결론은 공익재단을 거친 재정 지원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세탁?

▶ 구체적인 재정독립성의 기준과 적용 규칙 등은 아수나로의 합의에 따라서, 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등장과 몰락》(학연소사)

분류: 도서

▶ 2000년 창립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 대해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가 쓴 문서이다. 필자가 이민승인데 가명으로 추정된다. 아수나로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운동을 기획하고 전망할 때 활동가들이 많이 참고한 글. <학연소사>라고도 불린다.

▶ “올해 두발자유화 운동” 등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쓴 시점은 2005년이다.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활동에 대해서는 서울 중심으로, 주로 2002년 초 정도까지 기술하고 있다. 그 이후의 청소년운동 정황 등은 2002~3년 이야기도 나오지만,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만들어진 과정과 2000년 두발자유화 운동, 학교별 지회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요구 운동, 내부 분열 등을 서술하고 있다.

▶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과정 이후 필자의 생각, 청소년운동에 대한 관점이나 제안 등의 분량이 많다. ‘진보적 청소년운동’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운동에 대한 관점 등에서 좌파 운동의 영향도 엿보인다.

▶ 이 문건에서는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2002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 있지만, 2003년 정도까지 새롭게 조직을 재구성하고 존속하려고 시도했다는 그 이후 활동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

▶ 글에 등장한 몇몇 단체 및 개인들이 이 글의 서술이 필자의 주관에 따라 일부 편집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던 적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역사나 운동에 대한 관점 등 외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평 등은 가려서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 전국논의자랑

분류 : 운영

▶ 송해: “전국~논의~자랑~” 전국논의자랑은 아수나로의 전국 단위 회의기구이다. 1년에 2번 있는 총회 사이에 2번씩, 1년에 총 4회 정도 열린다. 전체온라인회의와 달리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하는 회의라는 점이 특징이다.

▶ 눈치 챌겠지만 장수 TV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서 이름을 따왔다.

▶ 지부에서 1인 이상씩 참여한다. 지부의 전체논의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팀이나 담당의 멤버들이 참여한다.

▶ 온라인회의로는 원활한 소통과 논의가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일상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결정을 내리고 아수나로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 2013년 여름 총회에서 제안되어 개설되었다.

## 전체온라인회의

분류 : 운영

▶ 아수나로의 가장 오래된 전체 논의 구조이다.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 시절부터 있었다. 지역모임 별 담당자가 있고, 전국논의자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행되었다. 활동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소집되며 일상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 전체공금 사용, 신생지부 승인, 지부가 없는 회원이 활동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등 지역모임 단위가 아닌 전체 단위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이다.

▶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는데 총회나 전국논의자랑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때 필요하다. 과거에는 아수나로 논의 결정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었으나 규모가 커지고 논의할 것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서 지금은 비중이 작은 편.

▶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잠수 타는 회원을 막기 어렵고 집중이 흩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안정적인 온라인회의(채팅) 공간을 찾아 해멘 여정의 기간이 제법 길다. 처음에는 네이버카페채팅을 이용하다가 안정성과 호출 기능의 필요성 때문에 irc를 상당기간 사용했으며, irc 서버가 불안정해진 이후에는 팔링으로 옮겼다. 조만간 또 바뀔 예정. 미래에는 화상 회의로 발전할 것이다. 돈이 없어서 안 될걸?

▶ 비슷한 성격의 전체 단위 회의로는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전국논의자랑'이 있다.

## 지문날인거부

분류: 용어 | 운동

▶ 한국은 만17세에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어서 국가에 정보를 저장시켜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실천하는 불복종 행동이다.

▶ 지문날인거부자들은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신분증으로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지문날인반대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며, 이는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국가가 생체정보인 지문을 모든 국민에게 제출하도록 해서 보관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따라서 인권단체 등 지문날인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과도한 인권침해이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국가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본다.

▶ 1999년,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쟁점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이 논란이 되었다. 결국 전자주민증은 도입되지 않게 됐으나, 이후 주민등록증 관련 법을 새로운 형태로 개정하여 갱신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공론화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지문날인거부와 헌법소원 등 실천에 나섰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멘터리도 나왔다. 이때 과거 청소년운동을 했던 사람들 일부도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문날인거부에 동참했다.

▶ 지문날인을 하는 시기가 만17세,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운동에서도 청소년인권 문제로 보고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함께하곤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가들 중에도

지문날인거부자가 상당수 있다. 2011년,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재차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 차별금지법

분류: 법 | 용어 | 운동

▶ 각종 사회적 차별을 금지, 근절하고 차별이 일어났을 때 이를 구제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률.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처음으로 구체화되었고,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낸 안에서는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출신국가, 병력, 범죄전력, 언어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있던 시정명령 등을 삭제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단체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고 반대했고, 보수근본주의 기독교 세력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반대했기 때문. 이처럼 후퇴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도 우려를 표하며 비판했고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산되었다. 그 뒤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기구에서 인권 문제 심의를 받을 때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 받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검토한 적은 있어도 실제로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다. 기업들과 보수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의 반대를 의식한 점도 있고, <새누리당>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 인권단체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반차별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꾸려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및 반차별 주장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아수나로 역시 <반차별공동행동>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겪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차별’로 개념화하는 작업을 했다. 차별금지법 사건에서는 성소수자 문제가 주로 이슈가 되기는 했으나 <반차별공동행동>은 성소수자 말고도 학력, 성별, 나이, 병력, 장애 등 다양한 차별 사유들에 관련해서 활동을 펼쳤다. 아수나로는 담당할 역량의 부족과 연대체가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진 문제 때문에 2010년에 <반차별공동행동>을 탈퇴했다.

▶ 전체적인 차별금지법 외에도 ‘장애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의 분야별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령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주로 정식 약칭은 ‘고령자고용법’, 임금노동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니 청소년과는 큰 상관이 없다.

## 청소년 (어린이, 미성년자)

분류 : 용어

▶ 청소년운동이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는 단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다. 보편 개념적으로는 사회적 법적으로 '미성년자'(Minor)로 분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제인권법상 '아동'(Child)과 유사하다.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운동은 사회적 법적 '미성년'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여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정의된다.

▶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를 제한 받으며, 친권자-보호자에 의해 가정에서 보호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속할 것을 요구받는다.

▶ 현실적으로는 10대보다도 더 나이가 적을 때는 여건상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10대 또는 13세~18세를 가리키는 것, 또는 중고등학생이나 그 연령대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 되고는 한다. 10세 이전의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운동을 만들면 이런 이미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이라는 말이 '푸르다'(靑)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자체로 청소년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편견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너무 낯설지 않게 널리 쓰이면서도 대체할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많이 사용되는 중.

▶ 한국에서는 현재 민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에서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또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통 만19세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이 기준이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정의하는 등 법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국가의 청소년 개념 자체가 얼마나 주목구구식인지 보여주는 면.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18세 미만 기준인 것은 매우 이상한데, 만18세(19살)부터는 집에서 맞아도 학대가 아니다. 고3들이 오래 당하는 각종 폭력과 강제학습을 생각하면... 청소년기본법에서 포함되는 20대 초반은 청소년운동이 운동 주제로 삼는 이슈들과는 괴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20대 초반까지는 청소년 연령대와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24세까지를 가입자격 기준으로 삼는 단체도 간혹 있다.

▶ '어린이'는 역사적으로는 1920년대 소년운동에서 만들어진 존중의 뜻을 담은 표현이다. 하지만 현재는 '어린이'가 보통 사회적으로 10대 초반 정도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린', '어리다'라는 의미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즐겨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맥락에 따라 10대나 13세~18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린이·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다.

▶ 소년이 남성을 의미하고 소녀가 여성을 의미하는 것 때문에, 여성 청소년을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청년 및 청소년은 소년/소녀에 비해서 성별적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용해서 성별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는 애매하다.

## 청소년보호주의

분류 : 용어

▶ 청소년을 ‘어른’들이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관점과, 그러한 생각 및 제도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위협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체는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 보호주의는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나 여러 형태의 보호 전반이 아니라, 청소년의 핵심적 속성을 ‘보호할 대상’, ‘보호받을 약자/피해자’로 보는 것을 이른다. 또한 ‘안전할 권리’ 같은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보호할 주체(비청소년, 부모, 국가 등)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보호주의 속에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근대에 들어서 가족 안에서 ‘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아동기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아동을 보호할 주체로 ‘부모’나 ‘모성’(어머니)을 요구하였으므로 가족 또는 가족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족주의와도 관련이 깊다.

▶ 각종 심의제도나 온라인게임 섷다운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주의가 국가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요구하는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가 된다고 간주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차단시키는 일종의 ‘선도’, ‘훈육’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 이윤 추구를 위해 유해한 물건/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청소년보호주의는 청소년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비청소년을 보호하는 주체로 위치시키며 권력관계를 견고히 한다. 김성윤은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억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로 보호주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규제하고 문화와 삶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라는 논리 속에 주체인 비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는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존중, 자유와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는 청소년만 ‘보호’한다고 해서 분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황과 구조를 보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에게 임노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누구나 안전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노동환경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비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보호’라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할 권리 등 주체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 《청소년의 눈으로》

분류 : 언론

- ▶ 아수나로가 냈던 신문. 또는 ‘행동하는 청소년’에서 냈던 이메일 신문. 또는 《요즘것들》의 칼럼 코너 이름.
- ▶ 2005년부터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에서 타블로이드 8면으로 발간했던 신문이다. ‘청소년인권 운동 신문’을 표방했다. 약칭은 ‘청눈’. 《청소년의 눈으로》라는 이름은 <행동하는 청소년>에서 이메일로 내던 신문에서 따온 것이었다. <행동하는 청소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수나로에 함께했기 때문.
- ▶ 2007년 나온 3호가 마지막호였다. 4호까지 기획했으나 끝내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발간되지 못했다.
- ▶ 이후 2014년 창간된 《요즘것들》의 칼럼 코너 이름인 “청소년의 눈으로”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 총회

분류 : 운영

- ▶ 아수나로 전체의 활동과 운영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가장 큰 회의이다. 회칙 개정, 활동 계획 세우기, 지부 신설 그리고 지부 폐지 등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총회에서 결정한다. 형식상 최상위 절차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총회 결정사항’을 우선 고려한다.
- ▶ 오랜만에 다른 지역모임 활동가들을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논의와 의결뿐 아니라 아수나로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는 주제에 대한 열린 토론을 하기도 한다. 아수나로 지부들과 활동 회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입장과 운동 방향을 맞춰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 초창기에는 일 년에 한 번으로 겨울 총회만 열렸으나 제5회부터 여름 총회도 추가되어 연 2회로 늘어났다. 또한 제3회 총회까지는 1박 2일이었으나 2009년 제4회 총회부터 2박 3일이 되었다. 2박 3일 동안 밥만 먹고 잠도 줄여가며 회의하는 매우 박센 시간. 처음 아수나로 총회를 접하는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사실 사람이면 대부분 총회는 힘들어 한다.
- ▶ 2014년부터는 여름 총회에서는 회의를 줄이고 활동회원들의 역량강화, 운동에 필요한 연수도 함께 진행한다.
- ▶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활동회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종종 “아수나로 해산 안전 만장일치로 통과!” 라는 드립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본래는 다들 지쳐서 안전에 큰 문제없으면 대체로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셀프 풍자하면서 나온 농담이었다. 아수나로는 총회 때마다 해산됐다가 재결성된다.
- ▶ 초기에는 총회가 열린 지역 이름을 가져와서 ‘광주 총회’, ‘서울 총회’ 등으로 특정 총회를 가리켰지만, 횡수가 많아지면서 같은 지역이 3번씩 중복되니까 이제는 제1회, 제2회 하면서 숫자로 부르고 있다.
- ▶ 총회 자리에 활동회원의 친권자가 쳐들어와서 회의에 지장을 빚은 사태 이후로 총회 장소를 지역 외에는 비공개하고 있다. 내부계시판 공지 외에는, 참여를 원하는 활동회원이나 신입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알



린다.

▶ 수십 명이 2박 3일간 모여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아수나로 예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과 역사는 “총회사”를 참고하면 좋다.

## 친권자 (보호자, 부모)

분류 : 용어

▶ 청소년들 대부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권력자. 학교에서 “부모님 모셔와.”가 비공식적 징벌의 일종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때로는 교사나 국가보다도 무서운 탄압의 주체.

▶ '미성년자', 곧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가지는 사람을 이른다. 친권의 정의와 효력 등은 민법 909~927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후견인에 관한 조항들도 친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친권자는 감독하는 청소년에 대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보호와 교양의 의무 등을 가진다. 또한 친권자는 각종 사안에서 법정대리인이 되며, 현실에서는 각종 사안에 대해 청소년을 대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부모나 양부모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정해진 친척, 후견인 등이 된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부모, 양부모 등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친권자”라고 부르곤 한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1) 아버지, 어머니 양쪽이 있는 정상가족 중심적인 ‘부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는 문제의식. 2) 혈연과 애정 중심으로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족 개념을 벗어나, 자녀와 부모/보호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려는 문제의식이다. 즉 ‘친권자’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가정 청소년인권 문제와 친권자-자녀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 입장, 정상가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 이러한 의미의 ‘친권자’는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도 청소년의 인권을 제약한다는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아수나로는 현재와 같은 가족과 친권 제도를 바꿔 더 사회적이고 인권적인 제도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엄밀히 말해서, 만19세를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친권자라는 말을 쓰는 데는 어폐가 있다. 하지만 꼭 법적 권한이 아니어도 사회적, 경제적 권력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20대까지도 일정 부분은 ‘친권자’라는 표현이 유효할 수도 있다.

▶ 모든 친권자가 ‘꼰대’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꼰대의 어원을 찾다보면 여성 친권자를 “암꼰대”, 남성 친권자를 “숫꼰대”라고 불렀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 모친을 ‘여성 친권자’, 부친을 ‘남성 친권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 줄이게 되면 ‘여친’, ‘남친’이 되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자.

## 탈가정

분류 : 용어 | 운동

- ▶ 가정을 탈출함. 또는 가정을 나왔다는 의미. 흔히 하는 말로는 '가출'.
- ▶ '가출'이라는 말도 단순히 집에서 나왔다는 말이지만, 그 말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일종의 탈선이고 일탈이라는 이미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배어 있다. '탈가정'은 이런 '가출'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이 가정을 탈출했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용어이다.
- ▶ 학교를 졸업 전에 그만두는 것을 '학업중단', '중퇴'가 아니라 '탈학교'라고 부르자는 제안과 비슷한 구도이다.
- ▶ 청소년활동가들 중에는 활동이나 진로에 관한 갈등, 가정에서의 폭력 등으로 인해서 탈가정을 한 경우들이 간혹 있다.
- ▶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 중 절반 가량은 '부모 폭행', '가정내 성폭행' 등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니, 많은 청소년들의 가출은 문자 그대로 가정으로부터의 '탈출' 시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 ▶ 아수나로에서는 2015년에 《탈가정을 탐방하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안내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안내서"》라는 긴 이름의 소책자를 만들었다.

## 학생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분류 : 기념일 | 운동

- ▶ 11월 3일.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유래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유래가 이렇다보니 '스승의 날' 등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고 노동절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날,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같은 느낌으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학생의 날을 챙기는 학교 자체가 별로 없다.
- ▶ 1953년 정부 기념일로 정해졌다가 1973년 정부 기념일에서 빠졌고, 1984년에 다시 정부의 공식 기념일이 되었다가 2006년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었다. '~의 날'에서 '~기념일'이 된 것은 법적으로는 격상이지만, 청소년운동에서는 과거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만 하는 날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 ▶ 광주의 학생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것이기도 했지만, 당시 학생들은 학교의 자치권이나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권리, 사상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인권 보장, 노예화 교육 반대 등의 요구를 했기에 보편적인 학생의 저항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근대화화 학교교육이 확산되면서 1920년대는 학생들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의 정책, 교사의 억압 등에 항의하여 동맹휴학 등을

자주 벌인 시기이기도 했다. 현재에도 아수나로는 학생의 날을 이야기할 때 주로 독립운동이나 민족주의 보다는 억압적인 교육·사회체제에 저항하는 행동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곤 한다.

▶ 광주 학생독립운동이 유래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1980년대 고등학생운동 등에서도 꾸준히 학생의 날 행사나 집회를 열었고 학생의 날 자체에 이어져 내려온 운동의 역사도 존재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의 단체들도 매년 학생의 날에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버튼을 배포하고 기념 행사를 열고 퍼레이드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 아수나로에서는 2013년, 2014년 전교조와 연대하여 '학생의 날 신문'을 기획, 제작하여 배포했던 바 있다.

▶ 광주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재연할 때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을 열차에서 희롱해서 조선인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지키려고 나서서 싸움이 붙었다.'라는 사건을 계기로 거론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 사건 경위는 불분명한 상태이고 '여성을 지켜주는 남성'이라는 구도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 학생인권법

분류: 법 | 용어 | 운동

▶ 어떻게 된 이상 국회로 간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 대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학생인권 문제를 법제정을 통해 개선해보려고 한 2005년 이후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이다.

▶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그 내용은 두발규제, 체벌, 강제적보충자율학습, 종교강요, 소지품검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 차별금지, 학생회 자율성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교자치위원회)에 학생회 참여,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칙 개정 금지(침해 여부는 교육부에서 판단),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체계 구축, 학생인권실태조사 정례화 등이었다. 이 법안은 2000년대 초중반 여러 학생인권 이슈들이 공론화되고 2005년에 다시 두발자유 운동이 일어나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정책실> 등이 논의하여 학생인권 문제를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해보고자 한 시도였다.

▶ 2006년 최순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아수나로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집회나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교조> 등 여러 교육운동 단체들과 연합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역시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등을 함께했고, 2007년 하반기에는 총 11,745명의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체벌금지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등 내용에 반발하여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결국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문구가 초중등교육법 18조의4로 추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2012년,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아동·청소년인권법안과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했다.

## 학생인권조례

분류 : 법 | 용어 | 운동

▶ 밖에서 보기엔 아수나로의 대표적 정책, 또는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선물. 실제로 아수나로 사람들이 깨는 애증의 대상.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말하며 국가 차원의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명령보다 하위의 법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를 만들 수 있으나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들은 모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이다.

▶ 조례 제정(의회 통과 확정) 시점 기준으로,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현재 시행 중이다. 서울특별시(2010~2011), 경상남도(2011), 충청북도(2011~2012)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있었으나 이 중 경상남도는 도의회에서 부결시켰고 충청북도에서는 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이유로 발의를 거부했다.

▶ 주요 내용은 두발복장 자유 등 개성의 자유, 체벌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충수업·자율학습 등의 선택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및 소수자 학생의 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 공정한 징계절차에 대한 권리 등이다. 지역에 따라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에도 차이가 있고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이 모두 제대로 알려지거나 지켜지지는 않고 있으며, 두발자유와 체벌금지와 강제학습금지 정도가 주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는 2004년 부산에서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제안되었던 적이 있으며, 2005년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안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었었다. 그러다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되고 2008년 서울 주경복 후보, 2009년 경기도 김상곤 후보 등, 이른바 '민주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에 의해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 자문위원회를 꾸렸고 만들기 시작하였고 아수나로 등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성안과 제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학생인권조례 내용에는 과거 광주에서 만들었던 조례 초안, 일본 가와사키 아동권리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례들,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장들을 참고했다. 경기도에서 2010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발의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발의하여 경기도에서 한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 광주와 전북에서는 교육청에 의해서, 서울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민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의회를 통과했다. 주민발의는 만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 자필서명에 의해 그 지역 선거권자 주민의 1%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초중고등학생은 참여할 수가 없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주민발의의 과정은 참여한 비청소년 시민사회단체들의 초반 참여가 저

조하여 매우 다사다난했다.

▶ 안 그래도 차별금지와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으로 많은 쟁점이 됐다. 그런데 서울 주민발의 이후 언론에서 더욱 조명을 받았고 보수근본주의 기독교 단체와 극우 등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를 놓고서 “동성애 조장, 십대 임신 조장”이라고 공격을 가해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경기도랑 광주에서 제정될 땐 조용하더니...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성소수자단체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등 투쟁에 나섰고 여러 단체들의 노력과 시의원 설득 작업 끝에 일부 개악된 안이 통과됐다. 이 사건 이후로 보수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마다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성소수자 운동도 사회적으로 더욱 가시화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계속 부정적이다. 유엔인권기구 심의 때는 학생인권조례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서에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는 계속 발목을 잡는 이중 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에는 당시 이대영 교육감 대행(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였음.)이 재의(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다시 한번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 일종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 교육부와와의 공조 속에 재의 요구를 했다는 추측이 많았다. 다만 이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정식으로 재의 요구를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고,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한 이후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무효소송을 내려면 재의 요구 명령을 먼저 하도록 절차를 정해두고 있어서 재의 요구 명령을 정식으로 안 했던 교육부가 패소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무효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장이 학교규칙에서 ‘용의복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제시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이후 만들어진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과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두발자유에 통을 준 교육부의 만행.

▶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운동이 오랜 시간 노력해온 두발자유,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성공한 직접적 성과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관련 조례들 중에서 드물게도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학생인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의 유일한 법제도라는 위상을 가진다.

▶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문제, 학교 현장에서도 조례의 권들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교육청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계 등이 있다. 또한 아수나로 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로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행동에 나서려고 하기보다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해결해주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거리감이 생겼고 의회나 교육청에 관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제정 과정에서 여러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고, 운동의 귀중한 성과이고 학생들의 삶을 개선한 제도라는 점에서 소중한

것도 사실이니, 애증의 대상.

▶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권리조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권리현장,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교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조례를 변형한 조례나 현장 등을 만들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수나로는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학생인권조례로 해야 한다는 입장. 먼저, ‘조례’도 강제성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현장’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여야 학생도 인간이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 ‘학교인권조례’나 ‘교육공동체권리조례’ 같은 식으로 학생·교사·관리자·학부모 등을 병렬적으로 나열해서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안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학생의 인권을 원칙이자 기준으로 세우지 못하고 학교나 교육공동체의 논의와 합의 밑에 종속시키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그러한 ‘유사’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조례로 유의미하게 보장할 만한 교사나 학부모 등의 권리를 풍부하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을 듣는다. 그러나 학교인권조례로 하고 각종 내용을 후퇴시켜도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이나 보수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등은 다 반대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2015년 사례 입증되었다.

## 학생자치법 (학교자치법.조례)

분류: 법 | 용어 | 운동

▶ 학생자치의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회 활동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들, 그리고 조례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06년,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학생회도 학교자치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 학교자치법이라고도 불렀고, 학생인권법과 묶어서 ‘학생자치인권법안’ 등으로 불렸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학교운영 참여 권한 등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학생회 등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법안들도 ‘학생자치법’, ‘학생회 법제화’ 법안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2013년 광주에서도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전라북도에서 비슷한 내용의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되었다.

▶ 현재 법률상으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과 결정에 대한 권한을 대부분 갖고 있고, 심의·자문 역할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할 뿐이다. 제대로 된 자치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구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컨대 학생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줄 적혀 있는 게 전부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생자치법이 발의되었을 때는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를 강화할 변화로 기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 학교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 그리고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되었다. 학생이 교사 등과 동수로 참여할지, 2인만 참여할지 등이 <민주노동당>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법안에서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 등을 명시

했으나, 학생회의 예산권이나 자율적 활동 및 행동권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학교자치조례에서는 학생회의 의결권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노력했다.

▶ ‘학생회법제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2000년대 들어 제기된 학생들의 학교 민주주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 발의 직전인 2005년,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자치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기구의 법제화만으로 과연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수나로도 학생자치법 등을 지지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나 권리 보장이 아닌 ‘자치’나 ‘절차’에만 집중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다.

▶ 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학교장의 권한을 규정한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이다. 교육부가 아니라 고소부인가 싶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 기념자료집

어설픈,

하지만 망하지 않은

발 간 2016년 12월 2일

제 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필 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주년팀 (공현, 난다, 영서, 타시아)

후 원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가 격 10,000원

<http://asunaro.or.kr>